금주의 법구–〈법구경〉

욕망의 숲을 자르고
욕망서 벗어난 자가 돼라.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찾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26 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11월 13일) 2018년 12월 19일 수요일



한국불교 전통등 Beautiful! 한국불교 전통등의 아름다움에 미국인들이 매료됐다. 연등회보존위원회는 11월 29일 미국 뉴저지 스톡톤 대학에서 한국 전통등 강습회를 개최했다. 이종복 스톡톤 대학 교수의 제안으로 열린 이번 강습회에는 미국 학생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복주머니등과 연꽃등을 제작하고 아름다움에 감탄사를 연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완성 후에는 각자의 등을 들고 소원을 비는 시간도 가졌다. 사진은 스톡톤 대학 강습생들의 전체 기념사진. **글=신성민 기자 · 사진제공=연등회보존위원회**

지하철 문화포교 다시 한번 관심을

'풍경소리' 창립 20주년 맞아 게시판 교체 불사 전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6개 도시 2200개 게시판
20년간 낡고 정비 불가피
소요 예산 약 2억원 예상
지역불교계 관심 필요해

역사 게시판 교체 외에도
포교학술회 · 전시회 예정

1999년부터 지하철 역사 내 부처님 법음을 전하며 문화포교 일익을 담당해온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대표 선묵 혜자, 이하 풍경소리)'가 내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전국 게시판 교체 불사에 나선다. 점차 후원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지역불교계가 이를 함께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풍경소리는 1999년 9월 28일 창립된 비영리 단체로서 지하철 및 철도역사 승강장과 대합실에 게시판을 운영하며,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문구와 그림을 대중에 전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 대구 · 인천 · 대전 · 광주 등 지하철 역사에 2200여개의 게시판을 설치, 매달 포스터를 바꿔가며 다양한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다. 2001년에는 세계 최초로 지하철에 '봉축열차'를 조성해 80일간 운행하고, 2004년 잠실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서 심장병 어린이 후원을 위한 '불교문화체험전' 등을 실시한 바 있다.

풍경소리는 내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행사와 전국 게시판 교체 불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역사 내 환경정비에 따른 게시판 표준화를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풍경소리와 사랑의 편지 게시판 규격이 달라 이를 통일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풍경소리는 내년 3월부터 서울 및 수도권을 시작으로 2020년 말까지 전국 철도 및 지하철 게시판을 교체하기로 했다. 소요 예산은 약 1억9000만원이다.

이용성 풍경소리 사무총장은 12월 12일 기자들과 만나 "20년간 한 가지 게시판 디자인을 사용해왔는데, 서울교통공사에서 게시판 규격 일원화를 알려왔다"며 "서울과 수도권에만 현재 1000개가 넘는 게시판이 설치돼 있어 이번 기회에 전국 지하철 게시판을 교체하는 대작불사를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풍경소리 후원이 줄어들고 있어 불교계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풍경소리는 창립 이후 지금까지 거액의 후원금보다는 개인, 불교단체, 사찰 등의 크지 않은 후원금으로 운영해왔다. 몇 년 전까지 약 2억 원의 연간 예산을 집행했지만 최근 들어 1억5000만원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게시판 교체를 위한 별도의 목적사업 예산까지 필요해 지역불교계 도움 없이 사업을 전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풍경소리 측은 내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교통공사가 요청한 게시판 규격 일원화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게시판 일괄 철거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단 점에서 대중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용성 사무총장은 "얼마 전 광주에서 게시판을 철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내년 열리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맞춘 지하철 환경정비가 이유였다"면서 "그 즉시 광주에 내려가 게시판 규격 일원화 사업을 설명하며 겨우 설득할 수 있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처럼 지하철 내 풍경소리 게시판은 오래 전부터 곳곳에서 철거 위기를 겪었다. 2014년에는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인천지하철서 시설물 정비를 이유로 철거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조계종 인천사암연합회(회장 성안) 도움을 바탕으로 4년 만에 인천지하철 1 · 2호선 40개 역에 80개의 게시판을 다시 설치하게 됐다. 이에 전국 지하철 게시판 교체를 위해 지역사암연합회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성 사무총장은 "지하철이 대도시에 존재하고, 대도시에는 지역사암연합회가 각 지역에서 높은 공신력을 갖기 때문에 풍경소리 게시판 교체에 힘을 실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하철역에서 대중이 잠시나마 마음을 위로받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불교계가 관심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풍경소리는 게시판 교체와 함께 내년 하반기에 20주년 연수회(7월), 기념식(9월), 도심 대중공간 포교 학술회(10월), 20주년 기념 풍경소리 작품전시회(연중) 등을 계획하고 있다. (02)736-5583

오대산 禪風 분다…오대산문 수행결사

평창 월정사, 12월 18일부터 4일간 진행

오대산문 개산 이래 1400년간 전승돼 온 수행 가풍을 새롭게 다지는 결사가 진행돼 주목을 끈다.

평창 월정사(주지 퇴우 정념)는 12월 18일 '오대산문 수행결사'에 입재한다.

12월 21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오대산문 수행결사'는 한암 스님의 수행가풍을 이어 사부대중의 발심 전법 원력을 새롭게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오대산문에는 신라 신문왕 당시 보천, 효명태자가 수행기도를 통해 불보살을 친견하고 동서남북과 중앙에 오대암자 장엄불사를 한 기록이 있다.

그동안 오대산문에는 상원사와 오대암자에서 수행가풍이 전승돼왔지만, 본사인 월정사의 경우 각종 불사와 행사 등으로 수행 정진에 한계가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오대산문 수행결사는 오롯이 집중 수행하는 기간으로 '오대수행(五大修行)'을 주제로 진행된다. 새벽예불, 염불수행, 참선명상 그리고 저녁예불까지 산사의 모든 대중이 모든 업무를 잠시 멈추고 수행에만 전념한다.

오대산문 수행결사는 여기에 각 경내 도량마다 각자의 특색에 맞는 수행이 차례로 진행된다.

월정사에서는 예참과 독경수행이, 상원사와 중대적멸보궁에서는 염불수행이,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에서는 참선 및 비불자를 위한 명상 수행이 진행된다. 묵언수행을 수행청규로 염불수행의날에는 산내 모든 불자들이 동참한다.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 스님은 "원래 결사라 함은 산문을 폐쇄하며 기도 및 염불, 독경 소리가 24시간 경내에 끊이질 않게끔 용맹 정진하는 것을 말한다"며 "이런 결사의 원 취지대로 처음에는 산문 폐쇄까지 생각했지만, 관광객과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의 입장을 고려해 산문을 그대로 열고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념 스님은 "이번 결사의 특징은 예전에 해오던 오대수행 가풍의 역사와 경험을 되살려, 예참, 염불, 독경, 참선, 명상 등을 핵심 수행으로 하고, 수행 청규는 철저한 묵언 수행으로 진행 될 것"이라며 "이번 결사에는 재가자 200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며, 현재 동안거 결재중인 산내 선원에서도 각자 결사 취지에 맞게 정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정사 '독경' 상원사 '염불'
명상마을선 '참선, 명상' 등
'오대수행' 기치로 집중 수행
매년 연말마다 결사 계획

마지막으로 정념 스님은 "이번 결사를 시작으로 오대산에서는 매년 연말에 수행 결사를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며, 철저한 수행 가풍이 한국 불교에 전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승가학원 이사장 원행 스님 선출

12일 제116차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총장 · 이사장 직무 수행 유일 기록
오는 21일 이사회서 차기 총장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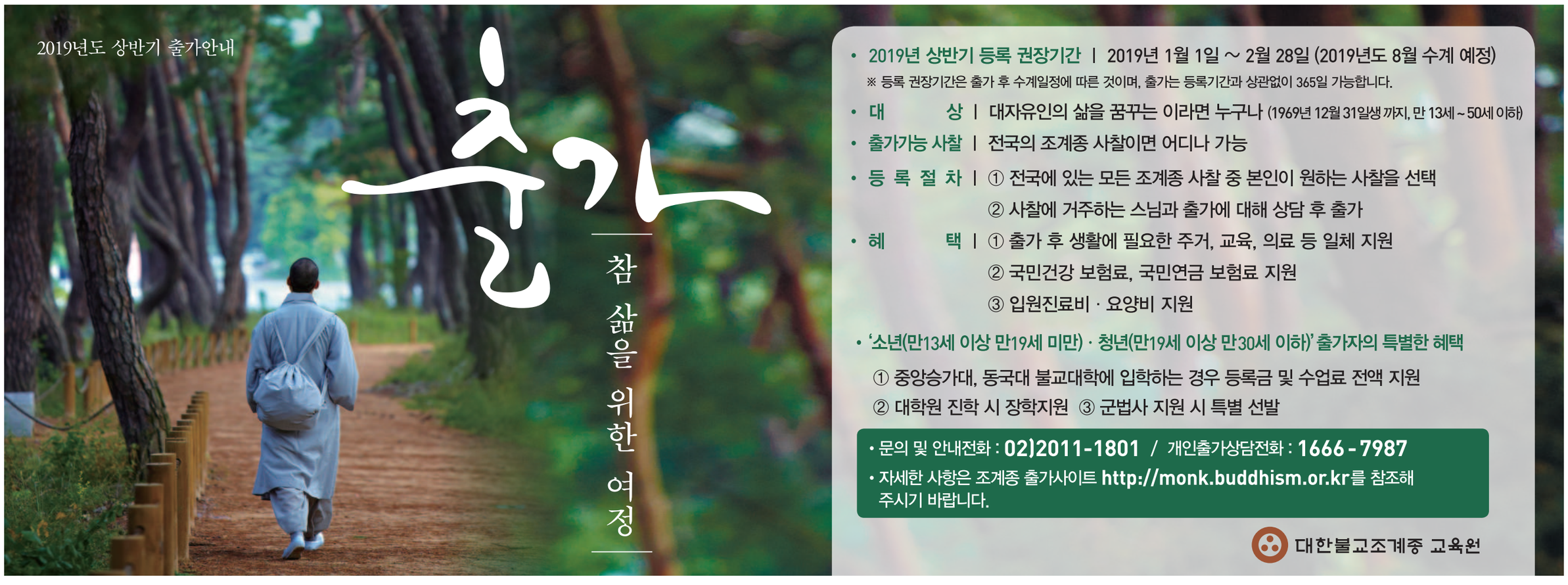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장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현재 공석인 중앙승가대 총장 선출은 오는 12월 21일 열리는 이사회서 이뤄진다.

학교법인 승가학원은 12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16차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 호선 · 간서명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관에 따라 당연직 이사로 선임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승가학원 이사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중앙승가대 6대 총장을 지낸 원행 스님은 이사장에 선출됨에 따라 중앙승가대 역사상 총장과 이사장을 모두 역임하는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와 함께 승가학원 이사회는 오는 12월 21일 오후 3시 제117차 회의를 열고 차기 총장을 선출키로 결의했다. 또한 간서명 이사에는 정안 스님, 진광 스님, 해주 스님이 선임됐다. **신성민 기자**



종교 연대 '생명헌장' 세계로

생명탈핵실크로드, 최종안 발표…전 세계 순례 나서

김지원 기자 jayjace@hyunbul.com

각국이 합의한 지구촌안전 관련 헌장이 나왔지만 실천적인 부분은 부족하다는 민간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는 차원서 불교계 주도로 2년간 정비해온 생명헌장이 완성됐다. 해당 헌장이 달라이라마, 교황 등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에게 전해질 지 기대를 모은다.

생명 · 탈핵실크로드순례단(단장 이원영 · 수원대 교수, 이하 생명로드)은 12월 13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체칠리아홀서 '지구생명헌장 2018 서울안 및 후반기 생명로드' 행사를 개최, 지구생명헌장 완성안을 공표했다. 평창 월정사를 시작으로, 국내 종교인 및 학계 인사, 태국, 캐나다, 베트남 등 해외 학자 등이 발의 · 검토에 참여하는 등 고심 끝에 '지구헌장 서울안' 이 나온 만큼 해당 헌장이 범종교계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확산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생명로드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핵발전소 관리 및 폐기 필요성을 절감한 이 교수가 기획, 실행에 옮긴 순례다.

지구생명헌장은 생명로드를 통해 전 세계에 생명존엄과 비핵화에 대한 뜻을 확산시키기 위한 용도로 제정됐다. 실제로 순례단은 달라이라마, 프란치스코 교황 등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를 만나 서울안을 헌정하고 범종교계의 생명탈핵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달라이라마 · 교황 비롯해
세계 종교지도자 교류 계획
UN 헌장 가치 이어받지만
인간중심 아닌 숲생명 강조

이원영 단장은 생명로드가 종교적 연합체인 신규 국제기구 설립을 염두에 둔 프로젝트임을 밝혔다. 이 교수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7년이 흘렀지만 UN은 침묵하고 있다"면서 "핵무기 때문에 국제연합(UN)이 만들어졌다면, 핵발전소 위협에 상응하는 체제도 필요하다. 지구촌 종교계가 연합해 감시하는 단체를 설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지구생명헌장 2018 서울안 요약

제1조. 생명 존엄성은 최상의 가치이다.
제2조. 전 생명체는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상호 연계돼 있다.
제3조. 생명공동체의 위기는 곧 인류의 위기이다.
제4조. 인류는 지구생태계를 보살필 책임이 있다.
제5조. 생명을 위협하는 핵무기 · 원전을 폐기해야 한다.
제6조. 과학기술에 의한 생명침해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제7조. 전 인류는 생명권 증진 정책을 제정 · 실천해야 한다.
부 칙. 종교인은 '지구촌 생명과 안전'을 위해 연대해야 한다.

지구생명헌장은 UN 세계자연헌장(1982), 리우환경회의 지구헌장(2000)의 가치를 계승, 헌장에는 종교계가 연대해 탈원전 등을 실천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두 헌장과의 차이점은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난 생명 전반의 가치 확산을 핵심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장은 UN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가 해온 역할의 한계를 지적하고, '추상적 선언이 아닌 구속력 있는 실행체제' 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인류가 지향해야 할 지구생명의 원칙 7가지를 제시해 △생명존엄 △생명 연계 △생명공동체 △인류책임 △핵 폐기 △생명침해 중단 △실천의무를 주문한다.

이 교수는 "생명로드를 걷는 목적은 인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함"이라며 "순례에 동참하는 물리적 동참뿐만 아니라 반야심경의 마지막 진언을 외는 마음으로 지구촌 생명의 문제에 뜻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후반기 생명로드는 12월 22일 동지에 서울을 출발, 상반기 순례 때 멈춘 지점인 인도 시라바스티부터 재개된다. 순례단은 2020년 4월까지 5,000km를 걸어 바티칸까지 18개국을 경유해 걷는다는 계획이다.

동국대 제19대 총장 2월초 선출

법인 · 교수 · 학생 · 직원 12월 10일 합의문 발표

11일부터 선출 방식 협의 예정
"직선제 · 기존안 등 열어놓을 것"

동국대 제19대 총장 선출이 2월 초에 이뤄진다.

동국대 법인사무처 · 교수협의회 · 직원노동조합 · 총학생회는 12월 10일 본관 교무회의실에서 총장 선임 일정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새로운 총장 선임을 위해 다양한 의견과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총장 선출 과정서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합의의 배경을 밝혔다.

4자 협의체는 총장 선임 관련 이사회를 12월 18일 이사회를 개최해 총장 선출 방안 및 일정을 확정하고 이후 총장 선임 과정을 진행키로 했다. 또한 최종 후보자를 내년 1월 말까지 추천해 늦어도 2월 초에는 제19대 총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해 총장 선임을 확정하기로 했다. **〈차주 상보〉**

이 같은 합의는 지난 9월부터 이뤄진 협의 과정의 성과다. 법인과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교직원 노조는 꾸준히 협의를 진행해 왔고 12월 10일 상록원에서 진행한 4자 회의를 통해 선출 일정 논의를 끝마쳤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남아있다. 이사회 전까지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법인 · 교수협 · 직원노조 · 총학은 12월 11일부터 선출 방식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동국대 총장 출마를 위한 학내 교수들의 물밑 작업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의연 · 허남결 · 이윤호 · 윤성이 · 정창근 · 송일호 · 이상일 · 박명호 · 홍승기 · 유국현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원행 스님, 이르면 내달 '방북'

6.15남측위, 명예대표직 제안 · 남북 공동행사 초청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명예대표직을 제안하는 한편, 남북관계 개선에 종교계가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2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이창복 6.15남측위 대표의장 예방을 받았다. 이 자리서 이 대표의장은 "지난 10년간 대북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없던 환경 속에서 조직에 부분적으로 이완이 있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수축함과 동시에 조직을 확대하고, 열린 공간 속에서 걸맞은 통일운동을 준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려 한다"면서 "원행 스님께서 앞서 총무원장스님들처럼 6.15남측위 명예대표를 맡아주셨으면 한다. 또한 조직의 의결 구조에도 참여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창복 6.15남측위 대표의장과 환담을 나누는 원행 스님.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예방에 함께한 조성우 6.15남측위 공동대표는 북측위와 추진 중인 사업에 조계종의 동참을 부탁했다. 조 공동대표는 "현재 북측위와 새해맞이 남북해외민족공동행사를 논의하고 있다. 1월말이나 2월초 금강산서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원행 스님은 긍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7대 종교대표들과 협의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교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스님은 "정교분리 원칙에 의해 정치에 깊이 관여하진 않지만 사회적 역할이 있기 때문에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불방일합시다

부처님은 생애 최후의 말씀으로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고 제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이 유훈은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남긴 유언처럼 간절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여정 3개월을 실감나게 기록한 〈유교경〉 〈붓다차리타〉 〈대반열반경〉 등 경전을 읽으며 부처님의 유훈을 가슴에 새깁시다.

*"아난다여, 이제 나는 낡은 수레와 같아 내 여행은 막이 내려지고 있다. 아난다여, 수행자는 자기를 등불로 삼고(自燈明) 의지처로 삼아야 한다. 남을 의지처로 기대서는 안된다. 법을 등불로 삼고(法燈明) 의지처로 삼을지니 다른 어떤 피난처도 의지해서는 안된다. 내가 멸도한 뒤에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의 진실한 제자요, 제일가는 수행자가 될 것이다."

부처님은 마하와나로 가서 웨살리 근처의 비구들을 모이게 했다.

"나는 나이가 차서 곧 너희들을 떠난다. 부디 방일하지 말고 힘써 마음을 챙기며 계율을 잘 지켜라."

허약한 몸으로 힘든 여행을 하시면서도 부처님은 마지막 공양을 올린 대장장이 춘다를 위해 법문을 설하며 제도하셨다. 부처님은 드디어 쿠시나가라 사라나무 숲에 도달하셨다.

"피곤하구나, 아난다여! 저 두 그루 사라나무 사이에 머리를 북쪽으로 하여 자리를 펴 다오."

부처님은 오른쪽으로 누워 팔을 베고 두발을 포갠 다음 제자들에게 둘러 싸였다. 부처님은 뒤늦게 도착한 떠돌이 수행자 수밧다를 8정도로 교화하여 마지막 제자로 삼았다.

"비구들이여, 내가 간 뒤에는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라. 그것은 해탈의 근본이다. 그리고 4성제 진리에 대하여 의심이 있으면 마음놓고 물어라."

3번이나 똑같이 말씀하셨으나 비구들은 침묵하였다.

"그럼 잘들어라, 비구들이여!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 방일하지 말고 힘써 정진하라. 이것이 나의 최후의 말이다." 부처님은 위대한 열반(大般涅槃)에 드셨다.

*부처님은 45년간의 가르침을 '방일하지 말라' (不放逸)로 마무리 하시고 모든 형성된 것은 영원하지 않음을 일러주셨습니다.


방일-게으른 농부의 논밭에 무성한 잡초 그림 · 조향숙

'불방일' 부처님 최후 유훈
"계율 잘 지켜라" 함께 당부
'자등명 법등명' 미리 말씀

죽음이 기약없이 닥쳐오고 목숨이 가뭄에 잦아드는 논물처럼 줄어드는 것을 알아차리면 방일할 수 없습니다. 〈법구경〉 불방일품은 '부지런함은 생명(열반)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고 했습니다.

지금 이순간 게으르지 말고 불방일 정진을 합시다. 순간이 삶입니다. 게으른 농부가 제 때에 김을 매지 않으면 논밭에 잡초만 무성합니다.

수행자도, 학생도, 사업가도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신분과 근기에 따라 불방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불방일은 부처님이 일체중생에게 내린 성취 처방입니다. 행주좌와 어묵동정 어느때라도 몸과 입과 뜻으로 선법을 닦아 자기를 변화시키는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불방일하여 스스로 지혜를 밝히는 것이 자기의 등불입니다. 스스로 등불을 밝게 비추면 법의 등불은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

"정진을 스승 대하듯 하고, 방일을 적과 같이 물리쳐라." 부처님의 불방일 처방을 믿고 수행합시다.

깨달음의 출발은 믿음입니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인도 · 네팔
8대 성지순례 11일
출발일 I 2019년 3월 8일 출발
225 만원

창립30주년특별기획
실크로드·돈황 10일
출발일 I 2019년 4월~10월 (매월출발)
239 만원~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푼힐 트레킹 9일
출발일 I 2019년 3월~4월 중 출발
259 만원~

· 포함사항 - [노옵션] 왕복항공료(유루세, 공항세 포함), 식비, 숙박비, 여행자보험, 관광지 입장료, 팁경비 포함
· 불포함사항 - 개인적 성격의 지출, 짐 포터·룸메이드 팁
· 10명 이상 모집시 출발 (모집인원에 따라 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02-720-9600
마음여행 Since.1989 실크로드여행사
상세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aumtour.com

“엄동설한에 무료급식도 하지말라니”

영등포 쪽방촌의 안타까운 사연

쪽방촌도우미 무료급식소
주방 시설 가건물로 판정
1500여 만원 벌금 부과돼
“어려운 이웃 돕는 일인데”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파가 몰아친 12월 6일 쪽방도우미봉사회 회원들이 음식을 만들고 있다. 작은 이 무료급식소는 해당구청의 벌금부과로 철거위기에 처했다.

“하루 하루 힘들게 사는 쪽방촌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애석합니다. 봉사자들도 쉬고, 조리도구도 보관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불법가건물이라고 이 엄동설한에 무조건 철거하라며 과도한 벌금을 내라니… 1평도 되지 않는 곳에서 무료급식만 기다리는 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수은계조차 얼린 한파가 몰아친 12월 초, 영등포 쪽방촌에 비보가 날아왔다. 쪽방촌 사람들의 한 끼 식사를 담당했던 쪽방도우미봉사회 무료급식소를 철거하라며 벌금이 부과된 것이다. 엄동설한에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급식까지 못하도록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영등포구청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쪽방도우미봉사회는 불자 봉사자들이 영등포 쪽방촌을 돕기 위해 구성한 사단법인이다. 영등포 쪽방촌은 영등포역 뒤편 철도 인근에 자리한 판자촌으로 1평도 되지 않는 작은 방에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르신들과 몸이 불편한 장애인, 노숙자들이 기거하고 있다. 쪽방도우미봉사회는 매주 목요일 일주일 먹을 음식을 만들어 배달하고, 무료급식소에서 국수 등을 만들어 보시하고 있다. 쪽방도우미봉사회의 활동 터전은 쪽방촌 가운데인 영등포동 618-584에 위치한 작은 무료급식소다. 여기서 봉사자들은 음식을 조리한다.

영등포구청은 이 무료급식소가 가건물이라며 철거 명령을 내린 상태다. 무료급식소 철거 움직임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등포구청 푸른녹지과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사단법인 쪽방도우미봉사회 대표인 정일화 씨는 2016년 9월 20일 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영등포구청은 무료급식소 철거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2017년 634여만원을 부과했으며, 2018년에는 565여만원을 부과했다. 여기에 가건물 부동산 취득세 123만원과 철도청에 부과명령을 통해 철도청의 철도부지 사용료 140만원까지 부과했다. 2017년부터 부과된 금액은 1500여만 원에 달한다. 일정한 후원자가 없는 상황에서 십시일반 노력봉사로 쪽방촌 소외계층을 돕는 이들에게 사실상 무료급식을 하지 말라는 행정처분이다.

1990년부터 30년 가까이 쪽방촌을 돕기 시작한 김윤석 경위는 “2001년 2월 영등포의 한 파출소 옥상에서 천막을 치고 이 지역 반찬봉사를 시작했다. 당산동 건물 철거로 2016년 10월부터 영등포 쪽방촌 컨테이너를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행정처분은 봉사회로선 너무 큰 부담”이라며 “천막을 치고 봉사가 가능하지만 조리도구 보관을 비롯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구청도 사실 관내 소외계층을 돕는 일인데 과도하다”라며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영등포구청 담당부처는 관련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푸른녹지과 담당자는 “안타깝지만 해당 부지는 철도 완충 녹지로 2016년부터 계도 후 철거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법상 철거 때까지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다른 장소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인근 교회 측에서 불교계 봉사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주원인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쪽방도우미봉사회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조계종조사계붓다맘 등도 함께 명시하고 활동하고 있다.

영등포구청 징수과 관계자는 “주변 민원으로 인한 민원 사항으로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관계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타이틀도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 함께 명시토록 한 것이다. 영등포구청과도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교음악계 거목 ‘운문 스님’ 원적

보현행원 등 찬불가 1000여 곡 작사



불교음악계 거장 운문 스님〈사진〉이 12월 10일 세수 91세, 법랍 74세로 원적에 들었다. 운문 스님은 예불가, 보현행원, 산회가 등 한국불교계를 대표하는 찬불가 1000여 곡을 작사한 불교음악계 거목이었다.

1928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난 운문 스님은 1944년 망월사서 인곡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1953년 해인사 전문강원을 수료했다.

청소년 포교에 큰 뜻을 둔 스님은 1964년에는 불교동요집을 발간했고, 1966년 청소년교화연합회를 창립했다. 불교음악 중흥의 시작이었다.

이후 40여 년 동안 찬불동요를 포함해 총 1000여 곡에 달하는 찬불가를 만들었으며, 이런 공로로 1987년 제1회 조계종 포교대상 공로상을, 1990년 제3회 조계종 포교대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스님은 생전 “우리가 아무리 부처님을 위해 보배의 탑을 가득히 쌓고, 불전에 많은 공양과 예배를 올린다 해도 부처님께서 중생 교화를 위해 세우신 큰 서원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빚을 지는 일”이라며 전법포교를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라면 · 솜이불로 전한 慈悲의 손길 생명나눔실천본부 회원들이 소외이웃에 솜이불과 라면을 전달했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12월 10일 서울 노원구 중계2, 3동 주민센터 대강당서 ‘제5회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따뜻한 정 나누기’ 행사를 열고, 저소득 독거 장애인 · 어르신에게 솜이불 200채와 라면 200박스를 전달했다. 행사에 쓰인 지원물품은 가수 겸 배우 수지 씨가 후원한 성금 1,500만 원으로 마련됐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이번 행사를 통해 중계동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부처님께서 이웃을 위한 자비심을 강조한 만큼 불자들도 정 나누기 행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원 기자

1980년대 불교계 민주화운동 기록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월항쟁과 불교〉 발간

1970년대 민중불교운동의 태동부터 1987년 6월 항쟁까지 불교민주화운동사를 담은 기록서가 발간됐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는 최근 〈6월항쟁과 불교〉를 발간했다. 책에는 6월항쟁 당시 불교계의 대응과 투쟁 양상, 그리고 1980년대의 치열하고도 지난했던 불교계의 이념 모색과 투쟁 과정이 담겨 있다.

1987년 6 · 10민주항쟁(이하 6월항쟁)의 시발점은 그해 1월 14일에 일어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었다. 그로부터 6개월간 ‘박종철을 살려내라’,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는 국민들과 폭력진압에 나선 전두환 정권 사이에 접전이 벌어졌다. 이때 최루가스 자욱한 거리에서 잿빛 승복 휘날리며 불퇴전의 기개로 시위를 벌이는 스님들이 등장했다. 이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왔다.

기실 6월 항쟁 당시 종교계의 역할은 지대했다. 성당 · 교회 · 사찰에서는 박종철 열사 추모집회와 ‘민주헌법쟁취’ 전국 동시다발 집회의 개최를 알리는 타종을 했고, 집회 · 시위 · 농성의 거점 역할을 했다. 천주교 · 개신교계는 ‘민주화는 우리의 십자가’라고 외쳤고, 불교계는 ‘민주화는 정토의 구현’이라고 외쳤다.

〈6월항쟁과 불교〉는 1980년대 불교계의 불교자주화 · 사회민주화 투쟁을 망라한 기록서다. 1970년대 민중불교운동의 대통부터 사원화운동, 민중불교연합과 불교정토구현전국승가회의 창립 등의 전말이 생생히 정리돼 있다.

이 시기 불교계 민주화운동은 한 편의 대서사시에 가깝다. 당시 운동에 참여한 승가 · 재가 지도자들과의 인터뷰와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공들여 정리한 투쟁기는 사뭇 생생하다. 또한 책 뒤에 실린 1980년대 불교계의 주요 성명서 · 시국선언문 24편은 불교현대사 측면에서도 사료적 가치가 높다.



‘민주화는 정토 구현’ 기치로
스님 · 재가불자들 거리로 나와
민중불교 태동부터 6월까지
불교민주화운동 역사 기록해

6월항쟁 당시 국본 상임공동대표로 불교계의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지선 스님은 “유신독재 시절, 적극 나서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며 민족민주운동을 모색했던 불교인들은 198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일어서기 시작했다”고 회상하며 “〈6월항쟁과 불교〉에 그 치열했던 현장과 불교계의 엄중한 투쟁 과정을 충실하게 정리하고자 노력해 기초 자료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언론문화상 ‘원효, 돌아보다’ 대상

뉴미디어 최우수상엔 한마음선원 유튜브 채널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이 주최하고, 조계종 문화부가 주관하는 제26회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에 KBS 부처님오신날 특집 ‘원효, 돌아보다’가 선정됐다.

조계종은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언론을 통해 건강한 사회발전에 기여한 방송과 신문, 뉴미디어 등 뛰어난 불교관련 작품을 선정했다”며 12월 11일 수상작을 발표했다.

언론계 공로로 올바른 언론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불교언론인상에는 인터넷방송인 ‘유나방송’ 진행자 정목 스님이 선정됐다. 방송부문서는 최우수상 KBS ‘물러나… 산문에 들다’와 우수상 KBS 힐링다큐 나무야나무야 ‘순천 불일암, 스승의 나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문부문서는 불교신문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획 ‘불교항일운동, 그 현장을 가다’가 최우수상, 법보신문 ‘조계종 총무원장 열전’이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뉴미디어부문은 한마음선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최우수상을, BBS 애니메이션 고승열전 경허대선사 12부작이 우수상에 올랐다.

이외에도 특별상에는 ㈜현기획 ‘잃어버린 보물 귀향을 꿈꾸다 신흥사 영산 회상도’와 BBS라디오 거룩한 만남 난치병어린이 돕기 특집 ‘아프지말아요’가 각각 선정됐다.

윤호섭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9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집
•6년 ~ 고3 재학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군입대 연기 가능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학자금 대출 가능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 (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교학처 : (02)511- 2026, 2027
Fax (02)511- 2028
▶총장실 : (02)511- 1080
▶http://www.njutcm.co.kr

“모든 존재가 스승… 자비로 세상 보듬길”

아남툽텐 린포체 로종 수행 현장

12월 7 · 8일 국제선센터서 사부대중 240여 명 참여

‘마음 훈련 8구절’ 법문과 지도 명상 · 만트라 진행돼 “자신 변화 이끌어” 호응


국제선센터에서 수행에 동참한 대중이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딩.’ 티베트 불교 특유의 싱잉볼(singing bowl)이 공간에 울리자 대중들은 일어나 스승을 맞이했다. 스승은 이내 사자좌에 올라 법을 설했다. “진정한 본성을 온전히 꽃피울 수 있다면 진정한 자기 변화가 가능합니다.”

2014년 첫 방한 이후 매년 한국을 방문하며 롱첸닝틱, 쬐 등 다양한 금강승 수행을 전하고 있는 아남툽텐 린포체가 올해에도 한국을 찾았다.

세첸 코리아의 초청으로 방한한 아남툽텐 린포체는 이번에는 로종 수행으로 한국 대중에게 법을 전했다. 12월 7~8일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에서 열린 로종 수행 법회에는 사부대중 240여 명이 참여했다.

로종 수행은 인도 아띠샤 존자에 의해 생겨났지만, 주로 티베트 불교 수행으로 알려져 있다. ‘마음 훈련’으로 번역되며, 자신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탁월한 수행법이기도 하다.

귀의의 기도로 시작한 법회는 아남툽텐 린포체의 지도 명상으로 이어졌다. 여러 무드라 동작을 취하게 한 아남툰텐 린포체는 곧 콧구멍에서 나오는 호흡에 집중할 것을 대중에게 주문했다. 그러면서 린포체는 나직한 목소리로 지도를 이어갔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쫓지 않고 동일시 하지 않습니다. 자각 · 의식 안에서 지켜보고 매순간을 관찰합니다.”

대중은 아남툽텐 린포체의 지도에 맞춰 호흡에 집중하며 명상에 들어갔다. 정신과 마음이 차분해지자 아남툽텐 린포체의 법문이 이어졌다. 법문은 로종 수행의 근본이 되는 ‘마음 훈련 8구절’에 대한 가르침이었다.

‘마음 훈련 8구절’의 첫째는 ‘여의주보다 귀한 모든 중생 위해 성불하고자 하며 항상 중생 아끼길’이다.

이 구절에 대해 아남툽텐 린포체는 “모든 존재에 대해 마음을 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물같은 여의주처럼 모든 존재들을 바라보면 탐착과 증오를 넘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모든 존재를 조건없이 사랑하는 것을 이 게송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스승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일상의 인간관계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로종은 ‘옛 나’에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태도와 습관을 얻고 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2일 동안 진행된 로종 수행은 지도명상과 ‘마음 훈련 8구절’ 법문의 반복으로 이뤄졌다. 명상과 법문, 그 안에 단순하지만 명증한 가르침은 대중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BTN불교TV 라디오 울림 진행자인 운성 스님은 지난 2016년 린포체의 저서를 통해 가르침을 접했고, 지난해 겨울에 말레이시아 법회에 참가해 인연을 맺었다.

운성 스님은 “격없이 대중을 하나하나 살피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자신의 가르침을 행동과 삶 속에서 설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면서 “오늘 수행법회에서도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했다.

도반들과 함께 참여한 자안 스님은 “법회와 수행을 통해 자비를 강조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며 “이 같은 자비 발현은 일선 포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본지의 아남툽텐 인터뷰를 접하고 참가한 재가자도 있었다. 욘게이 밍규르 린포체의 수행법회에 참여해 온 이미진(32, 경기 포천시) 씨는 본지 인터뷰를 보고 로종 수행법회에 참여했다. 그는 “자비심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주시는 것이 마음에 와 닿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고령의 참가자인 홍대흠(79, 서울 용산구) 씨는 지난해 이어 2번째 아남툽텐 린포체의 법회를 찾았다. 홍 씨는 “린포체가 가르친 알아차림 수행을 하면서 생활이 많이 변화했다”면서 “삶의 질이 향상됐다는 느낌이다. 몸이 거동할 수 있을 때까지 린포체의 법회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남툽텐 린포체는 로종 수행법회 이후 설악산 백담사로 자리를 옮겨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마음의 본성’ 집중수행을 진행했다.

화계사, 미륵존불 점안 “신행증장 발원”

이재순 석장 조성… 의자에 앉은 형태 눈길

지역사회 공헌과 외국인 스님 지원에 앞장서는 서울 화계사가 옛 고봉 스님 부도탑지에 미륵존불을 점안했다.

화계사(주지 수암)는 12월 7일 경내에서 미륵존불 낙성 · 점안법회를 봉행, 화계사 불자들의 신행증장을 발원했다. 법회에는 주지 수암 스님을 비롯해 화계사 선덕 견향 스님, 중앙종회 부의장 주경 스님, 화계사 국제선원서 수행 중인 외국인 스님과 재가불자 300여 명이 동참했다.


300여 불자가 참여한 점안법회 현장.

미륵존불이 세워진 터는 옛 고봉 스님의 추모탑과 부도탑이 자리하던 곳이다. 하지만 그동안 부도가 대웅전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어 화계사는 부도를 이전했다. 이후 이 터는 공터로 유지됐다. 이에 화계사는 불자들의 신심을 불러일으키고자 미륵존불을 조성했다.

화계사 미륵존불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20호 이재순 석장이 조성했다. 특히 이 미륵존불은 기존의 입상 또는 좌상으로 표현되는 불상과 달리 의자에 앉은 형태를 띠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는 유근자 동국대 불교미술학과 교수와 이수예 사찰문화재연구소장의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좌우 보살상이 협시불로 조성됐으며, 미륵존불 위로는 돔 형태의 지붕을 덮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고시위원장에 지안 스님 선출

조계종 고시위원장에 지안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2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0기 고시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10기 고시위원은 총 9명으로 지안 스님(9기 고시위원장), 재연 스님(선운사 초기불전승가대학원 교수), 대전 스님(기본선원장), 승원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무애 스님(해인사 승가대학장), 광전 스님(前 중앙종회 의원), 혜원 스님(前 동국대 교수), 지형 스님(前 청암사 승가대학장), 일진 스님(前 운문사 승가대학장)이 이름을 올렸다.



신성민 기자

군종교구, 6일 장군진급 불자 고불식 봉행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새해 장성포교를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군종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12월 6일 국방부 호국 원광사에서 대령에서 장군으로 진급한 불자를 대상으로 장군진급 고불식을 봉행했다.

이날 고불식에는 박종형 육군 법무실장, 이숭재 육군 장군, 강동길 해군 제독 등 5명의 장군 진급자가 초청됐다.

또 군종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과 부교구장 남전 스님, 원광사 주지 법상 스님, 국군불교총신도회 사무총장 김재봉 장군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The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다 ⑱

이영실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비상근 교육부장

“모든 인생 행복한 마무리 짓도록”

이영실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교육부장은 호스피스 봉사자와 활동가를 배출하는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다.

비상근인 봉사자이지만 이 교육부장이 가진 책임감은 대단했다. 이 교육부장은 “불교호스피스협회는 최초의 불교계 호스피스 교육기관이자 협회로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불교가 대중에게 상구보리 하화중생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바로 호스피스다. 스님이건 재가자건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타인의 죽음도 보살피는 것은 숭고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봉사자들을 상담하는 이영실 교육부장.

이 교육부장이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교육부장으로 임하게 된 것은 울산 마하보디교육원 교육부장으로서의 역량이 탁월해서다.

1993년 불교호스피스교육이 시작된 이후 각 병원에서 환자를 파견하는 것부터 봉사 교육을 하는 것까지 이 교육부장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없었다.

이 교육부장은 “당시에는 불자라는 이유만으로도 봉사활동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다. 협회가 구성되고 전국적으로 역량을 갖추게 돼 다행”이라며 “교육생들이 회원이 되고 현재 각 현장에서 열정을 가지고 봉사에 임해줘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부장은 본인도 한 명의 봉사자라며 불자 한 명 한 명이 사회에서 봉사자로서 보다 책임감을 갖고 임할 때 부처님 가르침이 더욱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 구성 후 생사의장 호스피스 교육이 시작된 것이 2년, 스님들을 대상으로 승려연수교육이 진행된 것이 1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불교호스피스교육은 이제 막 발걸음을 뗀 것이지요.”

이 교육부장은 앞으로 호스피스 교육의 전문화에 보다 매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 교육부장은 “격변하는 이 시대에 불교가 정체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실제 활동하는 사람이 30% 수준이지만 더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원력을 북돋는 교육방안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마하보디교육원서 활동 토대
불교협회 교육업무 도맡아
호스피스로 불교역량 확대 발원

끝으로 이 교육부장은 “임종의식 등 교육을 받은 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현장에 대해 자신감을 얻고 원력을 다지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 또 돌봄가 스님들과 교육을 받은 스님들도 한국불교를 넘어 한국 호스피스계에서 역할이 커지는데서 뿌듯함을 느낀다”며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죽음을 매일 매일 디자인하며 마지막에 자연 속에서 여여하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인생의 행복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돌보는데 나섭시다.”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말기질환 환자 및 가족들의 생명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불교 호스피스 단체로서 2009년 창립됐다. 각 지역 · 지부 불교호스피스 활동을 총괄하며 조계종 승려연수 일환으로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를 모집 중이다.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승려연수 30점 인증

①임상과 수행의 만남 ②환자의 심리와 욕구 ③영적 대화기법 ④죽음 현상들에 대한 직관 ⑤임종간호와 영적돌봄의 실제 ⑥불교의 생사관과 정토신앙 ⑦불교적 임종의식과 입관의식 ⑧임종시점에서 西歸直指의 방법론

• 교 육 비 | 25만원(법납 10년 미만 및 학인스님 5만원 감면)
• 접수문의 | 052)255-8522, 8524, 8530 / www.kbha.kr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미래의대체의학인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 (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과학연구소(소장:처명)

GM SOFT since 2015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일출 보러 어디로? “난 사찰에 간다”

2019 해맞이 특별 템플스테이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저물어가는 한 해, 직장 · 지인들과의 송년모임이 끊이지 않는 시기다. 지난 1년간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털어놓고, 새해에는 어떤 목표를 세울지 내기하듯 쏟아내기 일쑤. 다음날 말만 앞선 자신의 모습에 자책하기도 한다. 연말은 잦은 술자리로 인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작심삼일을 극복하기 위한 새해 다짐으로 머리가 아프기 마련이다. 이것도 저것도 고민이라면 조금 특별한 해맞이를 경험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떨까?

템플스테이를 주관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12월 말부터 1월 1일까지 전국 54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과 함께 ‘2019 새해맞이 특별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고즈넉한 산사서 힐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수 마련됐다. 전국 템플스테이 일정과 눈에 띄는 사찰을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해맞이는 역시 동해바다

동해 삼화사는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2019년 삼화사 동해바다 일출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준비했다. 삼화사는 ‘속세의 번뇌를 버리고 불도 수행을 닦는다’는 뜻을 지닌 두타산(頭陀山) 자락에 위치해 비경을 자랑한다. 무릉계곡과 동해 추암 촛대바위 일출이 장관이다. 삼화사는 이 같은 절경을 중심으로 △송년법회 △소원등 만들기 △소원지 작성 △탑돌이와 타종식 △무릉계곡 포행 △동해바다 해돋이 등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033)534-7676

천년 역사 속 해맞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신라시대 대표 천년고찰 **경주 불국사**. 불국사는 12월 29일부터 1월 1일까지 ‘2019 토함산 석굴암 해맞이 특별 템플스테이(휴식형)’를 운영한다. 불국사의 다양한 문화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비롯해 고요한 천년의 소리가 담긴 범종 · 법고 · 운판 · 목어 등의 사물명상, 새해 소원을 담은 LED연등 만들기, 타종식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새해 첫날에는 토함산 해맞이와 석굴암서 떡국공양을 즐길 수 있다. (054)746-0983

커피향과 함께하는 해맞이

전국에서도 유독 커피가 유명한 강원도 강릉. **강릉 보현사**에서는 은은한 커피향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 보현사는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커피콩을 직접 볶아 커피를 내리는 핸드드립 체험이 가능한 해맞이 템플스테이를 준비했다. 이뿐만 아니라 새해맞이 소원지 쓰기, 연꽃등 만들기, 새해맞이 타종식, 108배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033)647-945

멀리 못 가면 서울 도심서

연말연시 해맞이를 위해 급증하는 교통체증 때문에 장거리 이동이 꺼려진다면 서울 도심 속에서 템플스테이를 즐겨보자. 북한산 자락 **서울 금선사**는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타종체험 행사와 새로운 꿈을 향한 108배, 촛불명상, 다함께 즐기는 윷놀이 등을 준비했다. 아울러 일출과 함께 새해맞이를 위한 북한산 사모바위 산행도 진행된다. 새로운 계획과 함께 새 마음가짐을 가져보자. (02)395-99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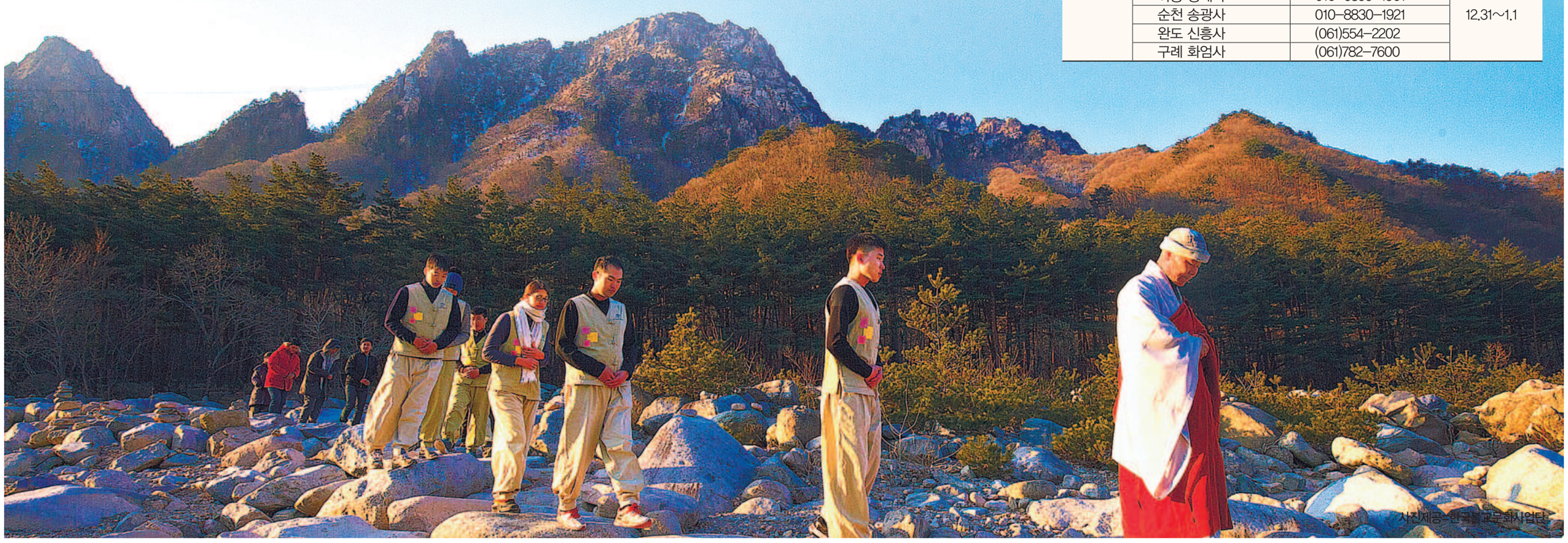
다양한 체험 가득

수령 1100년이 넘는 거대한 은행나무가 백미인 **양평 용문사**. 한때 의병들의 근거지 역할을 맡았던 용문사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용문사 템플스테이는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진행되며 △컵등 만들기 △희망경매 △아이들과 함께하는 영화관림 △해맞이 △다 같이 차담하기 △소원 단주 만들기 △은행잎 소원지 쓰기 △떡국 먹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031)775-5797

2019 해맞이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지역	사찰명	연락처	일정
서울	경국사	070-8850-9292	12.31~1.1
	조계사	(02)768-8523	
	화계사	(02)900-4326	
경기	고양 중흥사	(02)357-7744	12.31~1.1
	고양 흥국사	(02)381-7980	
	수원 수원사	(031)245-9670	1.1(당일)
	광명 금강정사	(031)899-7366	12.31~1.1
	가평 대원사	(031)582-0477	
	가평 백련사	(031)585-3853	
	용인 법륜사	010-6766-8700	
	남양주 봉선사	(031)527-9969	
	용인 화운사	(031)337-2576	
인천	전등사	(032)937-0152	12.31~1.1
	연등국제선원	(032)937-7033	
강원	인제 백담사	(033)462-5565	12.31~1.1
	속초 신흥사	(033)636-8001	
	평창 월정사	(033)339-6606	
세종	영평사	(044)854-1854	12.29~1.1
충북	단양 미륵대흥사	(043)422-9108	12.31~1.1
	영동 반야사	(043)742-7722	
	보은 법주사	(043)544-5656	
충남	공주 갑사	(041)857-8921	12.31~1.1
	공주 마곡사	(041)841-6226	
	서산 서광사	(041)664-2002	
	예산 수덕사	(041)330-7789	12.30~1.1
	당진 영랑사	(041)353-8053	12.31~1.1
	논산 지장정사	(041)732-0106	12.29~30
대구	동화사	010-3534-8079	12.31~1.1
경북	경주 골굴사	(054)775-1689	12.31~1.1
	성주 심원사	(054)931-6887	
	영천 은해사	(054)335-3308	
	김천 직지사	(054)429-1716	
	성주 자비선사	(054)931-8874	
부산	홍법사	(051)508-0345	1.1(당일)
경남	산청 문수암	(055)973-5820	12.29~1.1
	창원 성주사	010-8985-0897	12.31~1.1
	고성 옥천사	(055)672-6296	
	밀양 표충사	(055)352-1150	
	합천 해인사	(055)934-3110	
전북	부안 내소사	(063)583-3035	12.31~1.1
	고창 선운사	(063)561-1375	
전남	해남 대흥사	(061)535-5775	12.31~1.1
	영암 도갑사	(061)473-5122	
	영광 불갑사	(061)352-8097	12.29~1.1
	화순 쌍봉사	(061)372-3765	12.31~1.1
	하동 쌍계사	010-6399-1901	
	순천 송광사	010-8830-1921	
	완도 신흥사	(061)554-2202	
	구례 화엄사	(061)782-7600	



사진제공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 문 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제주불교 4·3 진실규명 세미나

“불교계만 할 수 있는 역사 ‘치유’ 고민을”

주제 : 제주불교의 4.3 사건 기억사업 및 평화정착 필요성

한금순 제주대 외래교수



4.3 당시 무장대를 도운 신흥연 스님은 외꼴절에서 토벌대에 의해 희생됐다. 복원되지 못한 사찰에는 신흥연 스님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졌다.

제주 불교계는 한국사회 8·15광복 정국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국가에 걸맞은 활동을 모색했다. 1945년 8월 20일경 조선불교혁신회가 구성, 같은 해 9월 22일과 23일 전국스님대회가 개최됐다.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 친일불교를 혁파하고 수행승 위주의 민족 전통 불교를 정립하기 위한 의안을 결정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따라 제주불교 역시 조선불교혁신 제주도스님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른다. 제주불교는 새로운 시대가 일제 규제로 인한 구속에서 벗어나 자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불교 교단의 통합을 통해 불교를 재건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 스님대회는 당시 제주도의 82개 사찰 중 80개의 사찰이 참여한 제주불교 전체의 움직임이었다. 스님대회에서는 제주교무원 운영, 강원 설치 및 인재 양성, 대중불교 실현, 사찰 정화, 건국정신 진작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이러한 제주불교의 사회참여 인식은 더 나아가 제주사회의 현안에 깊숙이 참여하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제주스님대회 준비위원장 이일선 스님은 제주4.3 발발 원인이 된 ‘3.1기념행사 제주도위원회’의 선전동원부에 소속돼 활동에 참여했다. 제주위원회는 1947년 3.1절 기념행사를 전도민의 행사로 치르기 위해 구성한 제주도의 관공서와 사회단체, 교육계 등이 망라된 조직이었다. 3.1절 기념행사는 제주도 민주주의 민족전선이 준비를 주도했다. 제주불교의 이일선 스님은 민전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일선 스님은 제주도 민주주의 민족전선 결성대회의 사회를 맡았으며, 안세훈 현경호와 함께 의장단에 선출됐다.

당시 제주 민전의 활동내용을 보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3.1절 기념행사의 평화적 진행, 민생문제 해결책 제시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표명했다.

미군정은 3.1절 행사 때 시위를 불허한다는 등으로 민전과 이견이 있었다. 민전 의장단과 미군정 당국은 몇 차례 협의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3.1절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제주북초등학교에 제주읍·애월면·조천면 3만여 주민이 모였다. 행사가 끝난 뒤 시위 도중 경찰이 주민 6명을 총으로 사살하면서 제주4.3의 도화선이 됐다.

민전 활동에 적극 참여한 이일선 스님 이외에도 원문상 스님은 2.7사건 단독선거 반대에 참여 했으며, 이세진 스님은 4.3항쟁 발발 이후 입산해 무장대 수뇌부에서 활동했다. 또한 제주불교교무원은 3.1사건의 희생자 유가족 조위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제주4.3으로 인한 불교 피해

제주불교 또한 제주4.3으로 인한 인명 및 사찰의 손실이 막대했다. 광복시기 제주불교 사찰로 기록이 남은 곳은 82곳이지만 아직도 전 사찰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제주불교사연구회의 2004년 조사 결과만 있을 뿐이다. 올해 재조사한 결과, 다수의 증언자들이 더 이상 당시를 증언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루 빨리 82곳 사찰 전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4.3사건 당시 사회현안 적극 참여한
제주 불교계…인명·사찰 피해 상당
교육 및 추모·위령시설 건립 필요
최대 격전지인 관음사 유적 사업도

제주불교사연구회는 35개 사찰 및 14개 사찰 소속 스님 16명의 피해를 조사해놓았다. 35개 피해 사찰 중 34개 사찰은 토벌대에 의해, 1개소는 무장대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피해 상황별로는 강제 매각을 당해 사찰을 잃어버린 경우 1개소, 사찰 당우의 일부가 소각당한 곳이 3개소, 사찰 내 모든 전각을 다 불태운 경우가 18개소, 사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파옥한 곳이 9개소, 폐허가 돼버린 곳이 4개소로 조사됐다. 소개령 발령 이후 사찰 전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불을 지르거나 파옥시킨 경우와 소개된 이후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폐허가 돼버린 경우이다.

스님의 피해는 16명이 조사됐다. 물론 스님이 아닌 사찰 소속의 인명 피해도 있었다. 가해자는 모두 토벌대이다. 피해 시기는 제주4.3과 마찬가지로 1948년 10월 말부터 1949년 3월까지 초토화 작전 시기에 집중돼있다. 사찰 경내에서 총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는 2.7사건 및 3.1사건, 보도연맹 관련 등의 이유로 예비 검속했고, 산채로 돌을 묶어 바다에 수장 혹은 집단학살 과정 등에 의해 스님들이 살해당했다. 수장과 집단학살은 정식재판에서 죄를 묻지 않고 군경이 임의로 인명을 살상한 불법적인 일이다.

제주 4.3사건으로 사망한 스님들은 조선불교혁신 제주도스님대회 준비위원장을 비롯, 관음사 주지 스님 등 당대 제주불교 활동에서 중심적인 활동을 한 스님들이다.

피해 상황별로 정리해 보면, 수장당한 스님은 이일선·이세진 등 2명, 사찰 경내서 총살당한 스님 5명, 경내서 죽창에 찔려 사망한 스님 1명, 집단 처형 4명,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스님 1명이 있다. 행방불명 스님 1명과 예비검속 당한 스님 1명은 사망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외에 제주도를 떠나 일본으로 도망간 스님 1명이 있다.

구좌읍 함덕리에 있던 외꼴절 피해 사례가 있다. 외꼴절은 제주4.3으로 폐사된 이후 복구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사찰이다. 외꼴절은 700평가량 규모에 40~50평 초가 법당과 요사채, 정자 등이 있는 사찰이었다. 외꼴절은 함덕에서 대흘로 가는 외곽인 외꼴 지경에 있어 외꼴절이라 한다. 주지 신흥연 스님은 지역 경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한 것으로 증언됐다. 신흥연 스님은 배추와 무, 시금치 등 새로운 농작물의 씨앗을 들여오고 신도들과 함께 농사를 짓는 한편, 농사법을 함덕리 주민들에게 보급했다.

1948년 5.10총선거에서 제주도는 선거를 거부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효 선거구를 만들었다. 당시 함덕리 마을 주민들도 대흘리 지경으로 피신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거부했다. 선거 무렵인 5월 13일, 무장대는 함덕지서를 습격해 불태웠다. 5월 중순부터 군인 및 육지부 경찰들이 대거 제주로 들어왔다. 그해 6월 제주주둔 미군 사령관인 브라운 대령은 “제주도 서쪽에서 동쪽까지 모조리 휩쓸어버리는 작전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8월에는 제주도비상경비사령부가 “최대의 토벌전이 있을 것”이란 경고내용이 포함된 포고문을 발표했다. 10월 17일 송요찬 9연대장은 제주 해안서 5㎞이상 지역에 통행금지를 명령하면서 이를 어길시 이유를 불문하고 총살하겠다고 발표했다.

1948년 10월 말 무장대는 제주읍 삼양지서와 조천면 관내 조천지서·함덕지서를 일제히 공격했다. 11월 1일 토벌대는 함덕리 주민들을 함덕초등학교에 모아놓고 무장대를 돕는 이를 색출한다며 총살했고, 무장대가 습격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주민들을 무차별 학살했다. 군인들은 남녀노소 구별 없이 폭행과 총질을 했다. 이 과정서 마을 사람들은 산으로 도피했고 함덕리 청년 대부분이 입산했다고 할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한다.

신흥연 스님은 무장대에게 밥을 해먹이기도 했기 때문에 무장대는 사찰을 자주 드나들었다. 그러던 중 11월 중순경 법당 내 부처님 뒤에 은신한 무장대 수십 명이 토벌대에 발각됐다. 토벌대는 곧바로 스님을 끌고 가 나무에 묶고 마을 민보단원들에게 총으로 사살할 것을 명령했다. 민보단원 전원이 스님을 쏘지 못하고 다른 곳을 향해 사격하자, 토벌대는 다시 죽창으로 스님을 찌르라고 강요했다. 결국 민보단원들은 울부짖으며 스님을 죽창으로 찔렀다고 한다. 토벌대가 떠난 뒤 8~9시간 가까이 스님은 살아 있었으며, 가부좌를 한 채 염불하면서 숨을 거뒀다. 무장대는 스님의 시신을 고구마 줄기로 감아 숨겨놓았고 그 위치를 편지에 적어 가족에게 전해줬다. 상좌 김두전 스님이 제발 몸을 펴십사하고 기도해 가부좌로 입적하신 스님의 몸을 펴 매장했다. 외꼴절은 이 시기인 11월 20일경 토벌대가 불 살랐다. 절과 함께 인근 대흘리 마을도 함께 토벌대가 방화했다.

기억사업 및 평화정착 필요

올해는 제주4.3 70주년이다. 끔찍한 피해와 아픈 역사를 조명하는 이유는 과거의 아픔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함이다. 이제는 제주4.3 역사를 통해 평화를 정착시켜야 할 시기이다. 따라서 제주불교는 제주불교만의 제주4.3 기억사업이 필요하다. 제주도민과 제주역사를 함께하는 제주불교 활동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제주불교계에 사업 세 가지를 제안한다.

1) 제주4.3 사건에 대한 불교적 치유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자비명상을 위한 활동의 장이 필요하다.

2) 제주불교는 제주4.3을 추모하고 위령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종교적 관점에서 인간성 회복과 평화의 필요성을 교육하는 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3) 관음사 경내에 있는 제주4.3 유적지를 상세히 조사하고 발굴함으로써 영역을 획정하는 등 사업이 필요하다. 현재 지표조사로 보이는 유적 규모가 상당하며 잘 보존돼 있다.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해 보존해야 한다. 관음사 유적지는 제주4.3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관음사를 활용한 제주4.3 역사의 기념 활동과 이를 활용한 사업이 필요하다.

한금순 교수는… 1960년 제주 출생이다. 제주 보리도량 주지 오성 스님과의 인연으로 제주불교사연구회에 참여했고, 제주대 사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제주불교사 전문연구가로 제주대 사학과 외래교수, 제주4.3유적지관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논저로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 등 논문과 〈한국 근대 제주불교사〉 등 저서가 있다.



한금순 제주대 교수는 12월 7일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서 열린 ‘제주불교 4·3 진실규명 세미나’서 제주불교의 4.3 기억사업 및 평화정착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발표했다. 한 교수는 “불교계는 4.3 항쟁기 제주 사회 현안의 중심에서 활동했다”며 “일부에 불과한 사찰과 스님 등 피해 및 유적 조사와 더불어 불교적 치유, 추모, 역사교육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김지원 기자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 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환경위기 속 의식 대전환 시대가 왔다

⑪ 불자들의 환경5계



지금은 대파국이 아니라 대전환의 기회

생태학자이자 불교학자인 조안나 메이시는 그녀의 책 〈생명으로 돌아오기 Coming Back to Life〉에서 오늘날 기후위기를 앞두고서 3가지의 행동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 첫째는 그야말로 BAU(Business As Usual)로 〈일상적인 현재의 삶 그대로 살기〉이다. 이제껏 인류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듯이 국가와 정치가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고 더욱 심각해진다면 과학기술자들이 기술개발을 통해 알아서 해결해줄 것이라고 낙관한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높아지지만 결국 덜 불편한 정보를 믿고 싶어하는 욕망도 작용한다고 보여진다. 이들은 위기상황은 거짓이며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하며 원인행위나 소비행태를 변화시키지도 변화있는 행동을 유발하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뿐 아니라 대응해야할 시간을 놓쳐 회복의 가능성을 어렵게 하는 행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두 번째는 오늘날의 상황을 〈대파국〉으로 보는 시각이다. 현재의 심각한 기후위기상황을 직시하며 심각하고 절박한 상황을 그대로 인식하고 동의한다. 그러나 과연 이 어마어마한 전지구적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지 무력감을 느낀다. 과연 인간이 변화시킬수 있을지를 의심하며 절망한다. 그러면서 역시 국제기구나 국가의 변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러한 기조가 강화되면 강력한 정치인이 나서서 독재적 권력을 써서라도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라기도 한다. 에코파시즘의 시작이 된다. 세 번째는 이러한 기후위기가 위기 자체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연의 삶으로 돌아가라는 가르침이며, 인류의 가치관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라는 경고로 생각하고 환경위기문제 해결과 더불어 아니 그와 관계없이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대전환의 기회의 3가지 행동
감시지연전략, 토대변화전략, 대안실천전략

세 번째 입장은 환경위기는 그 자체로도 해결해야 할 위중한 문제이지만 이것을 일종의 변화를 위한 메시지로 보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제대로된 삶,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라는 전환의 시그널임을 깨닫고 그에 집중하는 것이다. 절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만드는데 집중하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병이 들면 치료도 해야하지만, 그걸 계기로 자신의 몸건강을 다시 생각하고, 보다 규칙적인 식습관과 운동, 몸에 대한 절도있는 생활 등으로 바꾸라는 몸의 메시지이자 전환 시그널로 인식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대전환을 위해서는 3가지의 행동이 필요하다.

하나는 감시지연전략이다. 생명을 파괴하고 피해를 주는 모든 정책과 행동을 감시하고 저항하며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지연하는 전략이다. 핵발전소를 줄이도록 캠페인하고, 산림벌채, 4대강 개발, 국립공원 등 개발위주의 정책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또한 각종 인권과 환경부정의를 고발하고 저항하며 비판하는 행동을 통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는 행동이다.

두 번째는 토대변화전략이다. 권력이나 대기업 중심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운동, 국민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의 구현, 이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가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의 참여와 자치,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정보공유 등, 기업와 시장 주도에서 시민과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회로의 토대변화전략이다.

세 번째는 대안실천전략으로 오늘날 파국을 만든 지속불가능한 산업사회를 대체할 생명사회로 전환하는 대안과 미래생활실천을 전개하는 활동이다. 소욕지족의 생활양식을 실천하고, 천천히 사는 삶, 돈보다 공동체적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으로 명상과 정신적 가치를 실현하며, 공유와 선물경제를 실현하고 지역에서 순환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실천을 말한다. 이러한 실천의 일환으로 불교환경연대는 불자들에게 다음같이 환경오계를 수지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 지구적 환경 위기는 가르침
'인간본연 삶' 돌아가라는 경고
환경5계로 공생 삶 살자

불자의 환경오계

첫 번째 계율은 〈천지자연이 모두 연결된 우주생명임을 알아 존중하며 모시는 삶을 살겠습니다〉이다.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모두 인드라망의 그물처럼 연결된 〈한 생명〉이다. 모두가 연결되어있는 존재임에도 끊어져 있다는 단절된 사고가 우리가 겪는 고통의 원인이다. 법성계의 일미진중함시방(一微塵中含十方)의 깨달음처럼, 티끌하나 쌀 한 톨에도 모든 우주가 들어있으며 모든 존재가 우주가 협동하여 만든 〈우주적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한사람, 한물건을 소중하게 알아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서원을 내는 것이다.

두 번째 계율은 〈경쟁 대립하는 죽임의 삶이 아니라 서로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이다.

우리의 삶은 서로 연결되어 하늘과 땅과 사람, 짐승, 식물 등, 뭇 생명들이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 덕분에〉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들의 은덕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은혜를 갚으며 보은하는 삶을 살자는 것이다. 항상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가르고 나누는 사회는 결국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는 죽임살이의 삶으로 귀결되지만, 우리는 사람과 자연이 서로 살리는 〈살림살이〉의 삶을 살겠다는 서원을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많은 것, 빠른 것보다 작고 적은 것을 추구하며 단순 소박한 삶을 살겠습니다〉이다.

오늘날 연결이 끊어진 사회, 나눠지고 서로 낱낱이 갈라진 사회에서는 모두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빨리 장악하려고 경쟁하며 이기고 승리하려고 핏발을 세우며 싸우는 삶이다. 그러한 인식이 바로 우리의 미망이며 모든 고통의 원인인 것이다. 그래서 경쟁과 자연의 착취를 통한 풍요와 물질적 성장은 진정한 발전이 아님을 깨닫고 서로 연결된 〈자연의 순환에 맞는 삶〉을 살자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것, 큰 것을 추구하기보다 〈적은 것과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더 빠르게 더 높이를 추구하는 경쟁의 욕망이 아니라 〈천천히 느리게 사는 소박한 삶〉 〈목표보다는 과정과 관계를 소중히하는 삶〉을 살겠다는 서원을 약속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깨끗함, 편리함이 마음의 분별인 줄알아 적당히 불편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외국인들은 기겁을 하며 싫어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여기는 관습이 중동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다. 반야심경에 〈불구부정〉의 가르침처럼 깨끗함과 더러움, 좋은 것과 나쁜 것, 편리함과 불편함은 실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 생각이 만든 분별이다. 오늘날 과도한 결벽적인 깨끗함이 물소비량을 증가시키고 샴푸나 기타 계면활성제를 소비하게 만들어 물오염을 유발한다. 따라서 〈적당한 더러움이 진정한 깨끗함〉임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다. 또한 과도하게 편리함를 추구하는 것이 또한 자연에 큰 부담을 주는 것임을 알아 〈적절한 불편함을 즐기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를 추구하는 수행하며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다.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 운동하듯 마음의 건강을 위해 매일 〈마음닦는 수행의 삶〉을 살자는 다짐이다. 정신적인 풍요, 영성적인 가치의 실현이 물질적인 욕망을 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살피며 욕망에 휩싸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환경위기시대의 중요한 실천이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안의 변화와 밖의 변화가 둘이 아니므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보살행을 수행〉으로 삼고, 본래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본래 내 것이 없는 이치를 알아 수많은 자연과 사람들의 은혜를 갚고, 내 몸과 재산이 그들에게 잘 쓰이는 보살의 삶을 살겠다는 서원을 다짐하는 것이 바로 불자환경오계의 내용이다.

환경위기를 인류에게 파국이라는 어두운 미래로 본다면 우리에겐 절망밖에 할 것이 없다. 그러나 이 국면은 분명히 전지구적인 희망을 만드는 대전환의 계기라고 봐야 한다.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 과거 예수와 부처와 같은 분이 1~3분 등장하였지만, 지금은 환경위기라는 전지구적인 메시지는 바로 나를 비롯하여 전인류가 예수와 부처님처럼 살도록 득고시키고 깨우침을 주는 소중한 좋은 기회이지 않은가? 〈끝〉



유정길(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바다의 미네랄과 폴리페놀 덩어리. 지구상 최고의 항산화 식품
맛이 샘나 효모 밥 죽 순
국내기술로 만든 콩단백 콩단백 죽 콩고기
몸 속의 오염된 지방을 분해 배출시키는 탁월한 항산화 식품!
전립선 및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에 최고!
❶ 스님들의 단백질 영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고단백 식물성 콩고기 식품
❷ 효모와 항산화(폴리페놀)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❸ 하루 섭취량 40g (가격 하루 1,000원대)로 충분한 단백질 영양 섭취
❹ 가격은 1kg 25,000원 (25인 분량)
<사찰에서 다량 구매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영양성분표 : 수분 10%이하, 탄수화물 28%내외 단백질 60%이상 지방 3% 이하, 총열량 360Kcal 이하
특수성분 : 폴리페놀 2.793mg/kg, 사포닌 1,807 mg/kg, 베타글루칸 1,233 mg/kg
효모 밥 죽 순 차(茶)용
• 500g9용 (6개월분)12만원
• 깨끗한물에 씻어 2L기준 20g 정도 넣어 30 ~ 40분 끓인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재탕으로 1회 더 복용 가능합니다.
(주) 샘나 대표전화 1661-4288/010-4746-0335
인천광역시 서구 보듬로 158(오류동) 블루텍공존 3층 312호 ㈜샘나
농 협 301-0222-8806-71 [예금주 : ㈜ 샘나]
기업은행 418-038069-04017 [예금주 : ㈜ 샘나]

종교인 과세 신고대행 안내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우리 사찰에서 신도에게 받는 시주금(기부금)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아니고, 스님이 사찰에서 매월 받는 보시금(급여, 개인적인 생활비)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라는 것입니다. 일반 직장인처럼 회사에서 월급받고 세금을 납부하고,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연말정산하고, 관련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가 신설된 것입니다.
스님이 한 분 계시는 개인 사찰도 해당이 되며, 세무서에서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오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종교인 과세관련 신고 납부일정을 알려드리오니, 우리 사찰에서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셔서 세법상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
종교인 과세 관련 무료 동영상 강의
• 유튜브 검색창에 "박성욱 세무사" 검색하시면 사찰 종교인과세에 관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 예정)
1강 기부금영수증 업무처리
2강 신고납부일정
3강 종교인소득
4강 가산세
5강 종교인소득 절세와 관리요령
※ 동영상 강의 자료가 필요한 종단 및 사찰에 무료 배포하겠습니다.
종교인 과세 신고 납부일정
▪ 2018년 7월 10일까지 : 2018년 상반기 종교인 과세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2019년 1월 10일까지 : 2018년 하반기 종교인 과세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2019년 2월 : 종교인 연말정산 실시
▪ 2019년 2월말 : 지급명세서 제출
051-996-0308 | 010-9878-5716 박성욱 세무사
주소 부산 동래구 동래로 3, 태림빌딩 3층(온천동)
세무사 박성욱 사무소

승가 마 전통 가 건강비법 목 원탕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 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2014년 10월 6일일요일 오후 5시10분 KBS1 TV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마가목」 방영
•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오후 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 MBC TV "고향이 좋다"「마가목」 효능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나무차 소개」방영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가목 원탕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원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사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상담문의 011.9049.2848
(공휴일 및 야간전화 사절)
농협: 227027-51-090791(예금주: 남궁성균)
◆ 제방선원이나 수생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폭포수에 삿된 번뇌를 날리다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⑫ 폭포 수행 체험기



메이토쿠지에서 폭포 수행을 하는 필자의 모습. 반야심경과 진언들을 폭포를 맞으면서 독송하는 수행으로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매우 어렵다.

순례 중 머문 메이토쿠지서
일본 특유의 폭포 수행 체험

폭포에 서서 경전 · 진언 독송
얼음장 같은 물에 몸이 '덜덜'
수행 마치니 몸 · 정신 가벼워져



미쿠로도 동굴 입구. 청년기의 코보 대사는 이곳에서 수행했다.

죠만지를 모르던 때의 일이다. 그때는 죠만지에서 조금 더 걸어가야 있는 사찰, 메이토쿠지(明德寺)의 츠야도(通夜堂)에 묵었다. 츠야도는 원래 사찰에서 장례를 치르는 상주들이 밤을 지새우면서 잠을 자는 공간인데, 시코쿠 헨로에서는 순례자들이 무료로 잘 수 있게 마련한 공간을 말한다.

메이토쿠지 츠야도에 묵는 순례자들은 재미있는 체험을 할 수 있다. 바로 폭포 수행이다. 원래는 보시금을 내야 하지만, 순례자들에게는 주지 스님이 "수행의 도량인 고치에 들어가기 전에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라"며 폭포 수행을 '오셋타이' 해주신다.

주지 스님에게 폭포 수행 권유를 받았을 때, 나는 흔히 일본 영화나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조용히 폭포만 맞는 장면을 생각하곤 덜컥 수행을 신청했다. 주지 스님은 하얀 소복을 건네며 "속옷 외엔 다른 옷을 입지 말고, 이 옷만 입고 저녁 예불을 모신 뒤 폭포로 간다"고 말했다.

저녁 예불에는 주지 스님도 하얀 소복을 입고 나오셨다. 법고를 두드리며 독경을 하는 가운데 스님은 "한국에서 온 박지산, 금일 입롱수행(入瀧修行) 무사회향 기원"이라고 축원했다. 예불이 끝나고 폭포수행 방명록에 이름과 주소를 썼다. 방명록을 앞뒤로 뒤져보니 여태껏 폭포수행을 한 한국인은 나뿐이다.

수행을 하는 폭포는 츠야도 바로 아래에 있었다. 스님은 "바닷가에 사는 주민들이 식수가 곤란한 것을 보고 코보 대사께서 석장을 찔러 샘을 솟아나게 한 곳이 이 폭포다. 대사의 신통으로 아무리 날이 가물어도 물이 솟아나오는 영천(靈泉)"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폭포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정화해야 한다고 몸에 물을 끼얹고 소금을 뿌려줬다.

"폭포에 들어가기 직전에 합장 반배하고, 뒷목으로 폭포수를 받으면 되네. 〈반야심경〉 3번, 부동명왕 진언 7번, 광명진언 3번, 대사보호 3번, 회향문 순서로 경을 외우면 끝나네. 일본어로 경 외우나?"

"네, 외웁니다."

"물이 차갑다 보니 몸이 놀라서 경의 순서나 횟수를 잊을 수 있는데, 내가 같이 경을 할 테니 걱정 말게."

더운 여름날 작열하는 햇볕을 종일 온 몸으로 받은지라 '폭포수가 차가워 봤자' 라고 생각하며 폭포로 들어갔는데,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에 머리끝까지 몸이 떨려왔다. 경의 어느 부분을 외우고 있는지, 몇 번을 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저 빨리 회향문이 나오길 바라면서 폭포수를 맞았다. 폭포 옆에선 주지 스님이 석장을 흔들며 독경을 이끌었다.

"바라건대 이 공덕을 널리 펼쳐…."

드디어 회향문의 차례. 원래라면 불자로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회향을 해야겠지만 당시 나는 그저 뜨거운 샤워를 할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모두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라고 외치곤 훌쩍 폭포를 뛰쳐나왔다. 부딪히는 이를 떨며 서둘러 샤워장으로 가서 뜨거운 물을 끼얹고 나오니 그제야 주변이 보였다. 폭포에서는 주지 스님이 홀로 경을 외우며 폭포 수행을 하고 있었다.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츠야도의 문턱에 앉아 있으니 한참 뒤에야 주지 스님이 온 몸에 물을 떨어뜨리며 걸어 오셨다.

"하하! 어떤가? 할만 했는가?"

"물이 차가워서 혼났습니다."

"삿된 기운들은 뒷목의 혈을 통해 몸에 들어가지, 어째 몸이 좀 가벼워지지 않았나?"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자고 일어나보게, 그럼 알게야!"

스님은 오늘 하루 종일 걷느라 피곤했을 테니 내일 아침예불은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폭포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에 들었다. 법당의 법고소리에 눈을 뜨니 어느새 아침이었다. 알게 모르게 몸이 상쾌한 것이 폭포를 맞은 영험이 나타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주섬주섬 배낭을 정리하여 나오니 예불을 마친 주지 스님께서 배웅을 했다.

"조심해서 가게나. 부지런히 걸으면 늦어도 해질녘엔 24번 절이네."

"감사합니다. 스님 말씀대로 폭포를 맞으니 뭔가 몸이 가볍습니다."

"그렇지? 만약 헨로를 걷다가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폭포에 외운 경을 하면서 근처 산에 있는 폭포나 바다 속에 몸을 담그세요."

"하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헨로를 오게 되면 잘 부탁드립니다."

순간 스님이 아무 말씀 없이 빙긋 웃으셨다.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하고 했던 말을 곱씹고 있는데 주지 스님이 법문 한 마디를 설했다.

"다음? 다음은 잘 모르겠는걸?"

"무슨 말씀인가요?"

"사람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찌 아는가?"

무상(無常)의 법문이 마음에 스며든다. 시코쿠 순례를 나서는 모든 순례자들은 수의를 상징하는 흰 옷을 입는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흰 옷을 하나의 유니폼처럼, 순례자의 상징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스님의 한 마디에 다시금 이 길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순례길임을 깨닫는다. 제행무상! 수의를 입고 걷는 이 순례는 불법을 온 몸으로 체험하는 여행이다. 주지 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깊이 합장반배를 올리고 길을 나섰다.

메이토쿠지에서 24번 호츠미사키지(最御岬寺)는 약 32km, 7시간 남짓 걸리는 길이다. 처음엔 태평양을 옆에 끼고 걸으니 시원한 바다풍경이 즐거웠지만 이내 곧 질리고 말았다. 아무리 시원한 풍경도 간간히 산이나 숲과 같은 주변물이 있어야 빛이 나는데 그저 바다만이 이어졌다. 길도 차도의 옆을 걷는 아스팔트 포장도로라 금세 발이 피곤해 왔다. 게다가 태양열이 반사되어 보통 더운 것이 아니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순례길이 어촌 마을들을 연결하는 길로 나 있다는 점이었다. 마을들이 있어서 식당이나 슈퍼 같은 편의 시설들을 이용하기 쉬웠다. 또 이 바닷가길이 드라이브 코스라도 되는지 차도 옆으로도 식당이나 카페들이 산재해 있다.

점심때가 되어서 동네 슈퍼에 들어가 콜라 한 캔을 샀다. 슈퍼 앞 벤치에서 미숫가루를 풀어 먹고 콜라를 마시니 탄산이 온 몸에 스며든다. 어차피 느긋이 걸어도 3~4시엔 24번에 도착할 테니 조금 쉴까 하곤 배낭을 끌어안고 앉았다. 바다에서 솔솔 불어오는 기분 좋은 바람에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스르르 잠에 들었다.

"오헨로상! 오헨로상! 이런데서 자면 위험해요!"

슈퍼 직원분이 나와 나를 흔들어 깨운다. 시계를 바라보니 2시 반이다. 아이고! 잠깐 존다는 게 아주 제대로 자버렸다. 24번까지는 약 9km, 내 걸음으로 2시간 남짓이다. 도저히 24번의 납경에 맞출 수가 없다. 급하게 기억을 더듬어 노숙이 가능한 포인트를 찾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값싼 숙소고 노숙 포인트고 모두 24번을 지나서 있다.

지도를 펴서보니 24번 아래의 미쿠로도(御厨人窟)부분에 메모가 있다. '노숙 가능' 이라고 쓰여 있다. 도쿠시마에서 만난 순례자가 "미쿠로도 동굴 안이나, 앞의 사무소 건물 쪽에서 노숙이 가능하다"고 알려준 정보였다.

미쿠로도는 코보 대사가 청년기에 수행했다고 알려진 동굴. 청년기의 코보 대사가 이곳에서 수행할 때 새벽의 샛별이 입안으로 날아 들어오는 환시를 보고 밀교의 성취를 얻었다고 한다. 이때의 일은 코보 대사 스스로가 남긴 기록이 남아 있어 시코쿠를 순례하는 이들은 물론, 사적 탐방을 하는 학자들도 한 번씩은 답사하는 장소다.

전해지기로는 코보 대사는 그때 보았던 새벽하늘과 바다에서 스스로 쿠카이(空海)라는 법명을 지었다고 한다. 일단 미쿠로도에서 노숙을 시도하기로 하고 길을 나섰다.

부지런히 쉬지 않고 걸어 납경소가 문을 닫기 직전에 미쿠로도에 도착했다. 납경소를 정리하고 계신 직원에게 노숙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텐트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 앞에 치셔도 됩니다만…."

"저는 매트와 침낭만 들고 다닙니다. 혹시 납경소 창고건물을 빌릴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냥 직원이라 뭐라 말씀 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럼 미쿠로도 동굴 내부는요?"

"가능하지만, 지금 계절은 동굴천정에서 물이 떨어져서 침낭이 다 젖을 거예요."

노숙이 가능하다는 정보만 믿고 왔는데 난감하다. 직원도 도와주고 싶어 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일단 감사를 표하고 나와서 잠시 생각을 정리했다. 첫 순례 때 아예 24번 산문 앞에서 노숙을 했다가 산모기들에게 밤새 시달린 기억이 생생했다. 그래도 이곳은 바람이 좀 불고 모기도 없어 보이니 그냥 대충 바위틈에 자리를 펴기로 마음먹었다.

해가 어둑어둑 져가고, 미쿠로도 앞의 바위 옆에 매트를 폈다. 밤이 되니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제법 쌀쌀해 판초우의를 꺼내 침낭 위에 덮었다. 혹시 몰라 모기향도 하나 피웠는데 바람이 강해 금방 꺼져 버렸다.

잠자리에 들기 전 미쿠로도에 들어갔다. 1,200년 전 코보 대사가 바라본 밤풍경과 내가 오늘 보는 풍경이 같다는 데에 생각이 미치자 알 수 없는 감정이 들었다. 작은 초를 하나 켜서 올리곤 동굴을 나왔다. 일렁이는 촛불을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침낭 속으로 들어갔다. 〈자유기고가〉



손실도 이익도 요인과 조건이 만든다



윤성식의
불교 속 부자되는 법

㉔ 연기의 경제학



그림 · 박구원

어떤 사업가가 젊었을 때 장사가 너무 잘되어 하루 종일 일하고 잠이 부족해도 피곤한 줄을 몰랐다. 집에 들어와서 번 돈을 세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벌다니…' 하고 좋아하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세월이 지나고 자신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언젠가부터 사업이 안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건강하던 몸도 병이 났다. 자신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지만 사업의 외부 요인과 조건이 달라졌기에 장사가 안되기 시작한 것이다.

부처님은 연기 사상을 불교교리 중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부처님은 또 연기란 쉽게 알 수 없다고 경고하셨기에 우리는 연기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경전에는 워낙 여러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 연기 개념이 설해져 있지만 가장 유명한 구절은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다. 이것이 생기니 저것이 생기고 저것이 소멸하니 이것이 소멸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연기란 상호의존적인 현상을 설명한다고 보여지지만 상호의존성 이상의 원칙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보면 모든 현상이 연기적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막상 생각하고 행동할 때는 연기적이라는 사실을 망각한다. 예를 들어 모든 부모를 힘들게 하는 사교육비 문제는 독립되어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얽혀서 상호의존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사교육비 문제를 다른 현상과 분리하여 생각하다보니 단편적으로 접근한다. 예를 들어 입시제도를 고치면 사교육비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여 입시제도 해결에만 매달리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이런 식의 사고는 우리 사회를 아직도 지배한다. 'X가 있으면 Y가 된다' 라는 단편적이고 선형적인 사고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빠져 있다. 막상 해보면 세상에 쉬운 일이 없고 한 두가지만 해서 되는 일이 없다.

돈 버는 일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요인과 조건이 필요한데도 자본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거나 정부가 승인만 해주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한다. 경제도 모든 현상과 마찬가지로 연기적이므로 경제문제를 해결할 때는 연기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이익의 발생도 연기적인 현상에 틀림없다.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요인이 개입된다. 자본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고 유능한 경영인도 필요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도 있어야 한다. 정부가 각종 제도와 법으로 시장을 창조해야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 수 있다. 대학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논문에서 신제품 개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정부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을 무상으로 가져다 사용하기도 한다. 수출하는 기업은 환율이 오르면 이익을 보고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를 본다. 반대로 수입하는 기업은 환율이 오르면 손해를 보고 환율이 떨어지면 이익을 본다. 메르스가 한국을 공포에 몰아 넣었을 때 손 씻는 세정제 제조 기업은 많은 돈을 벌었다. 게다가 국산품 사주는 애국심 있는 국민이 있으면 수입품에 비해 국내 제품이 유리하다. 이처럼 이익의 창출에는 수 많은 사람, 기술, 물품, 제도 등이 개입된다.

따라서 이익이 생기면 자본가 혼자만이 독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는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여 일부를 회수한 뒤에 다양한 공공부문 서비스를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한다. 기업이 세금을 내고 남은 이익은 누구의 것일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법적으로 자본을 투자한 자본가의 소유이다. 문제는 자본가가 남는 모든 이익을 독식한다는 데 있다. 만약 이익이 연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자본가가 이익을 모두 독점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익의 창출에 기여한 모든 관련자들이 이익을 나누어야 한다. 어떻게 나누어야할 것인가는 다음의 문제이고 자본가가 독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시장자본주의는 소수의 강자에게 돈을 몰아주는 제도다. 소수의 승자가 세금을 내고 남은 이익이 자기 능력과 노력 때문이라고 착각하면 대화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이 수많은 요인과 조건으로 인하여 생긴다는 참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실이다. 이익의 연기적 현상을 이해하지 않으면 세상의 부에 대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

한국은 빈부격차가 큰 나라다. 행복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빈부격차가 큰 사회는 빈부격차가 작은 사회보다 행복도가 낮다. 빈부격차가 크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다. 과거에는 부자가 돈을 벌어야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이 덕을 본다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가 경제학에서 주류 이론이었다. 지난 몇 십년 동안 낙수효과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경제학에서는 이제 낙수효과의 반대가 맞다는 이론이 힘을 얻었다. 세계은행, IMF, OECD 등에서도 낙수효과가 틀렸다고 이야기한다. 중산층과 서민은 소득이 생기면 거의 대부분을 소비하기에 경제가 활성화되지만 부자가 돈을 벌면 이미 충분히 소비했기에 더 이상 소비하지 않고 쌓아둔다. 따라서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중국 유학생이 매우 많았다. 언젠가 중국 학생들과 대화를 하다가 그들이 한국 사람을 아주 잘 생겼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중국사람은 특히 한국 여성의 피부가 좋고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그런 연유로 한국 화장품은 중국 사람에게 매우 인기가 좋고 덕분에 아모레퍼시픽 회장은 주식 보유에 있어서 이건희 회장과 쌍벽을 이룬다. 화장품 회사는 한국사람 특히 한국여성 때문에 이익을 많이 냈지만 한국 여성을 위해 이익을 분배하지는 않는다. 이제 불교의 연기적 관점에서 한 번 고민해 봐야 한다.

세상 현상은 연기로 구성돼
경제 관계도 동일한 구성
연기 보면 손 · 수익 진단 가능

화장품 회사의 이익에 수많은 요인과 조건이 공헌했지만 세금으로 환수되는 금액은 매우 적다. 연구에 의하면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 증가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정도가 부자의 소득 증가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정도에 비해 몇 배나 된다. 이익이 연기적이라면 어떻게 이익을 나누어야할까? 분배도 불교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익을 나눈다고 하면 사회주의적 사고가 아닌가 반발할 수도 있지만 불교의 연기적 관점에서 보면 자본가가 독점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분배는 사회주의, 독점은 자본주의' 라는 이분법적 흑백논리도 불교적인 주장은 아니다. 세금을 조금 더 거두어서 국민을 위해서 써야하지 않을까? 21세기에 불교가 시장자본주의가 처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할 수 있으려면 연기적 관점으로 경제를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외환위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악몽이나 다름 없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우리는 지금도 생생하게 많은 기업이 무너지고 실업자가 생기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여러 개의 은행이 인수합병으로 없어졌던 당시를 기억한다. 금융권은 저금리로 엄청난 돈을 외국에서 빌려와 다시 기업에게 빌려주는 돈장사로 재미를 짭짤하게 보았는데 이들이 망하자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금융이 제공되었다. 도산하는 기업에게도 국민의 세금이 퍼부어졌다. 알고보면 기가 막힌 일이다. 교과서에 쓰여져 있는 자유시장경제의 장점은 부실기업은 도산하고 우수기업은 이익이 증가하여 시장에서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로 시장에서는 부실기업은 정부가 구제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제와는 거리가 먼 사회주의경제 같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세계경제 위기가 발발했을 때 미국의 금융기관과 기업도 정부의 막대한 예산지원으로 회생되었다. 미국의 자랑이었던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 GM의 회장은 디트로이트에서 워싱턴 의회에 정부지원을 요청하러 가면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갔다. 미국 국민은 정부지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자가용 비행기가 웬말이냐며 맹 비난했고 급기야 다음 번에는 조심스럽게 직접 승용차를 타고 갔했다. 기업 뿐만이 아니다. 천문학적인 손실 때문에 정부가 막대한 자금으로 금융기관을 지원하여 도산을 막았는데 막상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은 보너스 잔치를 벌이고 임원 개인의 지출에 기업의 돈을 사용하다가 발각되어 또 다시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 급기야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미국 국민이 모여 잘못된 시장경제를 비판하는 시위까지 벌렸다.

기업은 이익이 발생하면 자기들이 독점하면서 막상 손실이 나면 정부가 지원해서 메꾸어주는 일이 반복되다보니 '이익은 독점하고 손실은 공유하는 시장경제가 무슨 시장경제냐 사회주의 경제지' 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모든 기업의 손실을 보전해주면 공정하기라도 할텐데 중소기업에는 전혀 재정지원이 제공되지 않고 대기업에만 제공되니 대마불사라는 말이 나온다. 대기업이 망하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특히 실업자의 증가로 민심이 흉흉해져서 정치권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는 우려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인데 자유시장경제논리에 어긋나는 일임에는 틀림없다.

불자는 부처님 말씀대로 경전에 쓰인 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야한다. 부처님 말씀과 경전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교를 떠나서 다른 종교를 믿거나 무종교가 되어야 한다. 불자로서 불교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한다면 오히려 불교교단에 해를 끼치게 된다. 불교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내용은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다. 이것이 생기니 저것이 생기고 저것이 소멸하니 이것이 소멸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에 근거한 연기법이다. 만약 모든 것이 연기적이라면 이익도 손실도 연기적이다. 이익이 수많은 요인에 의해 발생하듯이 손실도 수많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사실 열심히 일하고 능력도 있는 정직한 기업인도 어느날 자신의 잘못이 아닌 외부요인에 의해 하루 아침에 파산하기도 한다. 이익이 기업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만 발생하지 않듯이 손실도 기업인의 능력과 노력 부족에 의해서만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익은 기업인이 독점하면서 손실만 국민과 공유한다면 공정하지 못한 일임이 틀림없다. 이렇게 얄미운 기업인 때문에 기업인 개인 재산을 환수하기도 하지만 아주 극소수의 시늉에 그칠 뿐이다.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손실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므로 이익의 발생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을 다시 바꿀 필요가 있다. 기업은 물론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이익을 독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손실이 발생하여 기업이 망하면 손실을 국민세금으로 독점적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법인세를 납부한다고 공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결국 추가적으로 법인세를 인상하거나 이익금이 발생하면 이익금의 혜택을 받는 주주의 소득이나 재산의 일부를 정부가 환수해서 경제위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세금인상이라고 하면 온 국민이 싫어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일이지만 국민의 세금을 퍼붓는 것보다는 국민의 거부반응이 적을 것이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추후 연구해볼 일이다. 당분간은 무엇보다도 기업이익의 증가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주주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을 기업의 이익창출에 기여한 사람과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명산 대찰 수억대의 복잡한 시설보다

본사의 방송시스템은 앰프다루기 1초! 가격은 1~2백만원대이지만 염불이 아주 편하다는 입소문의 힘으로 영남권 1천여의 시설에도 A/S를 생명같이 하여 17년간 고장 한번 없이 새 것 같이 사용합니다.

(현장 비교시 광고와 추호라도 다를 시 누가 더 손해 망신?)

염불 전문시설 외에도

500명 수용, 악기 연주, 노래산사음악회 / 공양간 노래방
각종 방생용 앰프 구경 ▣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월등한 소리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명품** 박 청 락 올림

(사)대한불교 대경조계종 종도모집

총무원장
천고당 태륭

(사)대한불교 대경조계종은 본종에 등록한 사암의 재산에 대하여 일체관여하지 않는 종단으로 사암 및 종도님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하면서 고통 또한 같이 감내하는 종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불교발전과 포교에 수희 동참하실 사암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 행정지원 ◆

①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②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등록증명서
③ 차량등록 ④ 사암행정서식
⑤ 기부금영수증에 관한 일체서식 ⑥ 민원에 도움 되는 서류 및 서식

◆ 입종구비서류 ◆

① 사찰 및 승려등록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④ 사암 안팎 사진 1매(사찰등록 하실분)
⑤ 타 종단 수계첩 또는 승려증 사본 1부

◆ 사찰 및 종도님께 발급하는 서류 ◆

① 사암 가입증명서 ② 주지 임명장
③ 승려증(법사증) ④ 간부스님에 한하여 위촉장 또는 추대장을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모든 종도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정책에 반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社團法人 大韓佛教 大京曺溪宗
총무원 : 경북 안동시 향교1길 27-15 (송천동) 천룡사 ☎: 054)823-6777 H.P : 010-4053-2722

깨달음이란 행복이다



원웅 스님의 경전산책

㊺ 화엄경(華嚴經) 1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화엄경〉이다. 모든 문장이 명쾌하고 박진감 넘쳐서 좋다. 절대 손에서 놓을 수 없는 매력이 넘치는 경전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야할 길을 네비게이션처럼 확실하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에 앉아 시동을 걸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 가상의 세계에서 혹은 네비게이션만 켜놓고 출발하지 않는다면 어디로도 갈 수 없다. 이처럼 실천하는 행동력을 상세히 보여주는 경전이 〈화엄경〉이다.

나는 올 해 봄부터 동학사 화엄승가대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젊고 활기찬 학인스님들을 화엄의 세계로 안내하며 그들이 세상 속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인연들을 행복으로 이끄는 방법론을 가르치며 그 길을 함께하니 말 할 수 없이 좋다.

지금 수행을 시작한 이들에게 놓인 많은 갈림길에서 혹여 길을 잃거나, 확신 없이 막연히 흐름을 따라가거나, 살아있는 수행을 하고 싶거나, 심지어 모두 멈추고 싶은 그 때에 나는 이들 모두를 부처님의 광명 속으로 인도하고 싶다. 〈화엄경〉은 모든 수행을 안내하는 교과서라서 행복을 찾는 확신으로 가득 찬 삶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

불교는 부처님이 만나신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수많은 경전들이 존재한다. 이 많은 경전들을 다 포용하며 중생이 부처님이 되는 큰 그림을 그려가는 가르침이 〈화엄경〉이다. 다른 경들도 모두 각 분야에서 뛰어난 경전들이지만 다 깨달음과 행복으로 가는 조각들이다. 〈화엄경〉은 이 조각을 다 모아서 하나로 만든 완성된 퍼즐이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

'세계성취품'과 '화장세계품'을 통해 세계가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며 존재가 이루어진 것은 인연 따라 만나고 흩어진다는 연기(緣起)가르침으로 나를 돌아보게 한다. 마치 나의 몸이 100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나라는 사람이 된 것처럼 공존만이 살 길임을 알게 한다.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성제품'과 '여래명호품' 그리고 '광명각품'을 통해 모든 괴로움을 푸는 열쇠인 사성제인 고집멸도의 가르침을 주신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여 중생의 안목을 버리고 부처님의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법에 대하여'

첫째, 가장 행복한 길을 보여주시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지니는 법에 관한 십신(十信)이다.

둘째, 일체중생은 모두 부처님의 성품을 지녔으니 삶의 바라보는 마음가짐인 불자의 가치관 십주(十住)다.

셋째는 행복한 마음으로 사는 열 가지 실천 법인 십행(十行)을 시작하게 한다.

넷째는 실천하는 동안 행복해졌으니 그 행복을 나누는 십회향(十廻向)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다섯째는 행복을 나누는 동안 자존감이 높아져 생겨나는 불협화음을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도록 해주는 마음의 지혜나눔인 십지(十地)의 길에 들어서게 한다.

여섯째는 몸도 마음도 모두 행복하니 주변에 모인 모든 이들도 평등하게 행복해 진다. 부처님이 보시는 곳을 보고 있는 등각(等覺)의 경지에 오르지만 아직 내 것은 아니다.

일곱 번째는 세상에 머물되 세상에 물들지 않으며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부처님이 탄생하니 묘각(妙覺)의 경지다. 묘각은 중생이 보살이 되고 보살이 부처님이 되어 다시 중생곁으로 돌아오신 것을 말한다. 이렇게 52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화엄경은 다시 한번 선재동자의 순례를 통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행복을 이루게 하고, 그 길의 결론을 보현의 행원으로써 지금 이 순간 우리도 중생에서 바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필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으며 매 순간 십바라밀을 실천을 권한다. 〈화엄경〉 결론은 '보현행원(普賢行願)'이다. 고통에 빠진 우리들을 구하러 오신 부처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부처님처럼 사는 방법인 보현행원으로 멋진 인생의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다.

〈서울 반야사 주지〉

사고 전환이 바로 금강경식 교육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㊹ 금강경 교육법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온 교육의 특징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모르는 존재다'라는 기본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지식을 획득하고 자연과학을 탐구하고 도덕교육 및 대인관계 등 교육내용은 모두 지식중심의 교육이었습니다. 지식이 많은 스승이 시험을 통한 지식평가와 시뮬레이션, 지식중심의 토론 등 교육방법으로 접근하다보니 난제해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런 지식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새롭고 획기적인 창의성 교육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의 기본전제 또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모르는 존재에서 출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첨단지식과 리더쉽 교육 그리고 난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고방식의 전환훈련을 교육내용으로 하면서, 창의력 개발을 위한 토론을 활성화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훈련을 키우는데, 창의성이 뛰어난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교육을 받음으로서 숱한 난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난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교육에 비해 금강경식 교육은 기본전제가 인간은 본래부터 부처님처럼 다 아는 존재에서 출발합니다. 일체유심조, 공, 불이 등의 금강경 진리를 바탕으로 정신은 가만히 두고 육체는 규칙적으로 움직이면서, 더불어 가족과의 일정기간 격리를 통한 교육방법을 통해 그 업보를 해탈하게 되면,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난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이것에 대한 확신은 분명합니다. 캄캄하고 무지한 내가 무엇을 아는 정도로 변화할 수 있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와 맺었던 업보, 즉 불쌍한 마음의 해탈 덕분이었습니다. 나는 비로소 선지식의 위대성과 금강경 공부의 실용성,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금강경 공부를 통하여 나같이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도 변하여 능력자도 되고 도덕군자도 되며 성자도 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구족한 부처님과 같은 존재요, 또 실제로도 시시각각으로 소원을 이루고 있는 위대한 존재라는 가정 하에 금강경 공부를 하면, 그 누구나 마음속의 탐심의 벽, 진심의 벽, 치심의 벽이 본래 공임을 알게 되고, 마음속에 깊게 쌓인 열등감이 하나하나 제거되면서 고난이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중노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찌 건강을 찾을 수 있었을까? 척박한 생활을 겪어보고 이를 부처님께 바치지 않았다면 어찌 지금의 행복, 편안함을 맛볼 수 있었을까? 어리석음을 바치지 않았던들 어찌 지혜가 생길 수 있을까? 궁한 마음을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풍요로울 수 있을까?

금강경 공부는 공부하면서 만나게 되는 각종 고달픈 일이 한결같이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좋은 선물이었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또한 무지가 주는 고난이 곧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되었고, 번뇌로 인한 고달픔이 곧 보리를 잉태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으며, 드디어는 생사가 곧 열반임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강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각종 고난을 만날 때 불평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깊이 감사하며 고난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금강경식 교육만이 진정한 인성교육이고 지혜교육이므로 다방면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식 교육을 행하는 교육기관이 탄생한다면, 분명 수많은 인재가 배출되어 나라를 최선진국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연생연멸(緣生緣滅)과 '이 뭣고'

진실(眞實)과 허망(虛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허망을 허망이라고 깨닫는 그것이 곧 진여(眞如)이고 여래장(如來藏)이다. 공(空)을 통하지 않고, 허망의 도리를 깨치지 못하고서는 불도를 이를 수가 없다. 망령(妄靈)된 마음이 허망인 줄 깨달으면 허망한 현상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며 해탈을 이루게 된다.

삼라만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거짓인 가(假)이며 색(色)이다. 그것은 모든 현상은 인연에 따라 연생연멸(緣生緣滅)하는 것으로, 공(空)에서 이루어지고 만유만사가 공에서 연기하며, 영원불변의 실체성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거짓인 것이고 인연이 다하면 흩어지기 때문에 공이다. 비록 실체가 없는 가(假)이지만, 그 속에 공(空)이 있음을 보고 공에서 가를 보면서 자유자재로 쓰는 것을 중(中)이라 한다. 예로 술이 발효돼 식초가 되지만 그 바탕은 술이다. 그러나 식초에 술은 보이지 않지만, 그 가(假)속에서 공(空)을 보는 것이다. 이것이 중도(中道)이며 연기법(緣起法)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설명하는 모든 것들은 마음이 만들어 낸 환영(幻影)일 뿐이고, 영혼(靈魂)이나 신(神) 윤회(輪廻)도 마음이 만들어 낸 관념(觀念)일 뿐이다. 나(我) 라는 것도 진짜 나(我)가 아니라, 아상(我相) 아집(我執) 아만(我慢)이라는 허망한 그림자를 진짜 나 인줄 착각(錯覺)하고 있을 뿐이다.

생사(生死) 또한 하나의 환상(幻想)이다. 진실(眞實)은 불생불멸(不生不滅)이다. 불법은 만법(萬法)이 모두 생각(生覺)이고, 관념(觀念)이며 식(識)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도 일체가 심식(心識)에 의지해서 빚어낸 '허망한 업(業)의 그림자' 일 뿐이다.

암(識)이 본래 스스로 아는 앎이 없건만, 중생이 허망(虛妄)한 생각을 붙잡아서 나의 마음(識)으로 삼음으로써 무명(無明)이 벌어진 것인데, 일단 이것을 실체(實體)로 오인(誤認)하고 집착심(執着心)을 일으키는 것이다.

참된 수행이란 이 허망한 한생각이 떠오를 때 즉시 알아차리고 '이 뭣고'로 그 뿌리를 잘라 버림으로서 다생겁래에 걸쳐 쌓아 제 8아뢰야식에 저장된 아타나란 미세망념의 인습(因習)을 재현(再現)을 차단(遮斷)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업장소멸(業障消滅)을 시키며 생활속에서 반야지혜를 굴려쓰는 것이 '이 뭣고' 이다.

인연따라 생멸 변화하는 일체의 사물은 허망한 인연이 화합해서 마치 몽(夢) 환(幻)처럼 이루어 지는 것으로, 이 모두가 실체성(實體性)이 없는 것인데, 중생들은 눈앞의 온갖 현상(現象)을 실유(實有)로 오인해 분별하고 집착함으로서 이 세간의 모습이 '있음'이 된 것이다.

또한 삼계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생사도 역시 환영이며 물거품이며 그림자이며 꿈속의 일이다. 현상의 제법은 일심이 인연을 따라 발생했을 뿐 마음자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연연으로 발생한 만법은 본래 무생의 본무이기 때문에, 만법이 소멸한다해도 인연이 사라졌을 뿐 마음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본무일심(本無一心)은 인연의 화합을 따라 제법으로 나오지도 않았고, 인연의 분리를 따라 사라지지도 않는다.

연생연멸(緣生緣滅)이라, 나도 남이 없고 멸해도 멸함이 없는 것이 연기성(緣起性)이다. 간화선 '이 뭣고'는 이 연기성을 깨닫고 공적영지한 본래성품자리를 증득하는 것이다.

비유해서 땅은 생(生)이 없는데 콩(豆)의 종자(種子)를 심으면 콩이 나오지만 땅에 의(依)해서 나기 때문에 이 생(生)은 우리가 육식으로 밖으로 보면 형상이 있는데, 연기성이기 때문에 무생(無生)이며, 이 무생이 화중생연(花中生蓮)이며, 불가운데 연꽃이란 불덩어리가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이며, 거북털이니 토끼뿔이 공성(空性)이다. 불이 시뻘건 화로서 연꽃이 핀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간격이 없는 동시(同時)인 시무애(時无涯)이고, 작금(昨今)이 바로 영산회상이며 부처님과 나와 자타의 간격이 없는 처무애(處无涯)이며 도솔천 내원궁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한국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한국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등록증
- 주지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300번지 (오정산 백봉사)
■ 종무소 : 전국대표번호 1577-1016 / 054)571-6973 / 054)571-1030 / 054)571-7497 / 팩스 054)571-7498
■ 한국불교방송 : 대구시 달서구 새동네로107 예림빌딩 606호

대한민국 불교종단 역사

대한민국 불교종단 역사는 신라시대 5교9산의 선문(禪門)전통에 따라 비로서 종문(宗門)이 개창(開創)되고 고려시대에 이르러 천태, 조계종을 필두로 종파(宗派)가 설립되어 제종파(諸宗派)가 제각기 부종수교(扶宗樹敎)의 일념으로 불조(佛祖) 혜명(慧命)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을 면면히 계승해 오다 조선조에는 선교양종(禪敎兩宗)으로 제종을 통합하여 오다가 그후로는 조계종(曹溪宗)만의 단일종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해방 이후 제종파 시대가 열리고 또한 1988년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불교 수 많은 종단이 창종되고 소멸되고 이제 그 실체를 파악하여 관계부처에 자료제공과 신문과 방송, 불교언론에 널리 홍포코자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종승(宗承)을 선양하니 해동대한민국에 불일(佛日)이 중휘하고 자비광명이 삼천리 강토에 비추리라. 이와같이 종지 종풍으로 일가를 성립할 수 있어 각기 종명을 세우고 이 땅에 불일중흥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한국불교 조계종 (사)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한국불교방송 ㈜한국불교방송신문사

대구시 달서구 새동네로 107 예림빌딩 606호 / 전화 1670-2012



동명불원은 12월 7일 대웅전에서 신임 주지 승찬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깨달음 위한 도량 이룰 터”

동명불원 주지 승찬 스님 취임

부산 동명불원 주지에 승찬 스님이 취임했다. 승찬 스님은 “수행을 보다 강조해 정진하는 도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동명불원(주지 승찬)은 12월 7일 대웅전에서 신임주지 승찬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서 승찬 스님은 “불교는 수행을 통해 자신을 바꾸는 종교다. 진정한 기도 정진은 소원 성취가 아니라 자신을 바꾸기 위한 방편”이라며 “이를 위해 초기불교에 바탕을 둔 불교명상대학을 개설하고 대중이 지혜를 증장시킬 수 있도록 꾸준히 돕겠다”고 강조했다.

취임식은 삼귀의 및 이력소개, 취임사 그리고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승찬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성재곤 신도회장은 “승찬 스님과 함께 교육과 봉사 그리고 포교에 우리 모두가 바른 원을 세우고 신심을 키워 나간다면 동명불원은 더욱 성장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승찬 스님은 범어사로 출가해 직지사 녹원 스님을 계사로 수계 받았다. 영천 고등사, 김해 이득사, 구미 문수사에서 주지를 역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봉사자, 대통령표창 수상

강부선 씨 17년간 재능기부 노력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 부설 조계종자원봉사단 소속 강부선 씨〈사진〉가 12월 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개최된 ‘2018 전국자원봉사자대회’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이해 열린 행사는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했다. 행정안전부,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는 대회를 통해 봉사와 선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시민과 단체를 발굴해 시상해왔다.

대통령표창 수상자로 선정된 강부선 봉사자는 2001년부터 꾸준한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강 씨는 어르신 치매예방과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를 위해 주민센터서 뜨개질 강의 재능기부를 하고, 장애어르신 대상 발반사 요법 마사지, 무료급식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시설과 병원서 활동했다. 특히 주변 사람들에게 자원봉사 참여 확산을 위해 노력한 공로도 높이 평가됐다.

조계종복지재단은 “마음을 내어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은 나와 내 주변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비 손길을 전하는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지원 기자**



“한국불교 세계화 국제포교가 열쇠”

Interview

제11대 국제포교사회장 김성림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한국 선종 종지 살아 있어
세계에 알릴 역할 맡아야
포교사 활동무대 확장 목표

“아시아 가운데 한국불교에 유일하게 선종이 살아 있고, 비구의 청정한 삶이 재현돼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뛰어난 한국불교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이 국제포교사의 역할이자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국제포교사회 제11대 회장에 김성림 씨가 선출됐다. 12월 11일 부산 해운대에서 만난 김 회장은 다른 불교국가를 돌아보고 귀국한 직후라 말했다. 피곤함이 묻어나는 얼굴이었지만 세계 다른 나라에서 만난 불교문화와 국민들의 신심에 오히려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포교사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묻자 김 회장은 “사실 속이 탄다”며 안타까워했다. 한국불교의 뛰어남을 더 많이 전하지 못하는 아쉬움에 답답하다는 것이다.

“1995년도에 런던, 파리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 모스코바까지 불교 현황이 궁금해 직접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영국인이자 비구니였던 무진 스님을 만나 더욱 자세히 이야길 들을 수 있었는데 당시 영국에는 한 마을에 사찰이 하나씩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한국불교는 찾아 보기 어려웠습니다.”

한국불교 세계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김 회장은 “한국불교 포교 조건은 뛰어나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웃국가에 비해 비교적 서구화된 생활양식을 갖추고 있어 외국인에게 한국불교를 전하기 좋은 조건이란 뜻이다.

한국불교 전파와 외국인 포교를 위해 김 회장은 앞으로 △기존 국제포교사 회원 활동 강화 △인재 양성 △연등문화축제 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꼽았다.

“현재 국제포교사는 200여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휴면 자격증처럼 활동하지 않는 회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한 활동의 장을 넓히고 화합을 도모할 것입니다. 교육 강화로 실력을 향상하도록 돕고 어린이 자타카 영어 암송대회를 통해 불심을 심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회장은 특히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불교국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타 종교로 개종해 자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보며 안타까웠다고 설명했다.

“스리랑카에서 온 불자 외국인 노동자가 기독교로 개종 후 자국으로 돌아가 그 마을 전체를 기독교로 바꾼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고 법회를 지지하며 다양한 한국문화를 보여주는 활동으로 친밀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김성림 회장의 국제포교 원력은 성철 스님과의 인연에서 시작됐다. 1980년 성철 스님을 친견 후 절 수행을 시작했고, 참선 공부를 이어가며 매일 1000배 수행을 10년, 3000배 120일 정진을 회향하는 등 백련암과 해월정사에서 수행을 이어왔다. 수행으로 성철 스님의 상좌인 원명 스님과 인연이 됐으며 국제포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 원명 스님은 국제포교사회를 창건했으며 인도네시아 해인사 포교원, 모스크바 달마사, 우크라이나 불심사, 키르키즈스탄 보리사, 방글라데시 원명사 건립 등 다양한 해외포교 활동을 펼쳤다. 김 회장은 원명 스님의 국제포교 원력에 발맞췄으며 강화 연등국제선원 창건 주역이자 국제포교사회 부산지부 창립자다.

“율사 표상 가르침 되새기자”

동국대, 경산 스님 평전
12월 11일 봉정법회 봉행



정화불사의 주역이자 조계종과 동국대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한 경산 스님의 평전 〈청정 율사 경산 스님의 삶과 가르침〉이 부처님께 봉정됐다.

동국대는 12월 11일 교내 정각원에서 ‘〈청정 율사 경산 스님의 삶과 가르침〉’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종하 스님, 총무원장 원행 스님,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총장 보광 스님을 비롯해 경산 스님 문도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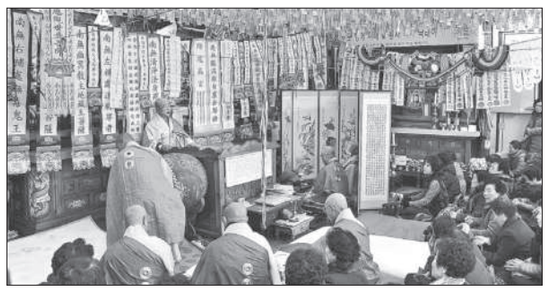
원로의원 종하 스님은 발간사를 통해 “한국불교의 정체성 회복과 종단 안정, 도제 양성의 큰 기틀을 다진 경산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만나게 돼 기쁘다”며 “선지식이 그리운 시대, 스님의 가르침이 종단 내외에 다시 큰 울림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치사에서 “율사이자 선사이며 한국불교 정화의 기수 역할을 한 경산 스님의 고귀한 일대기 속 삶과 수행을 돌아보고 정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라는 대종사의 가르침이 많은 대중에게 오롯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도 축사에서 “경산 스님이 마련한 토대 위에 동국대는 나날이 발전이 있다. 이번 평전을 계기로 경산 스님 연구가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삼존불 개금불사 회향

정읍 일광사, 100일 관음정진 입재



정읍 일광사(주지 승천)가 12월 7일 대웅전 삼존불 개금불사를 회향하고 100일간의 정진기도를 입재했다. 승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육바라밀 불자의 신행생활을 완성하고 기도를 통해 신행생활에 도움을 주는 도량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광사는 개금불사회향을 맞아 100일간의 관세음보살 정진기도를 입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자비연탄’ 소외된 이웃에

완주 송광사, 관내 5000장 연탄 나눔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는 12월 9일 소외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자비의 연탄 5천장을 완주군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연탄 전달에는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과 상임위원회와 전북불교발전협의회, 박성일 완주군수 및 전주연탄은행 회원 등 30여 명이 동참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상락선원 봉덕동 이전법회

12월 9일, 고교생에게 장학금 전달도



대구 상락선원(선원장 혜문)은 12월 9일 남구 봉덕동으로 이전해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수도암 회주 원인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지우 스님, 능화사 주지 혜광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상락선원은 이 자리서 구암고교 등 학생 2명에게 각 5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페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자장 스님 화엄정신 잇는 법석”

통도사 화엄산림 입재, 방장 성파 스님 법문



영축총림 통도사가 전국 최대 규모 화엄산림법회의 시작을 알렸다. 12월 7일 시작된 화엄산림을 통해 통도사는 한 달간 화엄 세상으로 변모한다.

통도사(주지 영배)는 12월 7일 경내 설법전에서 화엄산림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법석에는 1만여 대중이 참여해 발디딜 틈도 없이 설법전과 템플스테이관 등 크고 작은 전각이 가득 찼다. 입재법문에서 방장 성파 스님은 통도사와 화엄경의 특별한 인연을 설명했다.〈사진〉

성파 스님에 따르면 자장 스님은 당나라에 공부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가르치러 갔으며, 당 태종은 자장 스님이 방문했을 때 국빈으로 맞았다. 또 황실 귀족과 지식인들은 자장 스님의 화엄경 법문을 청해 들었다.

성파 스님은 “오늘날 우리가 통도사에서 화엄산림법회를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자장 스님의 화엄정신을 잇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48회를 맞은 통도사 화엄산림법회는 뛰어난 강백을 법사로 초청해 법회를 열고, 법회 기간 동안 화엄경 전체를 살펴 볼 수 있어 매년 불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입재일인 이날 오후에는 국내 최초로 화엄경 해설집을 완간한 무비 스님이 법문했다.

통도사=하성미 기자

17교구 금산사 송년한마당 대법회

전북불교신도회, 발전기금 1500만원 기탁



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가 무술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도약을 다짐하는 송년대법회 한마당을 개최했다.〈사진〉

금산사(주지 성우)는 12월 9일 전주 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 3층 큰법당에서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 초청 송년대법회를 봉행했다. 전북불교신도회 주관으로 열린 법회는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과 도법 스님, 교구 본말사 스님들과 이근재 전북불교신도회장 등 각 신행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성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계획한 불사와 내년도 사업계획이 마무리됐다. 새해에는 어린이 청소년 등 젊은 불자 양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법어에서 “최근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부는 것은 중도적이고 화쟁적인 태도로 접근했기 때문”이라며 “불교를 관념과 지식으로 공부하지 말고 중도와 연기의 가르침을 바로 알고 실천해나가는 불자가 돼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근재 전북불교신도회장은 금산사에 교구발전기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가족 포교 지속적 전략 필요”

혜원정사 제2회 시민포럼

가족포교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포교 전략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혜원정사(주지 원허)는 12월 9일 경내 교육관 2층에서 제2회 혜원시민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1부서는 동국대 박경준 교수가 ‘초기불교에서 본 가족’을, 안성두 서울대 교수가 ‘가족의 대승불교적 해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2부서는 중앙승가대 박수호 교수가 ‘동시대 가족의 얼굴’, 백도수 능인대학원대 교수는 ‘가족 포교의 눈길과 발길’을 주제로 발제했다.

백도수 교수는 “출가자와 불자가 감소하는 원인은 가족 포교를 소홀히 한 한국 불자들의 문제도 크다”며 “여러 다양한 불교 활동을 통해 친밀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허 스님은 “가족의 종교가 같을 때 나아가는 생각과 방향이 같아진다”며 “어릴 때부터 사찰을 찾고, 스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자연스런 포교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봉사는 포교”… 추위 녹이는 자비행

부산불교교육대학 포교봉사단, ‘실천 신행’ 귀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포교가 봉사, 봉사가 곧 포교’란 기치아래 불교 가르침의 생활화를 실천하고 있는 재가 신행단체가 있어 눈길을 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봉사’와 ‘포교’를 화두로 삼은 부산불교교육대학 포교봉사단이다.

12월 8일 부산시청 앞 등대광장에 어르신들이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노숙자들과 차상위계층 및 독거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 따뜻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친목의 장이 된 무료급식소를 찾기 위해서다. 이곳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 포교봉사단이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찾고 있다.

숟가락과 젓가락에 살얼음이 생길 정도로 추운 날씨였지만 포교봉사단은 어깨를 펴고 먼저 큰 목소리로 인사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후 대중은 그릇에 밥과 반찬을 신속하게 담아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매주 평균 8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소를 찾고 있다. 어르신들은 자리에 편히 앉아 식사를 하며 움츠려 있던 몸을 펴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포교봉사단은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뜨는 어르신들에게 방한 양말과 간식을 전달하고 손을 잡으며 따뜻한 겨울을 발원했다.

포교봉사단은 2009년에 창단해 매월 둘째 주에는 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덕천 주공아파트 경로당서 어르신을 위한 국수 나눔 봉사, 신애재활원 · 천마재활원 등 여러 봉사현장에서 활동을 이어왔다. 사단법인 부산밥퍼나눔공동체가 주관하는 부산시청 앞 무료급식에는 4년 전부터 참여하고 있다. 최근 들어 봉사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라 포교봉사단의 든든한 지원이 특별하고 감사하단 인사말도 전했다.

무료급식 및 봉사활동 10년
불교문화 통한 포교활동도
130여 회원 오직 불교 위해
“봉사 · 포교는 자신 위한 것”

손규호 밥퍼나눔공동체 상임이사는 “포교봉사단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봉사를 이어주고 있어 무엇보다 든든하고 후원도 아끼지 않아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장준동 부산불교교육대학 부학장은 “포교봉사단이 찾아오는 이 무료급식 현장은 200여 명의 봉사자들이 연합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손길이 많이 줄어 안타깝다.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는 포교봉사단이 자랑스럽고 봉사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한 것으로 성장의 밑거름이다. 더 많은 봉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 포교봉사단의 무료급식 현장. 포교봉사단은 불교대학에서 배운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봉사와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포교봉사단은 포교활동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매월 한 번 전법을 위한 불교문화여행을 실시하고 삼사를 순례한다. 평균 120여 명이 동참하며 이 가운데 비불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불교문화를 통한 쉬운 언어로 비불자에게 불교를 전하는 포교 현장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김광호 포교봉사단장은 “매달 첫 주에 불자가 아닌 분들을 모시고 삼사 순례를 가고 있으며 아름다운 사찰 문화를 소개하고 불교를 전하고 있다”며 “여행 후에는 불교대학에 입학하도록 권하고 지속적인 포교가 되도록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교와 봉사에 함께 동참해주는 모든 단원들과 팀장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전했다.

학장 범혜 스님은 “봉사와 포교를 수행으로 삼아 정진하는 신행단체를 위해 포교봉사단이 조직됐다”며 “자신이 스스로 관세음보살로 화현하는 자리이자 살아 있는 배움을 얻는 현장”이라고 말했다.

칸타타로 풀어본 전법의 역사

홍법사 개산 15주년 기념
“앞으로도 전법에 매진을”



홍법사는 12월 9일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홍법 개산 15주년 기념음악회 ‘홍법 칸타타’를 개최했다.

홍법사 15년 역사를 노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 과거를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에도 변치 않을 전법 의지를 약속하는 자리로 거듭났다.

홍법사(주지 심산)는 12월 9일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홍법 개산 15주년 기념음악회 ‘홍법 칸타타’를 개최했다.

첫 무대에서는 홍법사 대중 스님들과 동림 소속 어린이들이 나와 도량을 깨우는 도량석으로 무대를 밝혔다. 이어 홍법연합합창단이 ‘밀려드는 빛’과 ‘법으로 하늘 열리고’란 장엄한 곡으로 시작을 설명했고, 성장과 수행 등 각 주제를 담은 곡으로 칸타타(연속적인 서술 설명을 담은 교성곡)의 특성을 멋지게 연출해 박수를 받았다.

음악 무대는 칸타타 주제곡 외에도 아이들의 동요 무대와 홍법사 동림중 · 고교 학생 및 청년들의 공연이 이어져 활기를 더했으며, 니르바나 오케스트라와 정신혜 무용단의 연화무도 함께했다. 공연 마지막에는 모든 대중이 함께 손을 잡고 ‘보현행원’을 부르며 회향했다.

주지 심산 스님은 무대 마지막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심산 스님은 “하도명화 보살의 고결한 원력으로 시작한 홍법사다.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행복한 그날까지 더욱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홍법사는 2002년 동지에 첫 법회를 봉행 후 동자승 단기 출가, 마을상좌 수계식, 제1차 걸망 메고 떠나는 홍법사 108산사 순례 등을 개최하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포교를 시작했다. 특히 문화교실을 열어 불자가 아닌 사람도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수행을 함께 제시해 성장을 도모했다. 2009년 대광명전 낙성법회 후 2010년 10월, 7주년에는 달라이라마가 보낸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한 국내 최대 좌불상 아미타불 점안식을 봉행했다. 그 외 몽골 및 대만 불교와 교류하며 해외 포교에도 앞장섰다.

한편, 음악회에는 주지 심산 스님을 비롯해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 진각종 부산교구청장 진광 정사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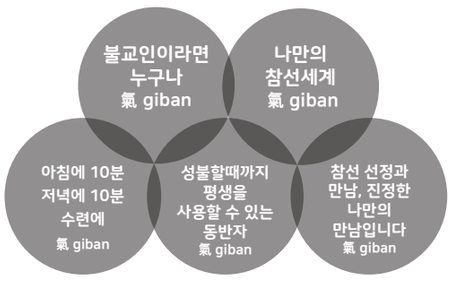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 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세로 32cm×높이(뒷면) 8cm]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까르마빠 "印 돌아가길 간절히 바라"

정부 관계자 언급, 도미니카 시민권 문제 걸려

박영빈 객원기자

달라이라마를 이어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로 주목받고 있는 17대 까르마빠 오갠 틴레 도제(34)의 거취를 두고 오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까르마빠 자신은 인도로 귀국하길 바란다고 인도 정부 관계자가 언급했다.

12월 6일 '티베탄 저널' '더 힌두' 등의 현지 매체들은 인도정부 티베트 위원회의 전임고문 아미타브 마투르(Amitabh Mathur)의 인터뷰를 통해 까르마빠의 거취에 대한 문제를 보도했다.

까르마빠는 지난해 5월 전법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이래 미국에 머물고 있다. 미국망명설이 한때 대두됐으나 지난 7월, 라디오 자유 아시아(Radio Free Asia)와의 인터뷰에서 "인도에서 열릴 티베트 불교지도자 회의에 참석을 위해 귀국할 것"이라고 직접 밝혔다. 특히 이 회의는 티베트 4대 종단의 수장들과 원로들이 모여 달라이라마의 후계자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는 기대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11월 29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회의가 닝마파 종단 종정 까톡 게쩨 린뽀체의 갑작스런 입적으로 무기한 연기, 까르마빠의 귀국도 무산됐다.

마투르 고문은 까르마빠의 귀국문제에 대해 "까르마빠는 인도로 돌아가길 간절히 원하며, 오는 1월 말 부다가야에서 열릴 법회를 주재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또 "만약 법회기간 중에 귀국이 가능하고, 그 사이에 불교지도자 회의가 재개되면 회의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난민증명서 포기 의사 걸려

인도당국과 대화 더 길어져

티베트 내 안 좋은 루머도

그의 부재 티베트에 악영향

이에 관해 인도 내무부 관계자는 까르마빠의 귀국문제 대해 "올해 초 까르마빠가 어떠한 언급도 없이 망명티베트인 신분을 포기하고, 도미니카 공화국의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이 결정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까르마빠는 이미 여러 차례 인도귀국 비자를 요청했으며, 인도 정부가 발급한 난민증명서를 반납하겠다는 서신을 뉴욕의 인도 대사관에 발송했다. 까르마빠가 인도로 귀국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난민증명서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인도정부가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인도당국과 까르마빠 간의 교착상태가 그의 귀국을 늦추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설법 중인 17대 까르마빠. 사진출처=까르마빠 공식홈페이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마투르 고문은 인도당국의 회신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까르마빠는 모종의 압력을 느끼고 있다. 까르마빠가 귀국하기 위해서는 달라이라마와의 확고한 연계를 재확인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까르마빠의 귀국에 대한 혼란은 티베트 불교 공동체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까르마빠의 귀국이 늦어지면서 여러 루머들이 돌고 있다. 이번 불교지도자 회의가 무기한 연기된 것도 사실은 까르마빠가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티베트 망명정부 관계자들은 까르마빠의 부재가 회의 연기에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그를 포함하지 않고 회의 재개를 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마투르 고문은 "회의 연기가 까르마빠에게 원인이 있다는 말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일축하며 "오히려 네팔과 스리랑카 불교계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중국정부와의 정치적 민감성이 더 큰 요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까르마빠의 귀국과 거취문제를 두고 티베트 불교계와 인도-중국 간의 정치적 민감성이 고조 되고 있는 가운데, 사태의 귀추가 주목된다.

中 종교 탄압, 티베트인 또 분신

20대 남성 생사 확인 불투명… 벌써 154번째

티베트인 20대 남성(22세 추정)이 중국 당국의 종교 탄압에 반발하며 분신을 시도했다고 중앙통신이 지난 12월 11일 보도했다. 2009년 이후 같은 이유로 일어난 154번째 분신 사건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 아바(阿壩) 티베트족·장(羌)족 자치주 아바현에서 지난 8일 '주쿼(珠闊)'라는 티베트족 남성이 분신했다. 최근 들어 강화된 중국의 박해에 대한 불만 표시였다고 알려진다.

현지 경찰은 즉각 분신 현장을 봉쇄하고 외부의 출입을 차단했다. 게다가 주변 현진향촌(縣鎭鄕村)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티베트족 승려와 주민의 언론 접촉을 통제했다는 게 현지 티베트 사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근 쓰촨성 아바 자치구에서는 티베트족의 항의 분신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주쿼는 올해 3번째 분신 시도자이자, 아바현에서 42번째다. 티베트인 전체에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154명이 분신해 이 중 132명이 숨졌다. 해당 남성의 생사는 현재 미확인 상태다.

한편 해당 남성이 분신한 지난 10일은 티베트 불교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노벨평화상을 받은 지 29주년을 맞는 날이었다.

중국 당국은 최근 티베트족 거주지를 상대로 달라이라마 초상화 제거 작업을 펼치고 있다. 티베트족 집에 있는 불당에 달라이라마 사진을 치우는 대신에 마오쩌둥(毛澤東) 前주석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초상화를 내걸라고 강요하며 '중국화'를 감행하고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샴발라 마운틴 센터 전경. 사진출처=라이언스로어

美 대형 불교단체 스님들 '성추문'

경찰 수사 착수… 지도부 사임 이어져

미국 콜로라도주 라리머카운티 수사당국은 불교 단체 샴발라 마운틴 센터(Shambhala Mountain Center)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수장인 사경 미팜 린포체의 성폭행 사건이 단초가 돼 단체 전체의 비위 수사로 번졌다.

경찰 관계자는 "라리머카운티 조사당국이 샴발라 마운틴 센터의 범죄 정황을 파악했다. 수사관들은 현재 정보가 흘러나온 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고 불교 매체 라이언스로어(Lion's Roar)가 12월 10일 보도했다.

라이언스로어는 미국 언론 보도를 인용, 콜로라도 경찰이 사경 미팜 린포체 등 스님들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발간된 '샴발라 커뮤니티의 성폭력 실태' 보고서에서 3건의 사항이 고발된 후 시작된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사경 미팜의 성추행 및 성폭력 혐의에 대한 폭로가 상세히 기재돼 있다. 해당 보고서는 4명 이상의 샴발라 커뮤니티 회원이 증언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 7월 사경 미팜은 자신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행정 및 교육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적 만족을 충족시킬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 수행원들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여성들은 이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했다고 전해진다. 샴발라 불교 지역사회의 최대 수뇌부인 칼라파의 9명의 구성원도 이 같은 혐의에 따라 사임했다.

티베트 불교에 근원한 샴발라 불교 커뮤니티는 전 세계에 약 200개 명상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큰 서부 불교 커뮤니티 중 하나다. 박정현 객원기자

AI가 읽은 불상의 감정은?

日 마이크로소프트사 나라대학교 공동연구

사찰에서 예경의 대상으로 모시는 불상의 평균연령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12월 6일, 일본 '산케이 뉴스' '비글로브 뉴스' 등은 일본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나라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도했다.

일본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자사의 AI인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Microsoft Cognitive Services)를 기반으로, 무작위로 선발한 불상의 화상데이터를 이용해 표정을 분석했다고 전했다. 이 연구는 인간의 얼굴에서 감정을 추정하는 기술을 불상에 응용하려는 나라대학의 연구팀과 함께 진행됐다.

연구팀은 무작위로 210구의 불상을 선정했다. 불상의 종류는 여래·보살·천신·조사상 등 다양한 범위로 지정했다. 불상의 표정은 기쁨·슬픔·중립·분노·경멸·혐오·공포·경악 등의 8종으로 분류, "불상의 종류에 따라 감정의 경향이 다양했다"고 전했다.



나라대학 연구팀이 AI 분석을 위해 불상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출처=산케이뉴스

예를 들어 여래의 경우 무표정에 해당하는 '중립'의 수치가 가장 높았다. 연구팀은 "인간의 희로애락을 넘어선 표정으로 무표정을 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살은 '기쁨', 천신은 '분노'의 수치가 높았다. 특히 천신의 '분노'에서는 "너무나 사실적으로 조성되어 표정의 깊이가 인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 많아 분석이 불가한 경우가 많았다"고 고충을 설명했다. 또 시대에 따라 불교가 처음 전래된 시기엔 '기쁨'이, 전쟁이 잦은 시기엔 '분노'가 높은 수치로 분석됐다.

연구를 총괄한 세키네 쥰이치 나라대 부학장은 "수치의 경향은 불상이 조성된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는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연령에 있어서는 가장 최연소가 2.9세, 최고령이 83.5세였다. 최고령의 값은 조사상의 표정에서 분석된 것으로, 실제 조성된 본인의 나이인 90세에 가까운 수치로 확인됐다. 또한 모든 불상의 평균연령은 38세라는 추정결과가 나왔다.

연구팀은 "이 분석은 어디까지나 경향성을 알기위한 참고수치다. 조명이나 각도 등의 환경에 의해 값이 변동될 수 있다"며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 이해할 것을 당부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꼬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회원 우대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알아차림 속 드러나는 삼매의 지혜



지운 스님의 **자비선 명상**



5. 자비다선 차명상

4) 차명상의 네 가지 틀

행다의 알아차림

직관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아는 인식이다. 있는 그대로 아는 힘으로 모든 존재를 추론할 수 있다. 추론하는 것은 사유 분석하여 통찰하는 것을 말한다.

직관을 통하지 않고 추론하는 것은 그 대상을 오류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 반대로 직관을 통해 바르게 알았다면 그 앎을 토대로 대상을 사유 분석했을 때 그만큼 오류를 줄이고 왜곡에서 벗어나는 통찰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행다의 알아차림은 차명상의 바탕이 된다. 상상과 이야기 속에서 일어나는 명상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힘에 바탕을 둘 때 집중과 사유통찰과 자비, 그리고 이 모두를 회통하여 일미를 깨닫게 한다.

사유통찰-지혜

차(茶)를 매개로써 인간관계, 인연관계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자체가 바로 지혜이다. 지혜가 있으면 차의 색 · 향 · 미를 맛본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자유롭다. 흔히 우리들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대로 진실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진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 진실을 알기 위하여 겉모양의 틀을 깨트리고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것을 포착하여 알게 하는 것이 분석사유이다. 마치 추리소설속의 주인공이 보이지 않는 범인을 잡기 위해 조그마한 단서를 추론하여 범인을 잡아내는 것과 같다.

이미지를 시각화 하는 상상

꿈과 상상과 현실은 장소만 다를 뿐 인식하는 것이 같기 때문에 신체적 반응이 같게 나타난다. 꿈속에서 강도를 만나면 땀 흘리고 도망가기 바쁘다. 실제로는 꿈일 뿐이지만 신체적 반응이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물며 상상은 더 말할 나위 없다. 그래서 꿈과 상상과 현실은 같다고 하는 것이다. 상상이라는 환경 속에서 집중인식과 사유분석의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이다.

스토리

명상을 통하여 다르마의 이치가 드러나면 착각과 왜곡과 잘못된 견해가 없어진다. 효과적으로 착각과 왜곡과 잘못된 견해를 소멸시키기 위해 스토리를 만들고 스토리를 구성하는 요소로써 무상, 상호의존, 공 등의 다르마를 내용으로 한다. 이야기를 구성하는 공과 연기, 무상, 그리고 오직 마음뿐, 밖의 경계가 없다는 이치를 드러내는 지혜가 매듭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야기의 매듭이 자성청정한 마음의 본성을 자극하여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가능성을 현실화한다. 이것이 차명상의 특징이다.

이야기는 지혜와 자비를 일으킨다. 매듭과 흐름이 있기 때문이다. 흐름은 무상과 상호의존과 인과로서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닌 중도의 흐름이며, 한마디로 다르마의 흐름이다. 매듭은 번뇌 망상과 망념의 매듭이자 다르마를 아는 지혜의 매듭이다. 자비와 지혜에 의해 망상과 망념이 녹고 번뇌의 뿌리를 잘라 가면 속박하고 있던 번뇌의 매듭은 사라지고 그 매듭이 다르마를 아는 지혜와 자비의 매듭으로 바뀐다. 자비와 지혜의 내용이 다르마이기 때문이다.

명상 중에 진행되는 이야기 속에는 물과 바람이 있고 형상 등으로 풍광이 있다. 이 모두는 비유와 상징과 심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은 그 영향을 받아 아뢰야식의 종자들이 현상으로 나타난다. 모두 본인의 심리현상이다. 그런데 이를 현상으로 보는 것은 망상과 망념이 반응하여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반면 상징과 비유와 심리의 내용은 다르마를 지칭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심리현상을 무상, 고, 무아, 상호의존 등 다르마로 볼 때 마음(망상 망념)의 흐름은 멈추게 된다. 즉, 지혜가 생기고 자비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차명상 틀의 구성요소는 무상, 상호의존, 공 등의 다르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는 차명상의 수행의 정도에 따라 깨달음과 자유라는 체험으로 나타난다.

비유하자면 대나무는 비어 있다. 비어 있기만 하면 대나무는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매듭이 있기 때문에 대나무는 더 높이 자라난다. 마찬가지로 대나무의 비어있음을 공성에 비유한다면 매듭은 공성을 아는 자비와 지혜에 비유할 수 있다. 이

있는 그대로 아는 추론의 힘
직관 통해야 왜곡 최소화돼
바르게 알수록 一味 깨달아
범부가 성인으로 거듭나게 해

지혜와 자비의 매듭으로 인하여 대나무에 비유되는 수행자는 정신이 성숙해지면서 깨달음이 일어나고 자유로워지게 된다.

언구

차명상의 멘트의 언구는 스토리를 구성하고 다르마를 표현한다. 그러므로 차 명상 스토리는 언구로부터 출발하고 언구를 떠나 다르마의 뜻으로 들어간다. 언구를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견해가 무너지면서 마음의 변화가 생긴다. 마음의 변화는 명상중 이해로 나타난다. 체험이 있다는 것이며 그 체험에서 지혜가 생기는 것이다. 처음은 언구를 통하여 내용을 파악하고 두 번째는 내용의 뜻을 알아차리고 세 번째는 뜻으로 들어간다. 내용이 파악되면 언구를 떠나는 것이며 뜻을 알게 되면 그 내용을 떠나는 것이며 뜻으로 들어가면 그 뜻을 버리는 것이다. 물론 언구를 통하여 바로 뜻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상이다.

그래서 수행자는 처음 길잡이의 언구의 멘트를 통해 명상하고 다음에는 자기 자신에게 언구의 멘트를 하고 그 다음에는 멘트 없이 명상하여야 다르마의 뜻에 들어갈 수 있다.

차명상 틀의 요소

첫째는 비유다.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서는 비유가 필요하다. 비유는 설명하기 힘든 수행체험을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깨달음의 평등을 표현하기 위해 '허공과 같다' 라고 허공을 비유하여 표현한다. 감로차 명상과 오색차 명상에서 차의 색 · 향 · 미가 모래에 물이 스며들 듯이라고 비유하고 색한마음 다선의 찻물의 맑고 투명함의 비유는 거울과 허공이다.

둘째는 상징이다. 다실 꾸미기 명상에서 집은 오온(五蘊)을 상징하며 명상정원은 수행 중의 내면을 상징한다. 시냇물은 생사, 탐진치를 상징하며 여섯 징검다리는 육바라밀, 연못은 선정, 연꽃은 깨달음, 빈 마당은 공성, 다실은 완전한 깨달음을 상징한다. 색한마음 다선에서는 찻잔-옹달샘-연못-호수-바다-하늘은 몸을 상징하며 찻잔의 찻물이 맑고 투명함, 연못의 물-호수의 물-바닷물-하늘의 텅 빔의 맑고 투명함은 마음의 본성을 상징한다.

셋째는 심리다. 행다선에서 모든 행다하는 행위에는 본인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오색차 명상에서 색채는 심리이다. 색한마음 다선에서 찻잔과 하늘까지의 이미지는 본인의 심리 현상이다. 차명상의 상상과 이야기가 모두 심리로 이루어져 있다.

넷째는 다르마(法)다. 다르마는 ①상호의존 ②인과 ③변화(無常) · 불만족(苦) · 자아 없음(無我) ④자성 없음(空)이다.

행다선에서 의도가 원인이 되어 행다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로 이루어져 있다. 다실 꾸미기 명상도, 오색차 명상도, 색한마음 다선도 모두 인과로 이루어져 있고 인(因)과 과(果)의 상호 의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변화 · 불만족 · 자아없음 · 자성 없음 등의 다르마가 차명상의 틀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차명상의 모든 명상 틀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틀로 나타난 명상수단

결과이면서 수단이라는 것은 알아차림이 계(戒)가 되고 알아차림이 익으면서 집중이 되어 정(定)을 이루고 정을 의지하여 지혜가 생기기 때문이다. 계 · 정 · 혜는 차명상의 틀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이면서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 상승하는 수단이 된다. 계 · 정 · 혜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일미(一味)를 아는 지혜가 잠재되어 있는 마음의 무한 잠재능력과 가능성이 발휘되면서 범부가 성인으로 바뀌는 것이다.

말하자면 알아차림을 통한 감각기관의 단속인 계는 차명상의 틀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이면서 명상수단이 된다. 첫째, 행다할 때 대상에 반응하는 느낌과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릴 때 집중의 토대가 되는 감각기관을 단속하여 도덕적인 계를 이룬다. 계에 의지하여 일어나는 번뇌의 고요한 삼매(定)는 명상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이 익어가는 현상으로 집중이 생긴다. 집중은 찰나삼매를 일으키고 본삼매에 들어갈 수 있는 수단이다. 삼매는 정신적인 성숙을 가져온다. 모든 수행의 단계는 삼매 속에서 이루어진다.

알아차림 속에서 삼매가 일어나면 무상 · 고 · 무아를 아는 지혜가 생긴다. 변하는 것은 불만족스럽고 불만족은 뜻대로 안 된다. 그래서 주재하는 자아가 없는 무아이다. 이렇게 무상 · 고 · 무아의 지혜가 생기면 번뇌 속박은 풀어지고 자유가 온다.

차 명상으로 끝으로 자비선 명상의 연재를 마친다. 자비공관 명상에 대한 것은 다음기회가 있으면 소개하겠다. 〈끝〉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 선원장〉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질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피부 · 치아 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 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 건조, 임플란트 또는 틀니 하시고 윗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소화불량, 스트레스(화병), 가슴통증, 수행시상기증, 얼굴모낭충,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 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 (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 피부건조, 역류성 식도염, 위염, 대장염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대행 스님

유 무를 갈이 동시에 놔서 함이 없이 한다면 그것이 활공법!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남) 옳다 틀리다가 아니고 생각을, 내가 생각 자체를 내면은 거부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 그래.' 하고 던져버리는데 스님 올 초 법문에 그런 게 있어서 혹시 내가 이걸 뭐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큰스님 잘못한다도 없고 잘한다도 없어요. 왜냐? 그건 나무가 바람에 쓸리고 또는 눈에 맞아서 흩어지고 비가 와서 비를 맞고 이렇게 해도, 또 공기, 태양열 이런 것이 많이 흡수가 돼도 이 나무는 말이 없어요. 왜냐? 뿌리만이 올리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순환을 하죠. 맡길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대로 여여하게 맡겨지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넘어서야 할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들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무는 그대로 흡수돼서 밑으로 내리고 뿌리에서 올리고 태양열, 공기 모든 거를 흡수해서 내려보내도 그 내려보내기 위해서 참, 때로는 비에 젖고 때로는 눈에 젖고 때로는 바람에 젖고 때로는 뜨거운 태양에 젖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다 흡수해서 내려보냅니다. 또 밑에서는 수분이나 또는 지기나 황열, 철분 이런 모든 거를 흡수해서 올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래 영양을 섭취해서 푸르르게 살고 있고 그러면서도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닥치는 겁니다. 그래도 자기가 뿌리 있는 거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겁내지 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놓을 게 없다느니, 아까 그랬지요? 놓을 게 없는데 놓는다, 생각을 한다, 생각할 것도 없다 이랬죠? 그런데 생각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데에서 이게 잘못되고 잘되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예를 들자면 '맹물에다가 무엇을 넣어야 이건 내 몸에 좋을 텐데. 기침이 나는데 뭐를 넣어야 기침이 안 날 텐데.'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이 없다면 목석이 돼서 무효예요. 생각을 못하면은 목석이 돼서 무효고, 또 생명이 없으면 무효고, 또 이 육체가 없으면 보이지 않아서 무효고요. 그러니까 이건 삼 단계가 하나로 지금, 집합이 돼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인공이라고 이름해서 붙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그렇게 많이 붙여서 하지 말고 요다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용건 하나만 가지고 해결을 하면 다 해결이 나요. 그러니까 용건 하나만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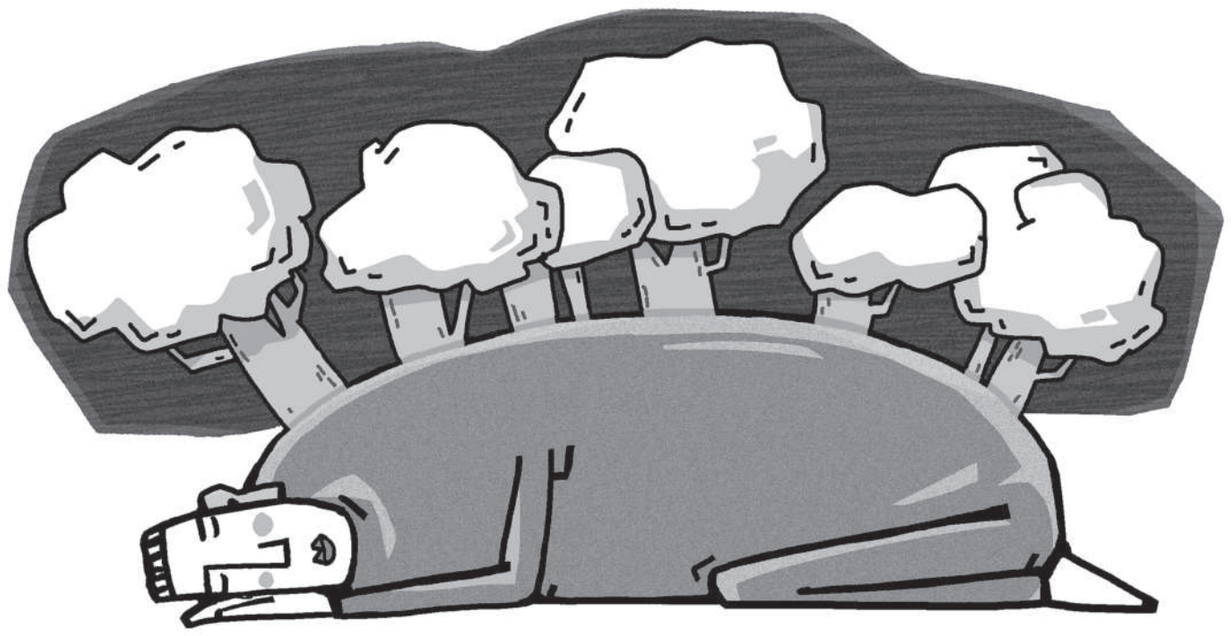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1(남) 제가 표현하기가 어중간해서 좀 길게 한 겁니다. 생각을 안 내서 안 내는 게 아니라 생각을 내버리면 아예 제가 야단을 맞으니까, 길잡이로부터요. 그래서 생각을 안 낸 겁니다.

큰스님 야단을 누가 칩니까? 야단을 치는 놈도 없고 야단을 안 치는 놈도 없어요. 그 가운데서 자유예요. 아직 더 공부하세요.

질문자1(남) 예. 다시 관(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아는 게 많으면 그렇게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많으면 문이 닫히거든요.

질문자2(남) 큰스님, 한마음법을 항상 가르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음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안다는 것과 마음을 본다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큰스님 안다는 것도 아니고 또는 봤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살 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똥 눌 때 똥을 눠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눕니까? 또 먹어야 하나, 안 먹어야 하나 하고 먹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생활을 그대로 이렇게 스스로서 마음이 내키는 대로 보고 듣고 스스로 그냥 하고 있죠? 말과 행과 뜻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깐 "참마음을 찾아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에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있다는 증겁니다. 아주 증거죠. 자기 참마음과 몸이 둘 아니게 그냥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체가 없는 참마음은 성품의 작용에 의해서만이 볼 수 있습니까?

큰스님 음, 참마음이라, 그거는…. 지금 뭐라 그랬죠?

질문자2(남) 실체가 없는 참마음이요.

큰스님 실체가 없어서도 아니 되고, 이 실체가 없이는 참마음이라는 게 없어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참마음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참마음과 실체가 둘이 아닌 까닭에 그대로 동시에 동일하게 움죽거리는 그 자체가 그대로 실체며 그대로 참마음에서 나오는 움죽거림이죠.

질문자2(남) 상대성 원리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큰스님께서 마음 길을 항상 말씀하실 때 첫째, 내가 죽어야 하고 두 번째는, 너와 나와 더불어 죽어야 하고 세 번째는, 더불어 나툴 줄 알아야 한다고 하신 말씀과, 유(有)가 유를 죽이면 무(無)가 되고, 유 · 무를 동시에 죽이면 역시 중도이자 공(空)이 되며, 유가 무를 살리고 무가 유를 살리면 그 활공법이 큰스님 전자의 말씀과 같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큰스님 유 · 무를 같이 동시에 놔서 함이 없이 한다면 그것이 활공법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름해서 활공법이지 그대로 우리가 활공법이죠.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런데 아까 나를 죽여야 나를 본다 이랬죠?

질문자2(남) 예.

큰스님 내가 죽어서 모든 것을 놔서 나를 발견한다, 내가 탄생했다 하더라도 갓 난 어린애와 같아서 모든 거를 또 상대와 둘 아니게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에 '내가 죽어야 된다' 하는 거는 내 자생중생들하고 둘 아니게 죽어야 되거든. 내 자생중생들을 둘 아니게, 동일하게, 나와 더불어 둘 아니게 만들어야 그것이 나를 깨닫는 법이요, 내가 탄생하는 법이죠. 두 번째, '둘이 아니게 더불어 죽어야 한다' 하는 거는, 외부의 모두 나와 둘 아니게 죽어야 하는 것이, 그 도리를 알아야 하는 것이 이제 둘 아닌 도리에 죽어야 둘 아닌 도리를 안다는 거고. 셋째는, '둘 아닌 도리를 알기 때문에 둘 아니게 나툴 줄 알게끔 또 거기서 죽어야 한다' 는 거죠.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처음에도 죽어야 하고 두 번째도 죽어야 하고 세 번째도 죽어야 한다. 나라는 것이 혼자, 나라는 게 세울 게 없다, 이게 죽는 거예요. 나라는 걸 세울 게 없어요. 모든 것에 고개가 숙여져요. 둘 아니게 고개가 숙여져요. 둘 아닌 도리에 의해서만이 여래(如來)라는 이름이 나왔고 부처라는 이름이 나왔지, 각각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고 '내가 잘 배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부처가 될 수가 없고 여래가 될 수가 없고 둘 아닌 도리의 나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유스럽게 말입니다.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큰스님께서 법당을 오르내리실 적에 자명등이 서 있습니다. 그 자명등에 불을 붙여 주시면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영원한 자명등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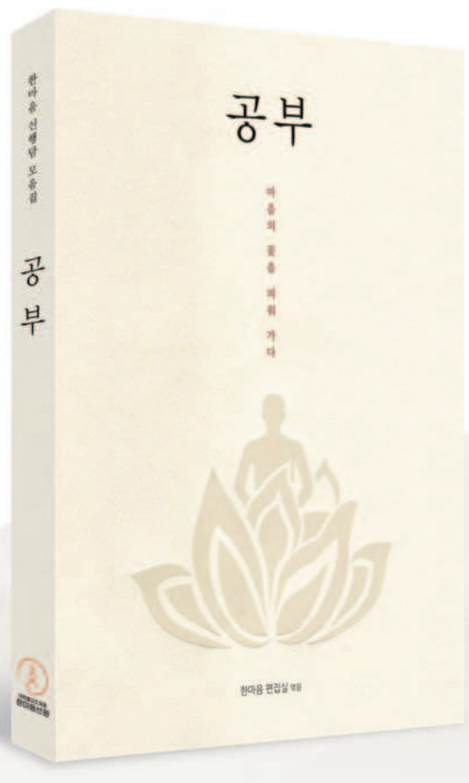
큰스님 이 자명등이 석등(石燈)에, 이 석등이 (대중들을 두루 가리키시며)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전부 석등이죠. 그런데 석등에 불이 원래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죽거리지요. 하하하. 본래 켜져 있으니 그 본래 켜져 있는 광명의 빛을 바로 자기가 응용해서 보고 비추고, 또 켜고 끄고 하는 것이 없이 켜고 끄고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명등에 불을 켰다 안 켰다, 켜 주고 이런 게 없이 본래 켜져 있습니다. 활활 타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간직하고 활활 타고 있는 건데 타고 있는 그 불을 못 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못 쓰는 것뿐이고 꼭 그 불은 여러분 앞에 자유스럽게 쓸 수 있게끔 돼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광력 · 전력 · 자력 · 통신력이 충만히 주어져 있다고. 그것이 바로 광명등입니다.

질문자2(남) 잘 알겠습니다.

큰스님 그러니까 석등에 불이 켜지셨습니까?

☞ A18면으로 계속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한마음선원 전국 지원 종무소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맡겨 놓으면 어떤 애고든 불타 버린다

☞ A17면에서 계속

질문자3(남) 지난달에 스님께 말씀드리고 돌아가면서 '나도 이 공부를 하고 중생 구제를 하겠다.' 라고 생각은 했는데 진짜 중생 구제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진짜 무슨 원력을 갖춰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참된 것이 되겠지만, 그게 과연 올바르게 한 것일까를 스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스님께 고통을 호소하고 하소연하는 그분들이 스스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걸 확신시켜주고 그게 길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힘을 자신이 스스로 밝혀내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니 '중생이 부처임을 알아서 부처가 되도록 이끄는 것이 참된 중생 구제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쭙고 싶은 건, 아무튼 그날 가서 스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제가 제 실생활에 한번 체험을 해 보기 위해서 주위의 아픈 분들이나 저의 부모님 같은 경우도 믿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 안된다고 해서 물러날 나도 아니고 내 평생토록 해서 다 맡긴 게 다 안된다 하더라도 나와 둘이 아닌 그 역대 조사들이 피눈물을 흘려 가면서 입증을 해 놨고 대행 스님도 이 땅에서 지금 활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잘못이 있다면 내가 잘못을 했겠지, 그 마음 도리가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무엇이 모자랐고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그래서 그것을 고쳐 가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스님께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큰스님 맹물이 싫다고 할 때는 설탕을 가미하든 소금을 가미하든 어떤 가미를 해야 잘 먹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슬쩍 가미를 하라고요.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는 불을 켜려면 이것도 이어야 되고 저것도, 소켓도 달아야 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불을 켜려고 그러면 켜져요, 그게? 허허. 그러니까 가미를 해요. 하나로, 슬쩍. 이 스님도 때에 따라선 끌어다가 쓰라고요. 가미를 해서 줘야 이것이 제대로 먹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잘해 봐요.

질문자4(여) 큰스님, 반갑습니다. 저는 질문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니고 큰스님에게 단지 감사의 말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새 생명을 얻어 다시 환생하여 큰스님 앞에 서게 됨을 큰스님께 감사드리며 주인공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봄, 저는 교통사고가 나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산산조각으로 다 부서졌습니다. 어깨뼈, 갈비뼈 14개, 장 파열과 콩팥 파열, 또 골반뼈 구석구석 다 으스러진 상태에서 병원을 찾았으나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며 다른 병원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병원을 옮겨 그 병원에서 최선을 다해 보자며 두 차례 수술을 하였습니다. 두 차례 걸쳐 수술을 하였어도 저는 회생될 기미가 없었습니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백혈구 수치는 3만까지 올라가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부산지원의 스님들과 그리고 회장님의 주선 아래 저의 처사님이 큰스님을 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견하고 온 후, 제 몸은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고 백혈구 수치도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저는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큰스님을 얼마나 찾고, 주인공을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큰스님! 제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가게 해 주십시오. 주인공! 당신이 있다면, 정말 당신이 있다면 아내로서의 임무와 엄마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당신만은 그렇게 하고 갈 수 있잖아!' 하면서 주인공을 소리 없이 얼마나 아우성을 치며 불렀는지 모릅니다.

> **본래 쳐져 있으니 그 본래 쳐져 있는 광명의 빛을 바로 자기가 응용해서 보고 비추고, 또 쳐고 끄고 하는 것이 없이 쳐고 끄고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겁니다.**

큰스님, 제가 제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 제 이웃의 아픔을 알았고 만물만생의 아픔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큰스님, 저는 누워 있는 동안 너무나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 많은 체험을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매달린 의사들이 분야별로 흉부외과 뭐, 정형외과, 외과, 이비인후과 이렇게 네 분이나 됐는데 그분들 모두 한결같이 저를 지극 정성 보살폈고 또 항상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도 역시 천사의 손길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제 주인공의 나툼임을 알았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저에게 그랬습니다. 어쩌면 의사들이 아줌마한테만 유독 저렇게 지극히 간호를 하느냐고. 바로 제 주인공의 나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골반뼈 수술을 해야 되는데 골반뼈 수술은 철사로 얽어매는 작업이었는데, 제가 백혈구 수치가 너무나 높아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주인공! 당신이 이 몸을 병신을 만들든…' , 제가 기침을 하면 그 뼈의 조각조각의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말씀드리니 의사가 "그 뼈의 조각들이 골반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자궁에 들어갈 수도 창자를 뚫고 들어갈 수도 있으니 항상 조심하라고 조금만 수치가 낮으면 수술해야 되니 그렇게 작정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주인공 이것도 당신이잖아. 당신이 하는 거잖아.' 그런데 아니, 제가 기침을 하면 이게 자유자재로 그냥 뼈가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옆이. 그리고 며칠 후 제가 손을 살며시 옆의 그 골반뼈를 만져 보니 이 주위가 딱딱하면서 올라와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침을 하니까 뼈가 움직이질 않습디다. 그전에 기침을 하면 근육에 따라 뼈가 움직였는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더니 "아, 뼈가 제자리로 들어갔는가 보다." 하셔서 다시 사진을 찍고 진료를 해 본 결과 "아줌마, 안심하십시오. 뼈가 제자리에 다 제각기 찾아 들어갔으니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제가 수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에 들어올 때는 모든 사람, 모두 다, 의사들도 가망이 없다 했고 모든 일가친척 주위 사람들이 전부 다 가망이 없다 하는 제가 너무나 급속도로, 정말 급속도로 빠르게 낫기 시작하자 의사들은 제가 화젯거리고 또 관심거리였나 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아줌마, 우리가 의술 배운 데 대한 보람을 아줌마한테서 느꼈고 아줌마가 그렇게 참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는 참 아줌마가 대견스럽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도 "아줌마, 아줌마는 기적이고 운이 좋은 겁니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어찌 이 법을 알겠느냐고. '이 광대무변한 이 묘법을 어찌 당신들이 알겠느냐.' 하면서 제 주인공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큰스님, 살지도 못한다는 제가 2개월 만에 퇴원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제가 큰스님에게 그리고 법우들에게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너무나 말이 막혀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큰스님 그래, 그만해요, 이제.

질문자4(여) 아니, 큰스님.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산지원의 스님들과 그리고 우리 회장님 또 우리 수많은 법우들 저와 함께 항상 한마음으로 저를 이끌어 준 데 대해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리고요. 무지한 저에게 또 이 법을 가르쳐 주신 큰스님께 너무너무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덤으로 얻은 이 육신은 오직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큰스님 법 열심히 따르며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큰스님, 감사합니다,

큰스님 몰라서들 그렇지, 이 뿌리만이 나무를 맘대로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뼈가 퉁그러진 것도 제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고, 태(胎)가 잘못 앉아도 제자리에 가서 앉아서 임신을 제대로 하게끔 될 수도 있고 일체 몸을 맘대로 움죽거리게 하는 것은 자기 뿌립니다. 자기 주인공의 뿌리만이 움죽거리게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더 쉽게 말을 하자면 내 몸속에 있는 의식, 생명, 모습들만이 내 몸을 모두 바꿔 놓을 수 있는 겁니다. 내 몸 안에 들어 있는 의식들이 바로 내가 주인공의 모든 것을 진실로 믿고 맡길 때에 통신이 되는 겁니다. 통신이 되면 그 안에서 통신을 받아 가지고 전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체가 바뀌질 수도 있고, 이렇게 둥그러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고,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닥치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순서대로 자기 닥치는 대로 거기에 모든 것을 맡겨 놓으면 어떤 애고든지 불에 타 버린다 이런 게 있습니다. 불에 타 버린다.

질문자5(여) 스님, 저는 부산지원에서 왔습니다. 오늘 스님께서 제일 처음에 단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시기에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단식이 체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고 마음에 관한 이야기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한 번 더 체내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이 여쭤 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큰스님 단식이라는 게 마음의 단식이지, 그 모든 것을 집어먹으면서도 먹는 사이가 없어야죠. 우리가 밥을 먹고도 먹는 사이가 없이 먹었죠. 왜냐하면 내 몸속에 있는 그 모든 생명체들이 같이 먹었으니까 혼자 먹은 게 없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 혼자 먹은 게 없어요. 그래서 단식이야.

질문자5(여) 예. 그런데 제가 어떤 인연이 닿아서 그런지 몰라도 올 여름방학 때에 저도 단식을 일주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 단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단식에 관해서 여쭈어 보길래 제가 단식한 방법대로 단식을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간암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간암 환자인데 단식을 한다기에 제가 덜컹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단식을 좀 더 전문적인 분한테 여쭈어 보고 하지, 왜 저한테만 물어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하니까 꼭 자기 마음대로 꼭 그 방법대로 하고 싶다 하기에 "한번 해 보세요." 그랬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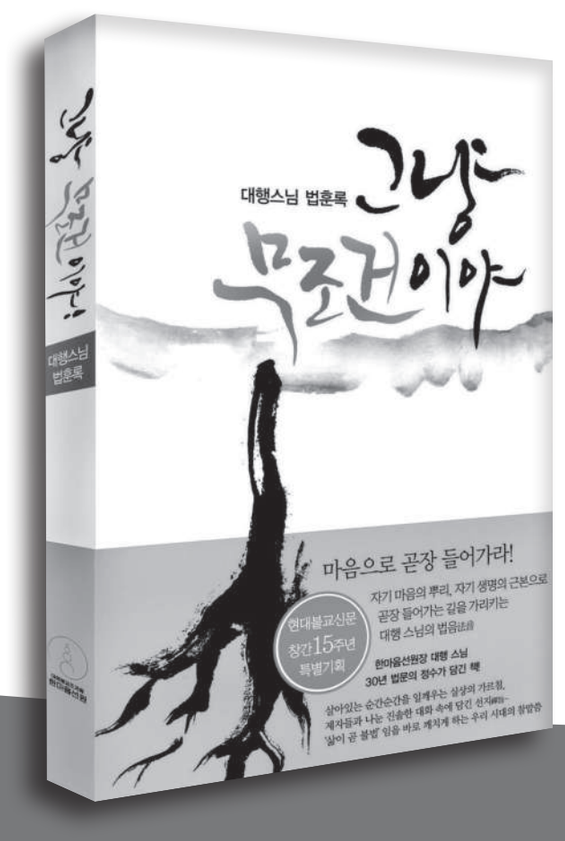
그래서 그분이 3일 동안 물만 먹고 그다음에 21일 동안 단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포도를 조금씩 먹어 가면서 단식을 했는데 그분이 단식을 하고 난 다음에 건강 상태가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꼭 저하고만 이야기를 해 가면서 자꾸 매달리고 있는데, 제가 그 환자를 낫게 해 줄 힘도 없고, 제가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연에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만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저하고도 마음이 통해 가지고 환자가 지금 치료 과정에 있는데 마음의 치료는 지금 안 되었습니다. 스님,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열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큰스님 허허! 그거야 당신 마음대로 해요. 관하는 법을 가르쳐 주든가 또는, 이게 마음의 단식이라는 것은 100%의 규정적인 단식이에요. 이 마음의 단식이라는 것은 몸 안에서 전부 작용을 해 주는 그 묘법의 단식이고, 그냥 음식을 끊어서 단식하는 거는 우리 상식대로 좀, 모든 것을 비워서 병이 낫게 할 수 있다 하는 데서 오는 단식이죠. 그러니까 단식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몸을 위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단식이고, 이 단식은 마음의 단식이기 때문에 모든 그 전체 마음의 단식에 의해서 전체가 거기 붙어 돌아갑니다. 그러니깐 이 몸속에서 모든 그 단식의 신호가 들어간다면 모든 것이 다 작용을 스스로 해 주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의 단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의 부처님들께서도 마음의 단식을 주장했지 몸뚱이의 단식, 먹는 걸 끊어 가면서 단식하는 걸 주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자유스럽게 사십시오. 우리는 지금 정신계와 물질계의 교차로에 섰다고 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본다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차로를 넘어서서 둘 아니게 응용하신다면 앞으로 살기에 억울함이 없이 아마 편안하게, 공심(共心)으로서 공용(共用)을 하고 사실 겁니다.

※위 법문은 1993년 12월 19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현불 논단 |

행복 근육을 키우자



법현 스님
열린선원 선원장
나가노 금강사 주지

경제 위기 · 안전사고 · 미세먼지 등
추운 겨울만큼 힘든 시민의 일상

현 난제는 어떤 원인서 비롯됐나
윤리 배제해온 과보를 지금 받아
개인 행복 튼실해야 사회도 행복

몸 건강하기 위해 근육을 키우듯
'행복 근육' 길러 스스로 행복하길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기온이 내려가고 있다. 공기 속 미세먼지만큼이나 여러 가지 삶의 먼지들이 뿌옇게 끼어서 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와 소득주도 성장, 가계대출의 적정성, 정권 주도층의 분열, 새로운 촛불의 등장 등 마음을 흐리게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람들의 발 역할을 하고 될 수 있으면 기쁜 소식을 날라야 할 KTX 사고의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불안하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딛고 4만달러 시대를 성큼 앞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이 긴요하다고 한다. 남과 북의 주민들이 나누어 쓰면 좋은 것들을 찾아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긴요하고도 가장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많다. 그런데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 범위에서의 어려움도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런 고민이라도 속 시원히 털어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크게 걱정할 것이 없을 지도 모른다.

괴로움의 내용과 원인을 분석해 알아내고 괴로움을 떨어버린 상태 즉 최고의 행복, 지속 가능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여 지속하게 하는 길을 찾아내는 사성제의 가르침을 생각해본다.

현실 생활에 적용도 해본다. 지금의 난제에는 어떤 원인이 있을까? 해결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산업혁명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지구촌의 드문 나라 대한민국의 행복감이 낮은 상태를 극복하는 길을 무엇일까? 산업혁명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면서 필요악이라는 것을 저질렀다.

절차의 정의 즉 윤리를 코스마다, 레벨마다 적용해야 했는데 이런 저런 이유에서 생략한 것이다. 윤리를 배제하고 지나온 과보를 엄청나게 크게 받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라 생각하겠지만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은 결과임을 잘 파악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눈과 귀를 통해 시행해온 나라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서 활용하는 것은 보통 사람, 시민이어야 한다.

시스템도 하나하나의 사람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의 심장을 통해 곳곳의 혈맥으로 흐르는 뜨거운 피가 가장 소중하게 효율적으로 사회의 체온을 높이는 수단이요, 목적이다.

가장 작은 단위인 한 사람의 행복이 튼실해야 사회의 행복도 튼실해져 사회 전체가 행복한 미소를 띠게 될 것이다.

면역력이 약해져 조금만 상한 것 같아도 탈이 나고, 아주 조금만 무리를 해도 감기몸살에 시달리는 몸의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맛있게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더 나아가 때때로 알맞은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키우면 조금 체중이 많이 나가도, 조금 덜 나가도 관계없이 튼튼하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행복의 근육을 키우게 되면 사회의 행복지수도 높아지고 행복이 지속하게 될 것이다.

행복근육을 기르도록 하자. 취미생활과 공부 및 일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며 나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 이웃과 사회의 행복이 지속되도록 살펴보자.

나와 우리를 왕성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괴로움(五盛陰苦)이라 한 말씀도 살펴보면서 해체가 답이라고 하는 말씀의 속뜻도 살피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롭다고 하는 어떤 이의 공동체 삶도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튼튼한 행복근육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特別기고

원효의 발자취를 찾아 지난달 경북 일대로 순례를 다녀온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순례기를 보내왔다. 북칼럼니스트인 박사 씨의 글을 싣는다. 〈편집자 주〉

원효 찾아 땅의 기억 더듬다



박 사
북칼럼니스트

무려 1300여 년 전 사람의 삶의 흔적을 더듬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할 말은 없다. 그의 삶은 반쯤 신화에 묻혀버렸고, 어디까지가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가 태어났다는 나무는 이제 없고 그가 태어난 동네의 유명한 밤나무숲은 흔적도 찾을 수 없다. 그 자리에 세워졌다는 절도 부지런히 현세의 사람들이 드나들며 손때를 묻히고 있을 뿐. 여느 동네 절과 다른 점이라고는 원효의 흔적을 내세운 풋말과 후세의 사람들이 그리고 만들어낸 기록뿐이다. 그런데 발자취라고?

그 때문인지 순례에 참가한 사람들이 여행에서 기대한 바는 제각각이었다. 어떤 이는 말 그대로 원효의 사상을 공부하고 체험하기를 원했고, 그저 많은 절을 둘러본다는 데 의의를 둔 이도 있었다. 경주와 경산의 좋은 풍광을 둘러보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고, 자신이 알고 있는 원효를 상상하기 위한 코스가 될 수도 있을 터였다. 나는 경주와 경산의 절을 유람한다는 게 좋았다. 원효의 사상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그리 크지 않았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원효에 대해 기대 이상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된 여행이었다.

먼저, 풍경이 있었다. 지금의 풍경은 당시 원효가 살았던 시절과 많이 달라졌겠지만 산세는 여전했다. 마을의 한가운데 있는 제석사도 마을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초개사도, 골굴사도, 기림사도 나름대로 옛 기억을 품고 있었다. 사람들이 부지런히 드나들고 수행하고 기도하며 닦은 기운도 원효의 시대에서 이어진 것이었다. 절 마당에서 보이는 풍경에 원효가 바라보았음직한 풍경을 겹쳐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가 있었던 시절이 실감이 났다. 말 그대로 '발자취' 였고 '순례' 였다. 〈중략〉

황룡사 역사문화관에서 잘 정리된 기록과 입체영화를 본 경험도 원효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실감나게 했다. 생생하게 재현된 당시의 풍경 속에 살아있는 원효가 걸어 들어왔다.

권력에 등 돌리고 일자무식의 민중들을 위해 춤을 추었던 원효. 그날 밤 함께 읽은 원효의 오도송에서, 우리는 그 시절 신라 사람들의, 그리고 그날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졌다 불타버린 황룡사의 흔적을 새겼다. "세상은 오직 마음이요, 모든 대상은 분별의 마음일 뿐이네. 마음밖에 대상이 없는데, 어찌 다른데서 구하리요."

기억은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땅이 갖고 있는 기억도 있다. 핏줄이 갖고 있는 기억도 있다. 이야기를 통해 전해지는 기억도 있다. 원효에 대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릴터이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그와 요석공주의 사랑에 대해서, 무애행에 대해서, 일심에 대해서 우리는 짐작하고 토론하고 확인했다. 각자의 마음속에 원효를 한 사람씩 모시고 갔다. 우리가 원한 것은 서로 달랐지만, 모두 만족한 여행이었다.

社說

지하철 풍경소리 불사 도와야

1999년부터 약 20년간 지하철 역사 내에서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포스터로 문화포교를 이어온 비영리단체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 가 전국지하철 게시판 교체라는 대대적인 불사에 나섰다.

풍경소리는 1988년 시작된 개신교단체 교통문화선교협의회의 '사랑의 편지' 에 이어 불교계 문화포교와 시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해 조직됐다. 사실상 '사랑의 편지' 후발주자였지만 수도권이 아닌 지방지하철서는 풍경소리가 먼저 정착하는 등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읽을거리로 널리 알려졌다. 2001년에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하철 한 량을 한시적으로 빌려 80일간 '봉축열차' 를 운행하고, 2004년에는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불교문화체험전을 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포교를 이끌었다.

하지만 20년의 세월이 흐르며 과학기술은 급격히 발달했고, 무엇보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풍경소리 글귀는 대중의 시선에서 멀어졌다. 이로 인해 후원 또한 줄어들어 20주년을 위한 새 사업을 앞두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매월 교체하는 전국 지하철 게시판 포스터도 자원봉사자 100여 명의 도움으로 해결하고 있다.

지하철 풍경소리는 출범 당시 불교계의 전폭적인 관심을 받았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 스님은 풍경소리 사업 설명을 듣고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고 전한다. 지금은 어떠한가. 풍경소리가 겪는 철거 위기 소식에도 잠잠했던 불교계다. 그래도 풍경소리는 내색하지 않은 채 꿋꿋하게 버텨왔다. 이제는 불교계가 소중한 문화포교 방편을 지키기 위해 나설 차례다.

얼굴없는 보살이 되자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이 찾아왔다. 이 시기가 되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 미담들이 언론 매체들을 통해 보도된다.

18년째 돼지저금통에 기부하는 전북 전주시 노송동주민센터의 '얼굴없는 기부자' 의 일화는 이미 유명하다. 그는 지난해까지 5억여 원의 기부금을 주민센터에 전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에는 6년째 쌀을 전달하는 익명의 농부도 있다고 한다.

최근 동국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동국대에 따르면 12월 5일 본인의 이름을 절대로 밝히지 말아달라는 불자가 대외협력처를 방문했다.

그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2억 원을 쾌척했다. 독실한 불자인 그의 자비행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지난 2009년 3억 원, 2017년 2억 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고 한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태도였다. 장학금 기부가 "부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 이라고 밝힌 익명의 불자는 "기부는 절대 대가를 바라면 안된다. 재물은 내 것이 아닌 부처님 가피로 얻은 것이기에 수입의 90%를 보시하고 있다"고 했다.

동국대는 기부금을 기부자의 뜻에 따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부는 대가를 바라면 안된다"는 그의 말에서 '집착없이 베푼다' 는 '무주상보시' 의 진정한 의미를 만난다. 보시는 수행의 결실과 함께 구제받지 못한 세상의 모든 유정물을 구제해 준다는 이타의 서원(誓願)이자 이타행의 극치다.

어느 누구에게 드러내지 않으며 보시를 하는 사람이야 말로 진정한 보살이다. 올 연말 우리도 '얼굴없는 보살' 이 되어 보는 것은 어떨까.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 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누가 집에 들어와서 음식에 약을 타서 먹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한다거나 성격이 포악하고 욕을 잘하는 경우.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 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 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악령귀신도 불법승으로 단 한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번이나 했는데 안되더라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반드시 해결되는데 믿지못하고 의심하고 망설이는 것은 또 뭐꼬!!!

卍 **대한불교 자비사** 예약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

다시 부처님 시대 꿈꾸는 영원한 전법사



김재영 법사는… 1938년 마산에서 태어났다. 마산상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사범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했다. 이후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김동화 박사의 지도로 석사를,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에서 〈초기불교의 사회적 실천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불교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4년부터 지금까지 동방불교대학 교수로 '현대포교론' 등을 강의해왔다. 1970년 동덕여고 불교학생회 창립을 이끌었고, 현재까지 청소년 · 청년 · 대학생 중심의 '청보리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1년부터 국제구호단체 '자비수레꾼'을 설립(공동대표)하여 캄보디아 북부 오지 뗍뽀디봉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세우고 500여 명의 어린이 학교보내기운동을 전개해왔다. 2011년 청보리순례단을 이끌고 인도의 8대 성지를 순례한 후 부처님의 생애를 영상작품화한 '붓다 석가모니(10부작)'를 제작해 새로운 전법(붓다 스터디)을 펼치고 있다. 2006년 대원상을 수상했으며, 저서로 〈룸비니에서 구시나가라까지〉, 〈우리도 부처님같이〉, 〈초기불교개척사〉, 〈화엄코리아〉, 〈붓다의 일생 우리들의 일생〉 등이 있다.

테마人 **김재영** 청보리회 법사(80)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불교로 바뀐 삶

모친, 태몽으로 약사여래 친견

청소년기 사찰 불교학생회 활동

사춘기 죽음에 대한 공포로 방황

〈법구경〉으로 죽음 공포 벗어나

〈법구경〉 등 본격 불교공부

"부처님 당시의 초기 불교를 이끈 것은 '빠리사'였다. 빠리사는 왕족과 무사, 지식인, 상인, 사문, 거사 등 시민들로 구성된 수행공동체다. 빠리사는 부처님도 함께 무릎을 맞대고 둘러(pari) 앉아(sa)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의하며 함께 개척해가는 자유평등의 공동체다. 부처님은 빠리사와 함께 법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을 논의했으며, 빠리사는 각종 불사를 지원하고 승단을 외호하며 수행을 이끌었다. 빠리사는 서로의 네트워크를 통해 대상(隊商)을 조직해 세계 각국에 불법을 전파하기도 했다. 부처님의 불교가 널리 퍼지고 지금까지 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빠리사의 역할이 컸다. 오늘날의 불교가 부처님 당시의 불교와 다르고, 좀 더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 때와 같은 '빠리사'가 없기 때문이다. 빠리사를 복원하는 일이 불교의 원형을 복원하는 길이다." 1970~1980년대 청소년 불교운동을 일으키고 '청보리' 운동으로 포교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김재영 법사는 부처님의 시대를 다시 꿈꾸고 있다.

다시 부처님의 불교로…'붓다 스터디'

다시 부처님 시대의 불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 김 법사는 누누이 강조한다. 지금 우리의 불교는 부처님이 하셨던 불교와 많이 다르다고. 부처님의 불교는 길 위에서 몸소 실천하신 불교라고. 그래서 김 법사는 오랜 세월 외쳐왔다. '붓다의 불교 부흥'이다. 과연 지금의 우리 불교는 2500년 전의 불교와 진정 어긋나 있는 걸까. 어긋나 있다면, 얼마나 어떻게 어긋나 있는 걸까. 그리고 돌아갈 방법은 있는 걸까.

늘 부처님 시절을 그리워하며 사는 김 법사는 2011년 1월 청보리순례단을 이끌고 인도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김 법사와 도반들은 부처님의 발자국 위에 발자국을 더하며 잠시나마 부처님 시절을 더듬어본다. 한 걸음 한 걸음 부처님을 그리며 룸비니에서 쿠시나가라까지 부처님의 8대 성지를 걸었다. '순례'였다. 길 위에서 대중과 만났던, 그렇게 이 세상에 왔다 가신 부처님을 그리며 김 법사는 걸었다. 김 법사는 동행한 사진작가를 통해 순례의 과정을 사진에 담아왔다. 그리고 사진과 추가 영상을 더해 10부작 영상물을 제작했다. 제목은 '붓다 석가모니'다.

2014년 10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붓다 석가모니'의 시사회 겸 '대중스터디'가 열렸다. 김 법사는 새로운 전법운동 '붓다 스터디'를 시작한다. 부처님의 탄생에서 열반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생애를 담은 영상은 부처님 시대의 불교를 함께 공부하는 교재였다. 앞서 9월 장충동에서 첫 시사회와 대중스터디를 열었고, 두 번째 대중 스터디를 통해 본격적으로 '붓다 스터디'를 대중에게 알렸다.

"불교의 중심은 부처님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불교의 중심엔 왠지 부처님이 없습니다. 참선, 위빠사나, 염불, 간경 등 방편들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 방편들은 방편대로 분명 의미가 있는 것들이지만 부처님이 중심에 있고 난 후에 그 방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붓다 스터디'는 부처님의 불교를 복원하기 위한 대안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붓다공동체운동'이란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김 법사는 "부처님 시대의 불교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빠리사의 자유로운 토론과 합의, 그것으로 비롯되는 자발적 동기, 무한한 창의, 상상력, 개척정신 등 대중의 노력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부처님 열반 후 빠리사는 점점 소멸했고 그 결과 세계불교가 여러 가지로 오류를 범하고 모순 속에 있게 됐다"고 말한다. 그 오류와 모순 속에서 우리의 불교 또한 부처님 시대의 불교에서 어긋나게 됐다는 것이다. 김 법사는 '빠리사의 부흥'이 부처님 시대의 불교로 돌아갈 수 있는 대안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부처님 말씀에 귀의한 이들이 서로가 모여 빠리사를 만들고 '붓다 스터디'를 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어긋난 불교를 다시 돌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법사는 그것을 '붓다 빠리사 개척운동'이라고 말했다.

김 법사는 '붓다 스터디'와 함께 '붓다 개척자 학교'를 열었다. '붓다 스터디'는 "부처님 공부하자"는 것이고, 붓다 개척자 학교는 부처님 시대의 불교를 온전히 열어가기 위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다. 1년 과정을 수료하면 '개척강사'가 되고, 2년 과정을 수료하면 '개척법사'가 된다. 지금까지 19명의 개척강사와 6명의 개척법사를 배출했다. 그리고 현재 12명이 법사와 강사의 과정을 밟고 있다.

탯줄에 깃든 불연

김 법사의 깊은 불심과 쉼 없는 원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부처님의 '연기법'으로 그 설명이 충분할 듯하다. 지금의 김재영은 지금의 김재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지금의 김재영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1938년 마산에서 태어난 김 법사의 탯줄에는 미륵부처님과 약사여래의 이야기가 있다. 김 법사는 모친의 간절한 기도 끝에 이 세상에 왔다. 독실한 불자였던 김 법사의 모친은 늦은 나이에 자식을 갖기 위해 부처님 전에 일심으로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기도 끝에 태몽을 꾼다. 김 법사의 모친은 꿈속에서 자신이 매일 기도하며 보았던 장춘사의 미륵불을 보고 난 후 김 법사를 가졌다. 훗날 김 법사는 모친이 꿈에서 보았다는 미륵불을 보기 위해 장춘사를 찾았다. 하지만 김 법사의 모친이 보았다는 미륵불은 약사여래였다. 김 법사는 입이 트이고 귀를 열면서부터 자신의 태몽에 대한 이야기를 모친으로부터 자주 들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명대 선종의 특징

B5
문화
특별전 '신라를 다시 본다'

B6
학술 · 문화재
대행선연구원 제2회 계절 발표회



2011년 청보리순례단 인도 성지순례 모습.



2015년 '불교개척자학교' 제1기 개척강사 양성과정 선포식.



동덕여고 불교학생회 탈춤동아리 공연 모습.

'청보리' 운동 이끌며 포교…"진짜 불교 해보고 싶다"

〈청소년 깨달음〉

50여 년 전법 · 포교 한 길

동덕여고불교학생회 창립 이끌어

청소년축제 '연꽃들의 행진' 신설

70~80년대 청소년 포교 붐 조성

인도 8대 성지순례 영상교재제작

"부처님 당시 불교 복원해야"

'붓다 스터디' 새로운 전법

부처님 시절 '빠리사 운동' 전개

불교개척자학교 개설 지도자 양성

〈화엄코리아〉 〈붓다의~〉 출간

'김재영 법사'

B1면에서 계속

김 법사의 입과 귀는 그렇게 열렸다. 입과 귀를 부처님의 이야기로 연 김 법사는 걸음마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모친의 손에 이끌려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모친과 함께 통도사의 마산포교당에 다녔다. 고암 스님이 계셨다. 고2 때는 친구의 권유로 학생법회에 가입했고 회장도 했다.

"솔직히 그 땐 부처님 공부, 그런 것 때문에 절에 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절에 가는 게 좋아서 갔고, 반갑게 맞아주는 스님이 좋아서 갔고, 무엇보다 절에 가면 친구들을 볼 수 있어서 갔었죠. 초파일 때 친구들과 밤새 연등 만들면서 어울리는 게 좋아서 절에 갔었죠. 그 때의 절은 그랬어요. 절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불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날의 절이 예전의 절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교 알리기 위해 부르면 안 됩니다. 교리 가르칠 생각부터 하면 안 됩니다. 우선 절에 가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절에 다니다 보면 자꾸 부처님 보게 되고 부처님 보다보면 부처님 가까이 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절이 시대적으로 청소년들과 부합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훗날 김 법사가 포교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 시절에 경험했던 불교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삶을 바꾼 〈법구경〉

고1 겨울방학 때였다. '사춘기' 였을까. 김 법사 역시도 많은 생각을 짓고 부수며 앞으로 살아갈 날을 위한 몸짓을 시작했다. 김 법사는 어느 날 갑자기 '죽음' 에 대한 생각에 갇힌다. 매순간 '죽음' 이라는 단어가 눈앞을 가로막았고, 그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다. '죽음이란 무엇일까'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지 않을까' 등등 김 법사의 사춘기는 죽음의 문제에서 방황을 시작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업이었을까. 김 법사는 사춘기를 지나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 죽음에 대한 문제를 버리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 살게 된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몸부림을 쳤다. 대학과 군복무를 마치고 동덕여고 국사교사로 부임할 때까지도 김 법사는 죽음에 대한 문제에서 나오지 못했다. 위태로운 삶이었다.

"학생들 앞에 서야하는 교사였지만 정서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나날을 보냈죠. 한 자리에 있지를 못했고, 차분한 시간이 없었어요."

1967년 김 법사가 고3 담임을 맡고 있을 때였다. 그날도 역시 김 법사는 위태롭고 불안했다. 교정 이곳저곳으로 방황하던 김 법사의 발길이 머문 곳은 도서관이었다. 도서관을 서성이던 김 법사의 눈에 책 한 권이 들어왔다. 〈법구경〉이었다.

"마음이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마음이 주가 되어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속에 악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 또한 그러하리라. 그 때문에 괴로움은 그를 따르리. 마치 수레를 따르는 수레바퀴처럼"

김 법사는 먼지를 털어내고 〈법구경〉의 첫 장을 열었다. 첫 게송은 김 법사의 가슴을 뛰게 했다. 그리고 김 법사는 마음속에 불안과 위태로움으로 엉겨붙어있던 죽음의 문제들을 순식간에 씻어낼 수 있었다.

"유년기와 청소년 시절의 많은 시간을 절에서 보냈고, 많은 법문을 듣고 살았는데도 부처님의 글자를 보지 못했던 거죠. 뒤늦게 부처님의 글자가 보였던 거죠."

동덕여고 불교학생회…청소년 포교의 시작

1970년 7월 18일, 서울 동덕여고에서는 위대한 불사가 있었다. 유정애 학생대표의 발원문 낭독과 함께 200여 명의 여고생들이 사홍서원을 합창했다. '동덕여고불교학생회' 탄생이다. 전국을 통틀어 불교학생회가 10여 곳에 불과했던 시절이었다. 어린이불교, 청소년불교가 전무하던 시절에서 종립학교도 아니었던 동덕여고의 불교학생회 탄생은 의미 있는 불사였으며 '사건' 이었다. 그 불사의 배경과 중심엔 김재영 법사가 있었다.

뒤늦게 부처님의 글자에 눈을 뜬 김 법사는 본격적으로 불교 공부를 시작했다. 〈법구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꼭꼭 씹어 읽었다. 눈과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받아들인 공부였다. 6개월에 걸쳐 〈법구경〉을 마친 김 법사는 1년에 걸쳐 〈우리말 팔만대장경〉을 마치고 각종 경전과 불서들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한 발 한 발 다가갔다. 그렇게 김 법사의 공부는 하루하루 늘어갔고, 국사를 가르쳤던 김 법사는 수업 시간에 간간히 부처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했다. 수업은 점점 재미를 더했다. 아이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동덕여고불교학생회는 학생들로부터 시작됐다. 어느 날, 학생들이 김 법사를 찾아왔다. '불교반' 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었다. 학교는 특별활동의 하나로 '불교반' 을 인가했고, 그 불교반의 이름은 '동덕여고불교학생회' 였다. 200여 명으로 시작한 '동덕여고불교학생회' 는 750여 명으로 늘어났다.

김 법사는 부처님 가까이 온 아이들을 계속 부처님 품에 머물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 1971년부터 시작된 '연꽃들의 행진' 이 그것이다. 김 법사의 사비와 약간의 후원금으로 시작된 '연꽃들의 행진' 은 청소년불자들이 참여해 합창, 연극, 탈춤 등의 공연을 펼치는 축제의 무대로, 1999년까지 매년 열렸다. 축제가 열리는 날에는 참여 학생과 불자들로 대성황을 이뤘다.

'동덕여고 불교학생회' 의 창립은 청소년 불교운동에 불을 지폈다. 서울 대원정사, 청룡사 등 사찰학생법회가 신설되는 계기가 되었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로 인해 대학교불교학생회가 늘어나고 넓어졌다. 동덕여대 불교학생회가 창립됐고, 성신대, 서울대, 한양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중앙대 등 여러 대학의 불교학생회가 속속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어진 불사는 다시 청년 불자모임으로 이어졌다.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다시 '청보리' 라는 이름 아래 모였다. '청보리회' 는 '청보리 운동' 과 한 이름으로 다른 단체들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청보리' 는 모든 불교학생회를 아우르는 이름으로, 그리운 도반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것이다. 그렇게 모여서 함께 부처님 공부하고 '청소년(청) 깨달음(보리)' 운동을 돕는 것이다.

김 법사가 중심이 되었던 동덕여고 불교학생회는 문화를 통한 포교로 청소년과 청년들을 부처님 가까이 이끌었고, 1970~1980년대 청소년과 청년포교의 중흥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김재영' 이라는 작은 씨앗 하나가 커다란 불사로 이어진 것이다. 〈법구경〉 한 구절에서 시작된 대작불사다.

붓다의 일생 우리들의 일생

"불교,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제 우리도 붓다 석가모니의 일생 그대로, 진짜 불교 한 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 초라하고 지루한 인생, 한 번 멋있게 신명나게 바꿔가고 싶다. '그게 불교냐?' , 많은 친구들이 외면하더라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라도 가고 싶다. 이대로 무너지면 우리가 그렇게 애써 살아온 '불교인생' , 너무 허망하지 않을까?"

지난 10월 김 법사가 출간한 〈붓다의 일생 우리들의 일생 - 동쪽나라〉의 서문 일부다. 비장한 서원이다. 흔들리지 않는 불심이다. 책은 '붓다 스터디' 를 위한 시리즈로 〈화엄코리아 · 2017〉에 이은 두 번째 책이다. 온갖 잡것들(雜華)들, 잡초(雜草)들이 들풀처럼 한데 어울려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 '화엄불국토' 를 개척하고픈 염원을 담고 있다. 1권 〈화엄코리아〉가 현실 비판과 미래를 이야기했다면, 이번 책은 룸비니(탄생)에서 쿠시나라가(열반)까지 부처님의 일생을 통해 부처님의 불교를 복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한다. 그리고 집필을 준비하고 있는 3권은 잘못된 현재의 불교를 바로 잡는 노력이 될 것이라고 김 법사는 말한다.

50여 년 동안 불교 포교에 헌신해 온 김 법사의 서원은 함께 '부처' 를 만나자는 것이다. 붓다의 일생과 우리들의 일생이 하나이기를 바란다. 맨발로 걸을 수 없는 시대에 맨발로 한 번 걸어보자는 것이다. 이 시대의 '맨발' 은 무엇일까.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苦가 아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 신행요전 (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한글/영어)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삼교·선정합일 시대, 명 말엽 선종 쇠퇴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㉓ 명대 선종의 특징



그림 · 강병호

원대를 뒤엎고 새롭게 건립된 나라는 명나라로서, 명대의 태조는 주원장이다. 주원장은 어린 시절 집안이 가난했던 이유로 인해서 한 때 절에서 사미로 지낸 적이 있다. 이러한 인연으로 인해서 그는 불교의 내부 및 불교와 사회적인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한 때 원대한 포부와 현실적인 이상을 종교를 이용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희망을 품은 적이 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명교(明教)와 미륵의 구호를 내걸고 원나라를 반대하는 궐기를 통해서 승리를 했고, 끝내는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명나라를 세우게 되었다. 때문에 그는 이 방면의 체험을 통해서 얻을 교훈으로 사회 및 전체 사원을 통치하는 하나의 조치를 감행했다. 우선 태조 주원장은 일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문호(門戶)를 정리하고, 사찰에 대해서도 백련교(白蓮教), 명교(明教: 摩尼教), 미륵교(彌勒教)를 금지했다. 그러한 후에 다시 불교의 활동을 제한하고, '신명불교방책(申明佛教榜册)' 을 반포하였다.

주원장은 승관제도를 실시해서 출가인의 숫자와 자질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을 했으며, 또 승려들의 관아 출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석감계고략속집(釋鑑稽古略續集)〉에 보면 "많은 대중이 모임으로써 총림을 이루며, 안선으로써 청규를 이룬다(會眾以成叢林, 清規以安禪.)"고 했다. 그는 또 전국의 사원을 선(禪), 강(講), 교(教) 세 가지로 분류하라고 예부(禮部)에 명령하였다. 곧 "그 선은 불립문자로서, 반드시 성(性)을 보아야 비로소 본종(本宗 · 선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강(講)하는 자는 모든 경전의 취지를 밝히는데 힘써야 하며, 교(教)하는 자는 부처님법으로 일체중생을 요익하게 해서, 일체의 업을 짓지 못하도록 가르쳐야한다"고 했다. 또 그는 홍무(洪武) 14년에 승려들의 복장에 대해서도 교시를 하였는데, 선승은 항상 다갈색 승복을 입고 청조(青條)옥색 가사(玉色袈裟)를 수하게 했으며, 강승(講僧)은 항상 옥색을 입고, 녹조(綠條) 담홍색가사(淺紅袈裟)를 수하게 했고, 교승(教僧)은 항상 검은색(皂色)을 입고, 흑조(黑條) 담홍색가사(淺紅袈裟)를 입게 했다. 또 도교의 도사는 항상 청색(青色)을 입게 하고, 관복(朝服)은 적색(赤色)을 입게 했다고 한다. 주원장의 이러한 종교적 정책은 명대 선종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의 이러한 불교에 대한 통합적인 종교정책은 명나라 불교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교승 이외 선승 및 강학하는 승려들은 오직 총림에서 전문적으로 참선을 하거나 경전을 배우게 하였다. 이것은 바로 승려들을 산림 중에 묶어 놓기 위한 정책으로 세속과 왕래를 단절시키려는 의도였다. 이 점은 명나라 중엽 이전, 역사적으로 승려들이 세속과 왕래를 단절시킨 매우 드물고 특이한 사건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명대에 선종은 비교적 선전을 했지만, 종풍은 도리어 쇄락했다. 명나라 말엽 선종은 밀실전첩(密室傳帖 · 밀실에서 비밀하게 전하는 것), 동과인자(冬瓜印子 · 진짜 인장 같으나 사실은 가짜) 등의 종풍이 유행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종은 원대에 비하면 명대에 이르러서 이미 중국불교에서 주류가 되면서 사회에 곳곳에 영향을 주었다. 비록 조정에서 종교정책을 빌미로 해서 불교발전에 대한 제한을 가했지만, 다만 완전히 사회에서 불교를 배척하도록 한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명대의 선종과 교종의 한계가 명확하게 나누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선승(禪僧)과 강승(講僧) 또한 그렇게 분명하게 나누어 진 것도 아니었다. 주원장 본인은 원래 꼭 불교를 없애려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가 원했던 것은 당시 불교에 대한 병폐 내지 혼란한 상태를 정리 개정하려고 했던 정책이기도 하다. 단지 그가 원했던 것은 스님은 스님답고, 절은 절답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으며, 각기 승려들이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 해주기를 기대했고, 동시에 통치자로서 본인의 통치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했다. 때문에 명대정권이 수립된 이후에도 고승대덕은 여전히 존경과 예우를 받았는데, 예를 들면 혜담(慧昙) · 종늑(宗泐)등이 있다. 사실 주원장의 종교정책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은 승려들은 모두 비교적 하층에 속하는, 배움이 적은 선승들이었고, 특히 문화적 소양을 갖추고 높은 교육수준을 구비했던 선승들은 제외됐다.

명대에 선종은 강남지역의 임제종이 가장 활약이 많았다. 그 가운데서 가장 일찍 영향력이 있었던 계통은 원수행단(元叟行端)의 계통에 속한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주원장은 홍무3년(洪武3年 · 1370)에 금릉(지금 남경)의 천계사(天界寺) 30여 명의 고승을 초청을 했을 때 3분의 1은 모두 원수문하의 인물들이었다(出元叟之門者, 三居一焉)고 한다. 또 소은대흔(笑隱大訢) 계통의 혜담(慧曇), 종늑(宗泐) 등은 일찍이 조정의 칙명으로 서역지역 각국에 선법을 전파하기 위한 출사(出使 · 출장)를 떠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두 갈래의 선법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다. 명나라 중엽에 선종은 쇠퇴를 막아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였지만, 실천수행보다는 이론에 치중하는 선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도리어 교학에 대한 강설을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는데 열중하였고, 새롭게 선법을 개정 혹은 새로운 수행의 안목도 돌출해 내지 못했다.

정책과 상관 없는 불교 위상
선종 성 · 쇠 반복 결국 쇠퇴

이후 명나라 제3대 황제인 성조주체(成祖朱棣 · 영락제)가 수도를 연경(현재 북경)으로 옮긴 후 선종의 침체, 염불선의 유행, 선사들의 정토겸수 등이 유행을 하게 되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당정 당파의 투쟁으로 인해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가 약화되었다. 이때 중앙정부가 선종에 대한 제한적인 정책이 점점 느슨해지면서, 선종으로 하여금 부활의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이 부흥운동은 먼저 선종의 지역구인 강서(江西) · 절강(浙江)일대에서 흥기하기 시작하였으며, 오래지 않아서 광활한 남방에 각지에 퍼져 나아갔다. 임제종 · 조동종 할 것 없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력을 확장해 나아갔다. 예를 들면 임제종의 소암덕보(笑岩德寶) 계통의 환유정전(幻有正传 · 1549-1614) 제자 계통, 조동종의 운문계(雲門系) 및 수창계(壽昌系) 등을 꼽을 수가 있다. 이 두 계파는 모두 간화선을 계승 발전하였지만, 이 두 계파는 상호 투쟁과 편견이 매우 심했던 관계로, 상호 약점인 허물과 비밀을 들춰내서 공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당시 사회가 불안정했던 관계로 사회의 인사들이 종종 은거(隱居)방식으로 입선(入禪)하는 자 및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선문(禪門)에 입문하는 자가 많았다. 이 가운데의 어떤 이들은 조정의 당파 투쟁 중에 세력을 잃고 출가한 문인사대부가 적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선종은 차츰 거대한 세력이 형성 되었고, 선종은 또 다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선종은 자연스럽게 무식한 집단의 오명을 벗어나게 되었고, 전하는 바에 의하면 당시 선법을 전수할 수 있는 법력(능력)을 가진 선사가 천여 명이 넘었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오래가지 못했다.

특히 명나라 말엽의 사상계는 삼교합일사상이 보편적으로 유행을 하였다. 불문의 고승들도 외전을 겸해서 배웠다. 명나라 말엽 4대 고승들도 모두 유학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연지주굉(蓮池袾宏 혹은 雲棲袾宏)은 본래 유생이었으며, 감산덕청(憨山德清)은 청소년 시절에 습거자업(習舉子業 · 주자가 주석한 사서의 내용)을 익혔으며, 우익지욱(藕益智旭)은 불교에 입문하고도 유교 도교와 관련된 책을 짓기도 했다. 자백진가(紫柏真可)도 삼교합일을 주장하였으며, 자백진가(紫柏真可)의 문집인 〈長松如退〉 서언 중에서 자칭 유, 불, 도를 출입(出入)한다고 적고 있다. 위의 네 사람 즉 운서주굉(雲棲袾宏), 자백진가(紫柏眞可), 감산덕청(憨山德清), 우익지욱(藕益智旭) 등을 역사적으로 명말 '사대고승(四大高僧)' 으로 명명하고 있다.

이외도 명대 불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거사신앙이 유행했다. 많은 거사들이 대장경을 열람하는 풍조를 이루기도 했다. 유학자들도 덩달아서 대장경을 열독하고 불경의 이치를 이해하고자 했다. 한편 선종은 물론이거니와 기타 종파도 승속을 막론하고 삼교합일 및 선정합일(禪淨合一)이 사조를 이루었다. 이러한 사조는 명대 '사대고승' 들의 저술, 어록 사상 등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전형적인 예로서 명대의 유명한 정치가 사상가 철학가인 왕수인(王守仁)의 사상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있는데, 그가 말한 '격물치지(格物致知) 및 심즉리(心卽理), 심외무리(心外無理), 심외무물(心外無物)' 등의 관점은 선종의 즉심즉불(卽心卽佛) 내지 심성학(心性學)은 선종의 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그의 유명한 '사구교(四句教)' 는 유식과 깊은 연관이 있다. 물론 이외도 멀리로는 육구연(陸九淵), 이정(程頤程顥), 주희(朱熹) 등도 선종과 깊은 인연이 있는 이들이다.

결론적으로 명대 말엽 선종은 이미 쇠퇴시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 쇠퇴의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과거 선법수행의 방법에서 벗어나지도 못했고, 선법 실천수행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보충 및 선법의 실천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지도 못했다. 더욱이 시대의 환경에 알맞은 새로운 수행법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게다가 명대의 종교정책으로 인한 엄격한 규제가 가해지면서, 명대 선종은 점점 더 침체되어 갔다. 명대 말엽에 한 번의 부흥운동이 이어졌지만, 불씨는 활활 타오르지 못하고 사그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제종파의 융합은 명나라 말엽 불교의 특색 가운데 하나였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당시 선종의 선승들은 실천보다는 이론에 치중하면서, 불교융합을 바탕으로 부흥을 추진한 경향이 있었다. 이 점은 청나라 이후 불교의 기본적인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끝〉

〈동국대 강사〉



이번주 신간은… 〈득도아빠〉 사와에 펌프 지음/고현진 옮김/애니북스 펴냄/7500원



내면뿐 아니라 겉모습도 불상을 똑 닮은 범천의 아빠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처의 가르침을 설파하면서 회사원인 엄마를 내조하는 전업주부이다. 그리고 초등학생 1학년인 아들 범천이의 다양한 호기심과 고민을 해결하고, '득도'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아빠의 일과. 남들은 평범하지 않은 아빠의 모습을 이상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범천의 눈에는 번뇌에 사로잡힌 중생들의 고민을 말끔히 날려버리는 아빠의 모습이 그저 특별하기만 하다. 초등학생의 순수한 고민부터 어른들의 애환을 넘나드는 번뇌를 깨달음으로 승화하는 부처 아빠와 범천의 일상을 담은 '득도 코미디'. 18편의 에피소드와 번외편, 덤 만화를 수록했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7~12/13 운주사 집계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혜민스님	수오서재	6	청정도론 (비쑷디막가)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7	대승기신론 입문	목경찬	불광출판사
3	위방가 (법의 분석)	각묵스님	초기불전연구원	8	자비와 공(아날라요 스님의 초기불교 명상 수업)	아날라요	민족사
4	그래,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성전스님	마음의숲	9	구마라집 평전	공빈	부키
5	요가디피카	현천스님	선요가	10	균형의 마음, 우뻬카	박재은	운주사

"답 찾는 사람만이 답 만난다"



그래,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성전 스님/마음의 숲 펴냄/1만 4천원



BBS 불교방송 진행자인 성전 스님

불교계 문사 성전 스님 에세이
"마음보면 '왜' 라는 이유 만나"
마음 발견 및 돌아보는 시선 담아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방송 라디오의 인기 진행자이자, 월간 〈해인〉 편집장과 불교신문 주간을 역임한 불교계 대표 문사로 꼽히는 성전 스님이 새로 에세이를 펴냈다.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발견한 인생의 가치를 쉽고 편한 문장에 녹여냈다. 사람과 자연 속에서 깨닫는 마음의 발견, 억지로 가르치려 하지 않는 담담함, 불교에 대한 통찰, 계절을 마주하는 자세, 일상서 얻는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짧은 글 안에 녹여낸 삶의 진리들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진 삶에 대한 물음과 해답을 이야기한다. 성전 스님이 사람과 자연 속에서 깨달은 마음의 발견을 통해 때론 좋고, 나쁘고, 고맙고, 따뜻한 삶의 이유들을 만나보자. 돌아보면 이유 없는 것들이 없다고 말하는 스님의 말씀처럼, 그 이유들 덕분에 따뜻한 순간들을 나누고자 한다. 마음이 하는 물음과 마음이 하는 답에 귀 기울이고, 지금의 나를 살펴 내일의 나를 찾아가는 따뜻한 방향을 얻길 바란다. 우리를 울리고 웃게 하는 수많은 일상의 순간들을 만나보자.

성전 스님은 책 속에서 말한다.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왜'라는 이유를 만날 수 있다. 언제나 안에서 답을 찾는 사람은 언제나 답을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아기가 울고 웃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연인이 사랑하고 헤어지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우리 마음이 슬프고 기쁜 것에도 다 이유가 있으며, 고맙고 미안한 순간에도 저마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이루는 모든 이유들 앞에 '왜'라는 물음이 존재한다.

이 책은 성전스님이 마음을 발견하고 돌아보는 따뜻한 시선을 담았다. 고맙고 사랑한 날들, 용서하고 깨달은 날들, 울고 웃은 날들 안에서 찾은 마음의 이유들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웃는 이유, 우리가 우는 이유, 우리가 행복한 이유, 우리가 사랑한 이유, 우리가 살고 겪는 일엔 모두 저마다 이유가 있다고 스님은 말한다. 돌아보면 모두, 깨닫고 보니 모두, 따뜻한 이유를 안고 있었던 '왜'라는 물음의 답을 만나보자.

풍경 속에는 저마다 따뜻한 이유가 있다. 성전 스님이 천안 천흥사서 만난 사람들, 마주한 자연, 일상의 사소한 풍경 안에서 끊임없이 삶의 이유를 찾았다. 아버지와 함께 나와 걷던 아이가 뛰기 시작하면 아버지도 뛰기 시작하고, 그 뜀박질이 웃음소리로 바뀌는 순간. 휠체어를 타고 재활 치료를 하는 부부가 건강한 표정으로 건네는 인사. 그들이 아픔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마음의 건강도 찾은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할아버지 한 분이 라디오를 크게 켜고 걸어가시는데, 다리는 벌어지고 허리는 굽고 귀는 멀어 천년 세월도 깨울 만큼 크게 라디오를 켜고 걷는 모습. 딸과 함께 포행을 나온 모녀가 처음엔 합장을 모르더니 이제 합장을 곧잘 하게 된 순간까지.

길 위에서 마주한 사람들의 모습엔 저마다 이유가 있고 이야기가 있었다. 아픈 자나 늙은 자나 아이들이나 건강한 사람들이 모두 공통점을 갖고 있다. 모두 다 평화롭게 물처럼 흐른다는 것이다. 저마다의 이유로 삶을 산다는 것이다. 성전 스님은 그 안에 행복하고 따뜻한 일상을 이야기한다. 천흥사 앞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감동받았고, 도반스님들과 나누는 선문답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봤으며, 자연에게 배우고 깨달은 이야기를 담았다. 모든 순간 무심코 지나쳤던 순간들에도 모두 이유가 있다는 걸 이 책을 통해 함께 발견하길 바란다.

▲저자 **성전 스님**은?

월간 〈해인〉의 편집장과 불교신문 주간을 역임했다. 현재 BBS 불교방송 〈좋은 아침, 성전입니다〉를 진행중이며, 천안 천흥사서 조용히 살고 있다. 저서로는 〈행복하게 미소 짓는 법〉 〈삼천 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 〈이 세상에 당신과 함께 있어 기쁩니다〉 〈어떤 그리움으로 우린 다시 만났을까〉 〈비움, 아름다운 채움〉 〈괜찮아, 나는 나니까〉 등이 있다.

'사무량심'은 기쁨 세포 키운다



기쁨의 세포를 춤추게 하라

정연 재마 스님 지음/불광 펴냄/1만 7천원



정연 재마 스님이 살포시 미소를 짓고 있다.

행복 위한 네개 마음, 사무량심
쓰고 그리며 집중한 감각과 마음
소마틱스 결합한 신체 치유 안내
몸 · 마음 치유 관심과 경험 녹여

'사무량심(四無量心)'은 수없이 많은 중생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무량한 복을 주는 네 가지 이타의 마음이면서, 보살이 지닌 네 가지 자비심을 말한다. 이는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인 자애, 고통을 겪는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인 연민, 다른 사람에게 생긴 좋은 일을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기쁨의 마음과 좋고 싫음에 대한 분별이나 혐오와 같은 흔들림 없는 평온의 마음이다. 불교에서는 이 네 가지 마음이 선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하며 수행을 통해 계속해서 키울 것을 권한다.

하지만 이를 증장시켜야 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사무량심을 키움으로써 다스릴 수 있는 감정인 분노와 혐오, 열등감과 시기심 같은 것은 가장 쉽게, 또 자주 일어나는 감정이면서 스스로를 괴롭혀서 편안하지 못한 상태로 만드는 감정이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면 결국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해진다. 그러므로 사무량심은 모두 함께 잘 어울려 살기 위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인 것이다.

이 책에서는 사무량심 각각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에 어떻게 작용해 사라지게 하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생긴 내 몸의 문제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살핀다. 더불어 사무량심을 키우는 '특별한' 방법을 소개한다. 대부분의 명상 혹은 불교 수행 관련 도서들이 사무량심 증장법으로 '정(靜)적인' 명상을 제시하는 것과는 다른, 활동적인 방법을 전하기 때문이다.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함'이라는 사전적 의미처럼, 명상이란 가만히 앉아 현재 자신이 느끼는 감각과 마음에 집중하는 정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명상이 익숙하지 않거나 감각이나 마음에 집중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이러한 명상법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명상을 하는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한다고 해도 집중력이 부족해서 진득하니 유지할 수 없다거나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 재미가 없어서, 허리 혹은 다리가 아파 한 자세로 있을 수 없다거나 등등 명상을 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자신의 마음과 감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리는 등 심리 치료의 한 방법인 표현예술 치료에서 차용한 방식을 바탕으로 사무량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에서 가장 많이 소개된 방법은 바로 '움직임'이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우리나라서 '몸 치유' 또는 '자가치유'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소마틱스(somatics)에 그 바탕에 두고 있다. 소마틱스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진화하는 몸을 가리키는 '소마(soma)'가 스트레스나 트라우마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나 신체 기능 저하 등으로 생긴 몸의 불편을 해소하고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목표를 둔 이론이다. 이 책에서는 소마틱스의 활동과 사무량심 명상을 함께 소개한다. 움직임을 통해 분노나 혐오, 집착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내보내고, 그 빈자리에 자애와 기쁨 등 긍정적인 감정을 채우는 식이다. 그리고 실천법으로 특정 상황에서 하면 좋은 여러 난이도의 움직임을 찬찬히 소개한다.

이 책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사무량심의 가치 재발견과 체화 프로그램 개발〉(중앙승가대, 실천불교 전공)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듬고 보충했다. 그래서 이론적 바탕이 되는 개념에 대해 알기 쉬우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실천 방법에 대한 설명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친절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저자가 완화의료병동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나 자신의 경험담이 녹아 있어 에세이를 읽듯 편안하게 보면서, 자연스레 소마 사무량심 명상을 해보려는 마음을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김주일 기자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1 불교철학의 역사
D. J. 칼루파하나/김종욱 역//544쪽/25,000원

2 한국의 불교의례 I
정각/양장/460쪽/27,000원

3 밀교학 개론
종석/양장/286쪽/12,000원

4 법화경의 성립과 배경
塚本啓祥/이정수 역양장//576쪽/27,000원

5 성철선사상
도대현/양장/448쪽/23,000원

6 인도불교사
정순일/양장/726쪽/33,000원

7 주역선해 연구
청화/양장/510쪽/25,000원

8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자현/양장/280쪽/15,000원

9 불성론 연구
최현민/양장/368쪽/18,000원

10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416쪽/23,000원

11 청송의 선과 철학
소광희 외/양장/312쪽/18,000원

12 불교미술사상사론
자현/양장/304쪽/18,000원

13 천수경 연구
정각/양장/500쪽/25,000원

14 역경학 개론
최종남 외/양장/454쪽/23,000원

15 현수 법장 연구
계환/양장/252쪽/15,000원

16 유식삼십송 풀이
후카우라 세이분 저/500쪽/25,000원

17 불교사회복지개론
조보각 외/양장/408쪽/20,000원

18 한국 고대 정토신앙 연구
현송/양장/320쪽/17,000원

19 경봉 선사 연구
정도/양장/304쪽/17,000원

20 화엄경의 문학성 연구
도업/양장/360쪽/18,000원

21 정토 수행관 연구
법상/양장/524쪽/25,000원

22 정토불교의 역사와 사상
현송/양장/436쪽/23,000원

23 동산의 불교계 정화운동 연구
진관/양장/242쪽/15,000원

24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이성운/양장/454쪽/23,000원

25 청송의 생애와 선철학
소광희/양장/212쪽/15,000원

26 불교세시풍속
오인/양장/446쪽/23,000원

27 삼계교 사상 연구
법공/양장/424쪽/23,000원

28 범망경보살계본휘해
이원정 편/목정배 역/556쪽/28,000원

29 심오한 중도의 새로운 문을 여는 지혜의 등불
게쎄 텐진 남카/양장/484쪽/24,000원

30 중국불교사상사
김진무/양장/496쪽/25,000원

31 숭산행원의 생애와 사상
최용운/양장/292쪽/17,000원

32 불상점안의식 연구
해사/양장/488쪽/25,000원

33 불교사회사상의 이해
이병욱/양장/364쪽/18,000원

34 분황 원효의 생애와 사상
고영섭/양장/464쪽/25,000원

35 삼계교 연구
서본조진 저/박부자 역/716쪽/35,000원

36 대각국사 의천 연구
무원·진관 공저/양장/272쪽/16,000원

37 티베트 돈점 논쟁 연구
박건주/양장/364쪽/20,000원

38 중국 불성론
라이용하이 저/법지 역/696쪽/33,000원

39 송시의 선학적 이해
박영환/양장/536쪽/27,000원

40 대행선사의 수행법 연구
청강/양장/312쪽/17,000원

41 불교교육론
이송곤/양장/528쪽/27,000원

42 균형의 마음, 우뻬카
박재은/양장/328쪽/1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 인터넷 서점: 붓다북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현대미술로 옮긴 '천 년 전'의 신라


김승영 作, 슬픔

'신라를 다시 본다' 특별전

국립경주박물관 12월 14일~2019년 3월 3일
현대미술작가 6인이 바라본 천년 신라
사진, 설치미술 등 다양한 장르로 표현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천 년 전의 신라를 현대미술로 재해석한 전시가 열린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민병찬)은 12월 14일부터 2019년 3월 3일까지 특별전 '신라를 다시 본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여섯 명의 현대미술작가가 자신만의 시각으로 신라와 신라문화를 재해석한 작품 12점을 선보이는 전시다.

신라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에 기록과 구전된 이야기가 가득한 나라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담겨 있는 유적과 유물로 우리는 천 년 전 신라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의 설화와 그 문화유산은 과거에 만들어진 신라의 이미지다. 현대작가들이 만들어낸 신라의 이미지는 설화의 나라에 더욱 풍성한 상상력을 불어넣는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사진, 설치미술, 수묵화 등 현대미술작가 6인이 현재의 시점에서 천 년 전의 신라를 바라보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창작한 작품들로서 '현대미술'로 그린 천 년 전의 '천 년'이다.

▲'신라는 달의 나라이다'에서는 사진작가 이흥재의 연작 사진 '신라, 그 푸른 밤 - 멀고도 가까운'이 소개된다. 신라시대의 고분, 무덤 앞에 자리한 감나무, 배경이 되는 하늘이 주요 소재다. 이흥재 작가가 신라의 달밤에 빠진 것은 우연히 황남대총 연못에 비친 푸른 하늘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과 저녁 어스름이 교차하는 짧은 순간, 붉은 하늘이 청색으로 바뀔 때의 푸른색(twilight blue)에 주목했다.

▲'고요한 부처의 마음에도 다양한 감정들이 있다'에서는 설치미술작가 김승영의 작품을 소개한다. 김승영 작가가 매료된 문화유산은 반가사유상(국보 제83호)이다. 하지만 그는 고대의 걸작 안에서 가장 원천적인 감정인 '슬픔'을 보았다. 김 작가는 사유하는 보살상이 슬픈 표정을 짓고 눈을 가리는 모습으로 번안했다. 관객이 의문을 갖는 순간 작품과 소통하고 반가사유상은 새롭게 인식된다.

▲'먹은 신라의 정신, 동양의 정신이다'에서는 수묵화가 박대성의 작품을 소개한다. 작가는 작가 특유의 장기인 수묵으로 분황사 모전석탑과 불국사 다보탑을 그렸다. 특히 '고분(古芬), 옛 향기'는 선덕여왕이 세운 분황사탑에 주목한다. 당 태종이 보낸 그림에서 나비 없는 모란꽃을 보고 향기가 없을 것임을 추론해낸 지혜로운 선덕여왕은 향기 나는 여왕의 탑, 분황사를 세웠을 것이라고 작가는 생각한다.

▲'선덕여왕을 위한 진혼의식을 행하다'에서는 정종미 작가의 작품을 소개한다. 선덕여왕의 실제 얼굴을 알 수 없지만, 작가는 남산 불곡의 감실 부처가 선덕여왕의 모습이라는 지역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여왕의 얼굴을 창조해냈다. 또한 전통장례에서 상여 장식에 사용한 종이꽃(지화紙花)으로 화폭 양쪽에 '慶祝경축' 글씨를 장식하여 선덕여왕을 위한 작가의 진혼 의식을 보여준다.

▲'신라의 소리로 전 세계에 자비를 전하다'에서는 임옥상 작가의 작품을 소개한다. '월인천강, 신라의 소리'에서 임 작가가 집중한 것은 신라의 소리, 성덕대왕신종의 종소리다. "범종 소리는 부처의 말씀이다"고 말하는 임 작가는 '하나의 달이 세상 모든 물과 강에 비춰지는 것(月印千江)' 처럼 부처의 소리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모습을 미디어 아트로 구현했다.

▲'디지털의 눈으로 신라를 본다'에서는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의 작품을 소개한다. 우리 눈에 보이는 신라 유물은 가시광선을 통해 본 유물의 색과 형상이다. 이 작가는 '천년의 빛'에서 디지털 영상이 해석한 반가사유상, 석굴암 본존불상 그리고 금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물의 색과 형태를 다르게 보여준다. 이 작가는 우리가 익히 보아온 신라를 디지털 기호로 뭉개고 요동치게 한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이와 함께 참여 작품의 개성을 볼 수 있는 '전시 소개 영상'과 작가들의 작품 제작 의도와 작품 뒷이야기 등을 생생한 인터뷰로 만날 수 있는 '작가 인터뷰 영상'도 마련했다. 전시 기간 중 전시 작품을 설명하는 큐레이터와의 대화(격주 수요일 오후 2시)도 진행한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이번 전시가 문화유산을 재해석하고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과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번 전시에서 보는 즐거움과 듣는 기쁨을 넘어 설화의 나라 신라를 새롭게 상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안성 도피안사 동지법회 및 불교음악 토크쇼
'보현행원송' 대담… 12월 22일(동지) 오전 10시

안성 도피안사(주지 송암)는 동지를 맞아 12월 22일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동지법회 및 송년불교음악 토크쇼 '보현행원송 대담'을 연다.

이번 행사는 동지 맞이 법회와 더불어 특별한 대담으로 진행된다. 대담의 주제는 교성곡 '보현행원송'이다. 교성곡 보현행원송은 불교 대중화와 생활화에 앞장섰던 광덕 스님이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을 시로 옮기고 작곡가 박범훈이 곡을 붙인 것이다. 국악과 합창, 독창, 안무가 어우러진 불교 교성곡으로 1992년 4월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초연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송년불교음악 토크쇼 '보현행원송 대담'은 광덕 스님의 '보현행원송' 초연을 이끌었던 주역들이 모이는 자리다. 작곡과 연습, 행사준비 등 보현행원송의 탄생 과정과 공연 당시를 회고하는 대담이다. 27년 만의 뒤풀이인 셈이다.

사이사이 작곡가의 설명을 곁들여 보현행원송을 감상한다. '보현행원송'을 작곡하고 공연에서 직접 지휘한 박범훈 작곡가와 극단 미추 대표인 연출가 손진책, 디딤무용단 대표인 무용가 국수호, 행사 진행을 총괄한 송암 스님 등이 모여 허심탄회하게 지난날을 회고하며 대담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당시 공연에 참여했던 500여 명의 합창단원, 두 손을 움켜쥐고 목이 터져라 "보리 이루리"를 외쳤던 관객들, 표를 구하지 못해 안타까워했던 불자 등, 인연 있는 모든 대중이 오랜만에 자리를 같이 한다. 절기로 동지인 이 날은 동지불공과 동지법회 후 대중이 둘러앉아 팥죽을 함께 공양한다.

박재완 기자


광덕 스님


송암 스님


박범훈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 기 도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iikukak.com

"원효 '一心' · 대행 '한마음' 서로 맞닿아"

고영섭 교수,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서 주장

일심 · 한마음 구조 분석 통해
두 사상간 동일 · 상이점 조명
'길 없는 길 문 없는 문'이란
禪의 지평서 상통함 강조해

五共 연계 치유명상 제안한
김응철 교수 논문도 '눈길'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원효 스님의 일심(一心)사상과 대행 선사의 '한마음' 사상을 비교 고찰한 논문이 발표됐다.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12월 14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대행선연구원(원장 이평래)이 개최한 '제2회 계절발표회'에서 "원효 스님의 일심 사상과 대행 선사의 한마음 사상이 서로 맞닿아 있다"고 주장했다.

'분황 원교의 일심과 묘공 대행의 한마음'을 발표한 고영섭 교수는 원효 스님의 일심과 대행 선사의 한마음을 구조적으로 분석했다.

고영섭 교수에 따르면 일심은 매우 압축적인 개념으로 아뢰야식과 여래장 · 선으로서의 일심으로 폭넓게 사용된다.

그는 "원효가 망식인 아뢰야식으로서 일심, 진망화합식인 여래장으로서 일심, 화엄의 진심으로서 일심, 선법의 본법으로서 일심 등으로 철저히 일심의 지형도를 그려나갔던 것은 깨달음에 대한 탐구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마음에 대해서는 '불성-한마음주인공-한마음-오공'을 주축으로 분석했다. 고영섭 교수는 대행 선사의 법어를 인용하며 "한마음은 진실로 텅 비어 있고 없음, 좋고 나쁨의 양면을 떠나 중도에서 그 힘을 드러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행 선사의 한마음 주인공과 한마음은 붓다가 설한 중도의 일심에 상응하는 원효의 일심지원(一心之源)과 일심의 관계와 상통한다"고 밝혔다.

고영섭 교수는 일심을 일심지원과 일심으로 구분하고 이와 대비해 한마음을 한마음 주인공과 한마음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그는 "대행 선사는 한마음 주인공과 한마음을 구분해 설하기도 했다. 한마음 주인공이 본래 마음이라면 한마음은 여기로부터 나온 중생심"이라며 "원효스님에 대응해 말하자면 한마음 주인공은 일심지원에 해당되며 한마음은 우주적 마음인 일심이다. 이 때문에 큰 틀에서는 한마음이라는 범주 속에서 이야기되지만 한마음과 한마음 주인공은 제8 아뢰야식과 제9 아마라식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영섭 교수는 선(禪)의 지평에서 두 사상의 접점을 찾았다. 그는 "대행 선사는 참 주인인 주인공은 텅 비었기에 너와 나의 나눔이 없다고 했다. 너와 나의 불이는 일원상으로 귀결된다"며 "텅 비었지만 꽉 찬 일원상 한마음을 형상화하며 일심을 형용해 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행 선사가 그려낸 한마음 주인공과 한마음은 길 없는 길에서 문 없는 문을 연 것이자 길 아닌 곳에서 문 아닌 문을 연 것"이라며 "그것이 원효의 일심지원, 일심과 만나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계절발표회에서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대행선 사상의 문화치유명상 응용방안 연구'를 통해 오공정신과 문화치유명상 프로그램과 연계 ·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김응철 교수는 "대행선에서 강조하는 주인공, 한마음의 화두와 오공정신의 실천을 문화치유명상과 연계시킨 것은 대행선의 대중화, 생활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대행선이 사상이나 관념적 접근에서 벗어나 사회적 실천을 통해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명상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행선연구원이 새롭게 마련한 '계절발표회'는 전문연구자를 초청해 대행선과 불교학 전반 관련 연구를 발표하는 학술행사로 연 4회 개최된다.

"의례 바뀌어야 법회가 바뀐다"

송현주 교수, 〈불교평론〉 겨울호서 주장

주소 · 성명 나열 축원 '지루'
의례 형식 · 내용 다듬어야

반복적이고 복잡한 의례를 대중 법회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소고(小考)가 발표됐다.

송현주 순천향대 교수는 최근 발간한 〈불교평론〉 겨울호(통권 제76호)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현재 대중법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현주 교수는 1980~90년대 많은 연구자들이 한국불교가 침체기로 진입할 것을 예견했고, △불교 의례의 재정비 △의례의 현대화와 한글화 △법회의례의 대중화 △불교생활 의식의 대중화 등을 제안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한국불교의 신도 수가 감소하고 침체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교의례가 본연의 기능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일요법회에 국한해서 볼 때 1980년대 이후 많은 연구자에 의해 지적돼 온 한국불교 의례의 문제점은 오늘날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송현주 교수는 "전체적으로 의례가 복잡하며 반복적이고 축원의식도 동참불자의 주소, 성명을 일일이 낭독해 시간을 끌어 지루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면서 "일요법회의 경우 법회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설법조차 없는 경우가 많으며, 있더라도 시간이 짧거나 알맹이 없는 설법이 많다는 지적도 여전히 주의할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회에 참석하는 불교도들을 위해 의례 형식과 내용을 가다듬어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불교평론〉 겨울호 특집으로는 '불교, 거듭 평화를 말하다'를 주제로 불교의 평화론과 관련된 논문들이 실렸다.

신성민 기자

남북문화유산 교류 성과 담다

국립문화재硏 〈남북문화유산 교류사〉 발간

신계사 · 영통사 복원사 수록돼
불교 참여 북관대첩비 환수도



금강산 신계사와 개성 영통사 복원 등 남북문화유산 교류 성과를 담은 연구서가 발간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덕)는 "분단 이후부터 지금까지 남북 간 이루어진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 중 문화유산분야에서 추진된 사례와 연혁을 집성한 〈남북문화유산 교류사〉를 발간했다"고 12월 11일 밝혔다.

〈남북문화유산 교류사〉는 각기 다른 길을 걸어온 남북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을 짚어보고 남북 간 교류협력의 배경과 체계, 전개 과정을 서술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담아냈다.

특히 박상준 불교문화재연구소 실장은 '북한사찰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통해 남북 단청문화교류 사업, 개성 영통사와 금강산 신계사 복원 과정을 상세히 기술했다. 또한 한일불교계가 주도한 북관대첩비 환수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밖에도 남북문화유산 교류협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성과 외에도 남북 당국이나 남북문화유산 교류협력 관계자 모두가 공유해야 할 단계별 추진 방향을 제언한 것도 주목할만 하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남북문화유산 교류사〉는 남북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유산을 매개로 이루어진 교류 · 협력의 역사와 성과를 정리해보고 앞으로의 문화유산에 대한 교류협력의 미래지향적인 고민을 담아낸 것"이라며 "분단 70년의 역사에서 그 어떤 때보다도 빠르게 남북관계가 변하고 있는 지금, 중간점검의 장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북문화유산 교류사〉는 국내 · 외 국공립 도서관과 국외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국립문화재연구소 누리집에 공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금강대 불교문화硏 티베트어 강좌 개설

내년 1월7~18일 종합강의동서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성철)는 '2019년 금강아카데미 제11회 불교고전어 전문강좌-따시델레 티베트어'를 개설한다.

1월 7일부터 18일까지(토 · 일요일 제외) 금강대 본관 종합강의동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차상엽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교수가 문법반을, 하영수 금강대 교수가 강독반을 맡아 강의를 진행한다.

교재는 각각 미하엘 한의 〈고전티벳어문법〉과 〈법화경〉 '여래수량품' 티베트어본 강독 자료다. 불교전공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비롯해 불교와 티베트어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수강료는 한 강좌 10만원, 두 강좌를 동시 수강하면 15만원이다. 기숙사비와 식비, 교재비는 별도. 신청은 내년 1월 3일까지 전화나 이메일(gcbs@ggu.ac.kr)로 선착순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41)731-3614 신성민 기자

佛儒 교류 · 의승장 기개 담은 고승 詩文들

동국대 ABC사업단, 한글본 〈운곡집 · 허백집〉 발간

조선 시승 운곡과 유생 교유
승병장 허백 시세계 확인돼



조선시대 고승들의 삶과 사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문집 한글본이 잇달아 발간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사업단(이하 ABC사업단)은 "한국불교전서 한글화 사업의 일환으로 〈운곡집 · 허백집〉을 간행했다"고 12월 12일 밝혔다.

조선 중기 고승인 충휘 선사(?-1613)의 시집인 〈운곡집(雲谷集)〉과 같은 시기의 고승 허백당 명조(1593~1661)의 시문집인 〈허백집(虛白集)〉을 한 권으로 엮은 이번 한글본 발간은 한국불교전서 한글본 역주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들 문집은 고승들의 시세계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충희 선사의 〈운곡집〉에 대해 ABC사업단은 "170여 수밖에 안 되는 적은 분량의 시집이지만, 한 시대 지식인들의 교류상을 엿보기에는 좋은 자료"라면서 "유교를 국시로 삼은 사회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지식인들이 학식 높은 승려들과 격의 없이 교유했던 사실을 시로써 보여주는 것으로 그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묘호란 전후 의승장으로 활약한 고승 허백당 명조 선사의 〈허백집〉은 전란과 관련된 참상을 생생히 전하고 있다.

ABC사업단은 "책의 내용에는 선사의 행적과 더불어 시문을 통해 선사의 선교관(禪敎觀)과 의승장으로서의 기개를 엿볼 수 있다"며 "명조 선사는 사찰과 명승지를 유람하며 많은 시를 남겼으며, 선후배 스님들과 주고받은 시 및 유생들과의 교분관계를 보여주는 시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책의 서문에는 불교사상 선사의 법맥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를 통해 석옥 청홍(1272~1352)부터 명조 선사에 이르기까지의 계통을 명백하게 기술한 점은 시문 이상의 주목할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ABC사업단의 한국불교전서 한글본 역주 사업은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총 324종에 달하는 불교저서를 집대성한 한문불전 '한국불교전서'(전 14책)를 한글화하는 사업이다.

신성민 기자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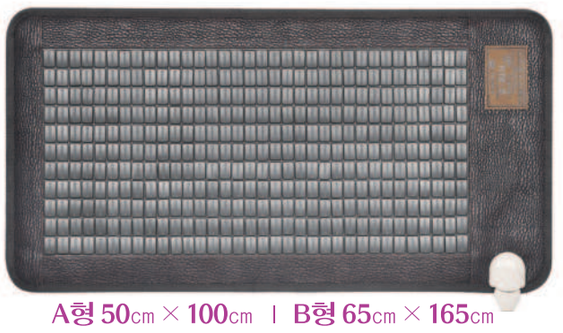
귀사문석(貴蛇紋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09-651인 의료기기 입니다.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기도할 때는 좌복으로,
취심시에는 온열 매트로!!

귀사문석 374 개로 구성



A형 50cm × 100cm | B형 65cm × 165cm

올 겨울 추위는 방안의 숯가마 찜질방(전자파완전 차단)과 함께!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 판 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580-1 리베로빌딩 5층
■ 문의전화 : 031)595-8767, 010-4399-4326 선재생활건강(주)
■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재소자 포교 50년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㉔ 무기수 정기환

가석방이 오히려 '짧은 삶'으로

실수로 살인을 저질러 무기수가 된 정기환 씨 이야기다. 그는 아내의 뒷바라지로 출소까지 할 수 있었다. 정 씨는 우여곡절 끝에 새 삶을 사는 듯했지만 출소 1년 만에 유명을 달리했다. 석방을 도운 선의가 오히려 정 씨를 죽음으로 몬 셈이 됐다.

나는 1986년부터 전남 장흥교도소로 교화법회를 다녔다. 해당 지역은 오지였기 때문에 재소자 개개인의 사연이 소문을 통해 속속들이 알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1급 모범수 정기환 씨는 특히 더했다. 정 씨 사연을 들은 교도소장이 그를 돕고 싶다고 할 정도였다.

"스님, 장흥에 참 불쌍한 무기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도관인지라 재소자를 위해 어찌 할 수도 없습니다만, 스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그이 구명운동을 좀 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 교도소에서 많은 이들을 만났지만 교도소장이 재소자를 직접 가석방시켜달라고 간청한 경우는 없었다. 나는 놀란 기색을 감추고 교도소장에게 정 씨의 사연을 들었다.

장흥에서 태어난 정기환 씨는 관호마을서 방앗간을 운영했다. 정 씨는 마을이장, 예비군 소대장을 맡으면서 주민들과 사이가 좋았다. 정 씨는 이막례 씨와 중매 결혼을 하고 삼형제를 낳았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가족과 마을을 위해 봉사하며 살았다.

착한 성품을 지닌 그는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정 씨는 우연히 채무자를 만나 빌려준 돈을 받으려다 죄를 저질렀다. 정 씨는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었다. 정 씨는 "술에 취해 잘 모르겠다"는 불리한 진술로 상해치사 혐의가 고의살인으로 변경됐다. 정 씨는 1975년 8월 무기형이 확정됐다.

남편이 기약 없는 복역을 시작한 탓에 부인 이 씨는 세 아들을 떠맡아야 했다. 이 씨는 하루 4시간 이상 잔 적이 없었다. 이 씨는 돼지와 닭을 기르고 남의 집 품을 팔아 돈을 벌었다. 이 씨는 아내로서 정 씨의 옥바라지는 물론이고, 어머니로서도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 쉼 없이 일했다.

그 결과 큰아들은 부산대에 장학생으로 진학했다. 그리고 이 씨는 장한 어머니상 · 효부상 등 5차례나 상을 받았다. 농촌에서 땅 한 평 없이, 아이들을 잘 키운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 씨의 옥바라지 사연을 소문으로 들은 교도소장은 감동했다. 교도소장은 정 씨에게 특별 귀휴까지 줬다. 가족들과 회포를 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례적으로 7일의 귀휴를 줬지만, 교도소장은 또 한 번 놀랐다고 했다.

정 씨는 일주일 내내 돼지우리를 짓고 교도소로 복귀했다.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서였다. 그 소식을 들은 교도소장은 어떻게든 정 씨를 돕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정 씨는 나를 만난 후 참회하며 더욱 불심이 깊어갔다. 내가 만난 정 씨는 한 눈에 봐도 선량한 사람이었다.



삼중 스님이 전개한 구명운동으로 각계서 성금 약 600만원이 모연됐다. 출소 후 새 삶을 살 줄 알았던 무기수 정기환 씨는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 사진은 삼중 스님이 정 씨의 아내 이막례 씨에게 성금을 전달하는 모습.

눈물겨운 옥바라지 사연 감동해
구명운동 직접 부탁한 교도소장

언론 통해 아내 이氏 소식 확산
각계서 모인 성금 및 탄원서 전달

감형 뒤 15년차 부처님오신날 석방
선행 베풀다가 경운기 전복, 사고사

교도소장의 말을 듣고 정 씨를 직접 만난 뒤, 나는 본격적인 구명운동에 나섰다. 나는 법무부에 정 씨의 감형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내고, 이 씨의 눈물겨운 옥바라지와 정 씨 소식을 언론에 알렸다.

모 일간지를 통해 '쇠창살마저 녹인 이 씨의 옥바라지'가 세상에 알려졌고, 정 씨 부부를 위해 전국에서 기업가, 주부, 회사원, 학생, 재소자 가족 등이 600만원이 넘는 성금을 보내왔다. '고난의 일생, 이 여인을 돕자'란 이름으로 대대적인 캠페인도 일어났다. 실제로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린 가수 윤수일 씨가 디너쇼 수익금 전액을 이 씨를 위해 내놓기도 했다.

마침내 정 씨의 형기도 줄었다. 언론의 영향력이 대단했다. 정 씨는 1988년 노태우 前 대통령 취임특사로 20년으로 감형됐다. 이어 정 씨는 수감 15년 만인 1989년 5월 부처님오신날 가석방됐다. 그해 12월 말, 나는 기쁜 마음으로 관호마을에 내려갔다. 나는 대표로 이 씨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출소 이후 정 씨 내외는 서울 자비사로 나를 찾아와 "스님 덕분에 출소도 하고 성금으로 아들 등록금도 낼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정 씨가 아내의 덕으로 새 삶을 살 것이라 생각했다.

출소한 지 1년 만에 정 씨는 이 씨를 홀로 두고 세상을 떠났다. 나에게 인사를 하고 간 뒤 며칠 지나지 않은 때였다. 정 씨 내외가 읍내에 장을 보고 오는 길이었다. 경운기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은 5살배기 아이와 마주쳤다. 부부는 어린 아이 혼자서 길을 걷는 것을 보고 측은지심이 생겼다. 정 씨는 길을 잃은 아이를 경운기에 태웠다.

사고는 순식간이었다. 집이 어딘지, 부모님이 누구인지를 물으며 아이를 바래다주던 중이었다. 정 씨는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다 길에 깊게 파인 깊은 구덩이를 보지 못했다. 세 사람이 탄 경운기는 전복됐다. 뒤집힌 경운기에 깔린 정 씨는 그 자리서 사망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씨와 아이는 살았다. 참 기구한 운명이었다.

나는 사고 소식을 접한 뒤 한동안 실의에 빠졌다. 만약 길 가던 아이를 경운기에 태우지 않았다면, 착한 마음을 먹지 않았다면 정 씨는 살 수 있었을까. 더 이전에 정 씨가 가석방되지 않았다면, 내가 구명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탄원하지 않았다면 정 씨는 5년 뒤 만기복역 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정 씨 가족들은 출소만 기다리며 희망을 품고 살았을지 모른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책임감이 무거웠다. 재소자를 위해 구명운동에 나선 것이 회한으로 남았다. 지금까지도 정 씨와의 인연은 내게 아픔으로 남아있다.

정리=김지원 기자



이란 보살의 '밥 짓는 소리'
㉒ 백련사 재가자 무문관 수행 · 벽송사 선강법회



독방 격리! 그렇게 난 5일을 지내보기로 했다. 무문관 수행 5일 후

스님: "잘 살았습니까?"

수덕화: (합장하고 나오며) "밥이 법이고 법이 답이다"

아니다 싶으면 이것저것 앞뒤 잴 필요 없이 작은 배낭 메고 떠난다. 자연에서 우리는 참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어긋났는지를 볼 수 있다. 내 영혼에 향기로운 우물이 넘치게 하고 싶다면 떠나서 지칠 만큼 지내보는 것이 최상의 보약이다. 그곳이 바로 나의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자연과 더불어 이론과 실참(實參)을 병행한 시간. 며칠 잘 살았습니다. 이제 돌아갑니다.

'행복선'이라고요? 그래요. 21세기 불교 중흥을 위해서는 '행복선'이 필요하네요. 저만 갖지 않고 제가 있는 도량에도 뿌리고 가꿀게요. 모든 스님들, 모든 분들께 삼배의 예를 올립니다.

※ 행복선(幸福禪)

부처님을 믿으니 마음이 편해졌다. 그것이 행복선이다. 부처님을 믿으니 행복해졌다. 그것이 바로 행복선이다.

